

# 2017년 상반기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 일시 : 2017년 5월 13일~6월 10일  
(매주 토요일, 9:30~16:20)
- 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 2017년 상반기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일정표

날짜	교시	강의주제	강사
2017년 5월 13일 (제1일)	9:20~9:30	등록 및 개강식	김현철 교육연수원장
	9:30~11:00	1교시 동아시아 평화와 역사문제	이현주 사무총장
	11:00~12:30	2교시 고조선과 외부세계	박선미 연구위원
	12:30~13:30	점심시간	
	13:30~16:20	3교시 일본에 남겨진 한반도에 대한 기억 - 일본서기와 고대한일관계 -	연민수 연구위원
5월 20일 (제2일)	9:30~11:00	1교시 고구려사 어떻게 볼 것인가?	김현숙 연구위원
	11:00~12:30	2교시 남북국시대론의 전개와 발해 디아스포라	김은국 연구위원
	12:30~13:30	점심시간	
	13:30~15:00	3교시 전근대 중국의 사서편찬과 외국인식	김정희 연구위원
	15:00~16:20	4교시 '瀟湘之盟'과 11세기 초 東北亞	이장욱 연구위원
5월 27일 (제3일)	9:30~11:00	1교시 공간으로 본 근대 서울	김종근 연구위원
	11:00~12:30	2교시 조선시대 한성(漢城)의 공간구조와 종묘(宗廟)	이수일 (연세대 사학과)
	12:30~13:30	점심시간	
	13:30~16:20	3교시 서울 시내 역사유적 답사	이수일 (연세대 사학과)
6월 3일 (제4일)	9:30~11:00	1교시 일본근세사의 이해	윤유숙 연구위원
	11:00~12:30	2교시 근대 동아시아 외교사	김민규 연구위원
	12:30~13:30	점심시간	
	13:30~16:20	3교시 한일관계와 역사 문제	남상구 연구위원
6월 10일 (제5일)	9:30~11:00	1교시 증언과 문서, 사진으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서현주 연구위원
	11:00~12:30	2교시 동아시아사 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김정현 연구위원
	12:30~13:30	점심시간	
	13:30~16:20	3교시 동아시아사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세병 (대전 유성생명과학고)
	16:20~16:30	수료식	김현철 교육연수원장

## 목 차

<b>동아시아 평화와 역사문제</b> .....	<b>07</b>
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b>고조선과 외부세계</b> .....	<b>25</b>
박선미 (동북아역사재단)	
<b>일본에 남겨진 한반도에 대한 기억 - 일본서기와 고대한일관계 -</b> .....	<b>37</b>
연민수 (동북아역사재단)	
<b>고구려사 어떻게 볼 것인가?</b> .....	<b>51</b>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b>남북국시대론의 전개와 발해 디아스포라</b> .....	<b>63</b>
김은국 (동북아역사재단)	
<b>전근대 중국의 사서편찬과 외국인식</b> .....	<b>77</b>
김정희 (동북아역사재단)	
<b>‘瀋淵之盟’과 11세기 초 東北亞</b> .....	<b>89</b>
이장욱 (동북아역사재단)	
<b>공간으로 본 근대 서울</b> .....	<b>97</b>
김종근 (동북아역사재단)	

<b>조선시대 한성(漢城)의 공간구조와 종묘(宗廟)</b> .....	<b>111</b>
이수일 (연세대 사학과)	
<b>일본근세사의 이해</b> .....	<b>129</b>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b>근대 동아시아 외교사</b> .....	<b>149</b>
김민규 (동북아역사재단)	
<b>한일관계와 역사 문제</b> .....	<b>157</b>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b>증언과 문서, 사진으로 보는 일본군‘위안부’</b> .....	<b>171</b>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b>동아시아사 교육의 연구동향 분석</b> .....	<b>185</b>
김정현 (동북아역사재단)	
<b>동아시아사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b> .....	<b>199</b>
윤세병 (대전 유성생명과학고)	



---

# 동아시아 평화와 역사문제

---

• 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



# 동아시아 평화와 역사문제

이 현 주  
동북아 역사재단

2

## INDEX

- I. 역사와 정치: 왜 역사가 문제인가?
- II. 동북아시아의 민족주의 역사관
- III. 동북아정세에 투영된 역사
-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 V. 역사 갈등 치유 노력과 그 한계
- VI. 평화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과제

### CHINA'S IMPACT ON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ND QUESTIONS FOR THE SENATE



## I. 역사와 정치: 왜 역사가 문제인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영향 (impact) 미 상원 보고” (2012)

한반도 통일 시 중국이 영토권을 주장할 것인가?

역사문제를 둘러싼 더욱 복잡한 대립전선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갈등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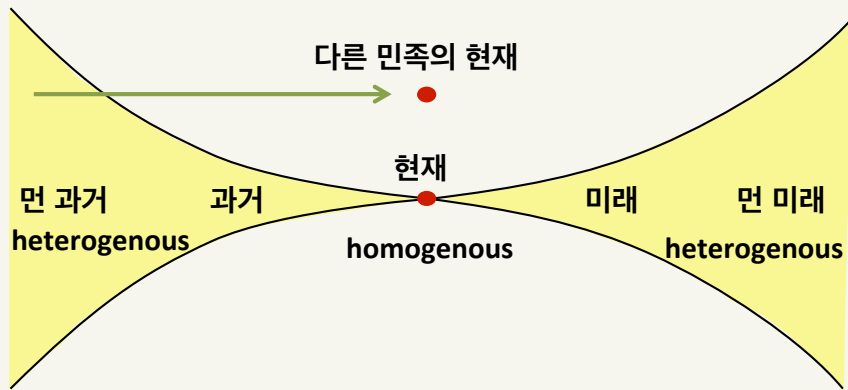
“Asian Paradox”

## II. 동북아시아의 민족주의 역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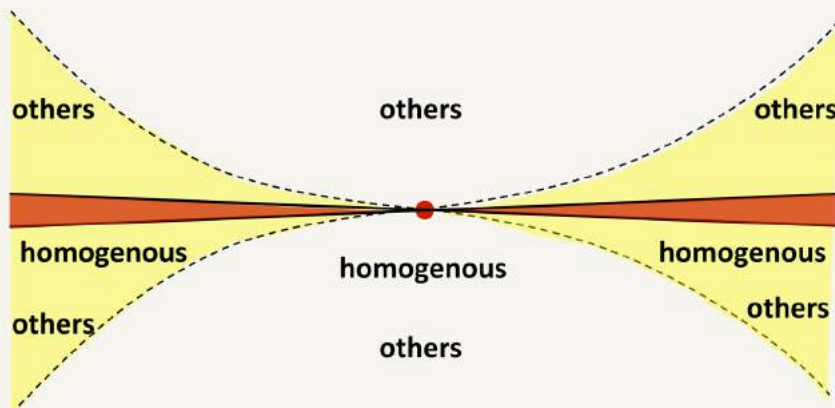
### ◆ 민족주의 역사학의 기원

- 레오폴트 폰 랑케 (Leopold von Ranke)
- 국민국가의 성립: 영토 + 역사
- 독일중심의 낭만적, 국수적 역사 철학

# 과거 - 현재 - 미래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



# 민족주의 역사인식 상의 동질성



## Ⅱ. 동북아시아의 민족주의 역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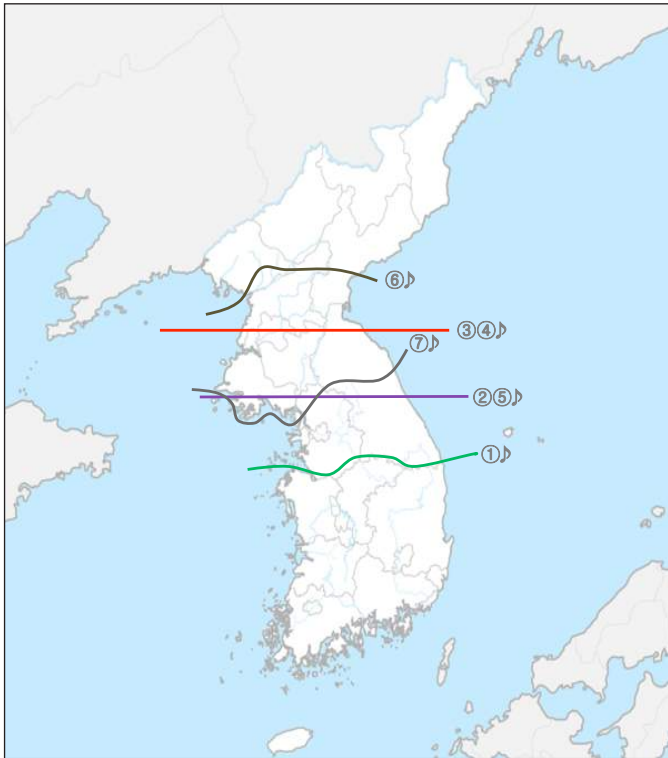
### ◆ 냉전종식/민족주의 재부상

- 역사문제의 정치화
- Asian Paradox
- 경열정냉 (經熱政冷)
- 신 민족주의 대두  
(The New Nationalism)



## Ⅲ

# 동북아 정세에 투영된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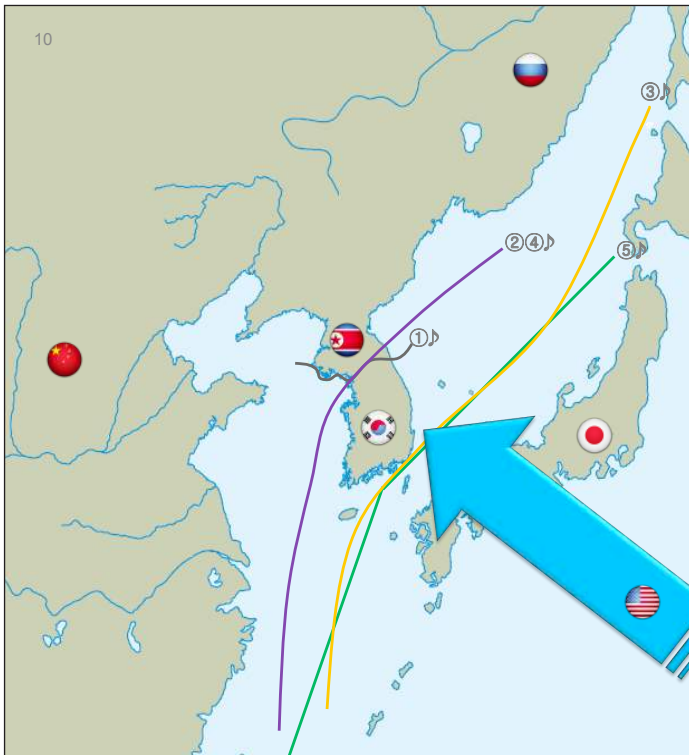


### Ⅲ. 동북아정세에 투영된 역사

분단의 역사: 외세의 한반도 분단 시도 사례

- ① 1592년 임진왜란
- ② 1894년 청일전쟁, 영국 김벌리 외상
- ③ 1896년 5월, 1898년 3월 일본이 러시아에 분할 제시
- ④ 1903년 러시아가 일본에 분할 제시
- ⑤ 1945년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 분할 현실화
- ⑥ 한국전쟁, "the narrow neck"
- ⑦ 휴전선

• 역사는 스스로 되풀이 하는가?



### Ⅲ. 동북아정세에 투영된 역사

아시아 긴장구도인가 평화구도인가

- ① 냉전적 대립
- ②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 ③ 영토문제와 관련된 대립
- ④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대립
- ⑤ 역사 갈등

+트럼프

### Ⅲ. 동북아정세에 투영된 역사



출처: “TPP·RCEP 참여국 현황”, 2016.11.13. 뉴시스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 pict\\_id=NI20161113\\_0012389477](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 pict_id=NI20161113_001238947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IV

#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 ◆ 왜곡되어 도입된 근대유럽역사학의 영향

- 유럽의 근대역사학 전파: 제국주의적 역사학
- 일본중심의 우월적 역사관
- 중국의 중화주의 사관
- 근현대 한국의 시련과 역사왜곡

### ◆ 고대 사료에서 중국의 압도적, 독점적 지위

- 유럽의 로마와 동아시아의 중국

##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 ◆ 중국어: 문자와 언어학적 특성 문제

- 표의문자인 한자의 시대적 발음 변화  
: 시간의 추이에 따라 '형태'와 '발음'이 변화

國

현대표준음 [ guó ]

中古音

上古音



突厥 土耳其 東胡 肅慎 靺鞨 女真 契丹  
加拿大 舊金山 桑港 纽约时报 希拉里 特朗普

##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 ◆한·중·일 3국의 근대 서구화 과정의 역사 COMPLEX

- 근대화 과정에서의 집단적 콤플렉스
- 서구와 굴절된 민족 정체성



: 의화단 운동 당시 중국분할 관련 풍자만평\_1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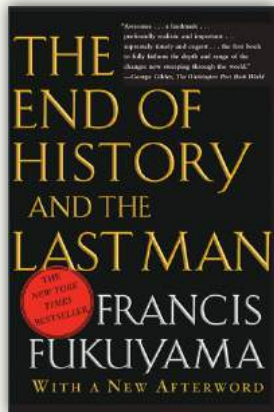


: 아편전쟁 당시 영국과 청제국 풍자 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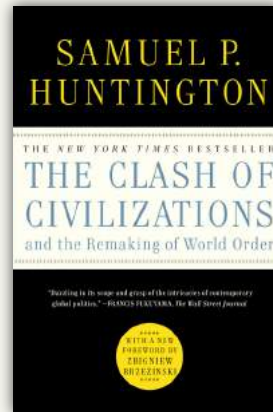
##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 ◆ 역사인식에 대한 전후 냉전구조의 영향

-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냉전 이후



“역사의 종언”(프란시스 후쿠야마)



“문명의 충돌”(사무엘 헌팅턴)

##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 ◆ 한·중·일의 민주주의 수준과 성격

- 정치제도의 개방성 : 언론과 시민사회



##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 ◆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통인식 부재

- 공통의 종교 및 사상(기독교)



##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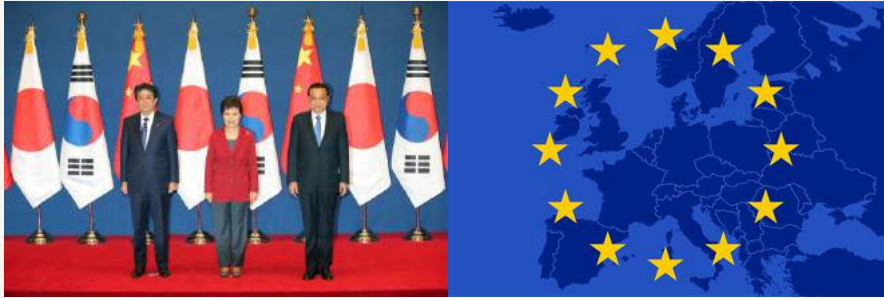
### ◆ 주변국의 감시기능 부재

- 모두가 당사자



##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 ◆ 지역통합 부재
  - EU와 ASEAN



##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 ◆ 자국 역사기술 중심 교육
  - 삼국의 역사교과서



##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 ◆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 동아시아와 G2



- ◆ 한반도 분단 상태의 지속
  -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24

V

## 역사 갈등 치유 노력과 그 한계

## V. 역사 갈등 치유 노력과 그 한계

- ◆사죄발언과 망언
- ◆한일역사공동위원회
- ◆한중일 NGO활동
- ◆중등교과속 동아시아 역사
- ◆동아시아사 교재 및 부교재 공동 개발
- ◆역사학계 간 교류

26

## VI

# 평화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과제

## VI. 평화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과제

- ◆ 개방된 역사인식  
(Awakening of Historical Understanding)
  - 지도층의 열린 인식
- ◆ 역사서술 상의 신뢰 구축 조치  
(CBM principle in historiography)
  - 인문학적 양심
  - 교과서 검정 등 역사정책에 있어 상호협력
- ◆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역할
  - 역사 대화를 위한 열린 자세
  - 공동 역사교재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 ◆ 학술분야의 자율성 확대
  - 정부와 언론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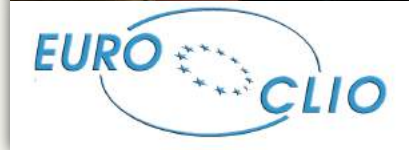
## VI. 평화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과제

- ◆ 각 분야 교류의 확대를 통한 국민간의 이해 증진
  - 민·관·학의 공동 노력
    - 한중인문교류
    - 전근대 삼국의 외교사절에 대한 연구
    - 공동 역사유적 발굴
    -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 VI. 평화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과제

### ◆ EU, UNESCO등 Outsider의 모델 활용

- 게오르크-에케르트 국제역사교과서 연구소
- EUROCLIO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동북아역사재단



## VI. 평화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과제

### ◆ 동아시아사 기술개념 전파

- 민간주도의 동아시아사 교재 프로젝트



## VI. 평화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과제

### ◆ 미국의 역할 ;

“역사문제에서 소프트파워를 발휘하라”

- 냉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 구한말 미국의 대조선 정책
  - 연성화 전략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고조선과 외부세계

---

• 박선미 (동북아역사재단) •



# 고조선과 외부세계

박선미 (동북아역사재단)

## 1. 머리말

고조선은 어떤 나라였는가?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등 한국고대국가의 한 장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고조선을 향한 이 질문은 고조선의 역사적 실체에 대한 해명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에서 고조선을 전공으로 하는 석박사 학위자가 없었던 시절에 고조선을 향한 질문은 ‘고조선은 진짜 있었는가?’였다. 여전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고조선사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사회의 높은 관심도와 고조선에 대한 열망(?)에 비하여 역사학계의 고조선 연구는 더뎠으며 조심스러웠다. 왜냐하면 문자로 기록된 자료가 고려시대 『삼국유사』에 비로소 나타나고 그나마 이른 시기의 기록은 중국측의 사료에 등장하기 때문에 기록의 신빙성에 대한 비판이 뒤따랐다. 고고학계도 마찬가지였다.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였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고학 자료를 통해 고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복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다행히 문헌자료에 대한 검토와 중국 동북지역의 고고학 자료에 대한 연구에 힘입어 고조선의 역사성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게 되었다. 고조선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가 늘면서 최근 2년간 세 명이 고조선을 주제로 하여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도 대학원에서 정규 훈련을 받은 연구자들이 인접분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석사와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어 고조선사 전문 연구인력이 더욱 확충될 것으로 생각된다.<sup>1)</sup> 여기에 중국 동북지역의 고고

1) 고조선을 주제로 한 학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김종열	1987	고조선시대의 의학내용 연구: 단군신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운섭	1988	고조선사회의 성장과정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학철	1989	상고시대와 고조선시대의 의학에 관한 문헌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호정	1990	고조선의 위치와 족속문제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학 자료에 대한 전문 연구자도 늘고 있어서 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결합한 고조선 연구가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고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복원하기 위해서 고조선과 교류를 맺은 그 이웃들에 대한 연구로 진전되고 있다. 최근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기원전 9-3세기 요서지역의 고고학문화와 산용·동호’ ‘기원전 7세기 중반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와 고조선의 위상’등이<sup>2)</sup> 대표적이다.

## 2. 고조선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정보

고조선사에 대한 연구는 문헌사적(文獻史的) 방법론과 고고학적(考古學的) 방법론을 통해 접근된다. 먼저 고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기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관련 기록

먼저 위치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오강원	1995	고조선 위치비정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욱	1998	고조선의 영역에 관한 일고찰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채치용	1998	고조선의 멸망 원인-한의 對匈奴政策과 관련하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하문식	1998	동북아시아 고인돌문화의 연구-중국 동북지방과 서북한지역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호정	1999	고조선 국가형성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남중	2000	위만조선의 영역과 왕검성의 위치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미	2000	기원전 3~2세기 고조선문화와 명도전유적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준형	2000	예맥의 형성과정과 고조선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장록	2005	삼국유사 고조선조 내용에 대한 고찰	여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중서	2006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 비정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병용	2007	조선 후기 역사서에 나타난 고조선 인식: 이종휘의 『東史』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미	2008	화폐유적을 통해 본 고조선의 교역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정희	2008	중국의 기차조선에 대한 인식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원진	2009	기차조선 연구: 요서지역 상주 청동예기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준형	2012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현수	2014	고조선의 형성과 변천과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김남중	2014	위만조선의 성립과 발전 과정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구분희	2017	전국-진한대 요동군과 고조선 서계의 변화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외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서 1987년과 1989년에 김종열의 「고조선시대의 의학내용 연구: 단군신화를 중심으로」와 권학철의 「상고시대와 고조선시대의 의학에 관한 문헌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석사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

2) 이러한 논문은 2016년 12월 간행된 『백산학보』 106호에 게재되어 있다.

- 『관자』 23, 규탁 ‘제 환공이 관자에게 문기를 海内の 보물 7가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가? 하니 관자가 대답하기를 … 연 자산의 백금이 하나요, 발조선의 문피(文皮)가 하나입니다 하였다.’
- 『관자』 23 경중갑 ‘발조선이 조회하지 않는 것은 문피를 폐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한 장의 표범가죽으로서 천금을 넘어서는 것이 문피이니 값을 제대로 계산해 준다면 8천리 떨어진 발 조선도 조회하러 올 것입니다’
- 『산해경』 해내북경 ‘조선은 열양 동쪽, 바다 북쪽, 산 남쪽에 있는데 열양은 연에 속한다.’
- 『산해경』 해내경 ‘동해 안, 북해 모퉁이에 조선이라 부르는 나라가 있다.’
- 『사기』 69 소진열전 ‘소진이 연 문후에게 말했다. 연의 동쪽에는 조선·요동이 있고 북쪽에는 임호·루번이 있고 서쪽에는 운중·구원이 있고 남쪽에는 호타·역수가 있는데 지방 2천리이다.’
- 『염철론』 8, 벌공편 ‘연이 동호를 천리 밖으로 물리치고 요동을 지나 조선을 공격하였다.’
- 『삼국지』 한전 인용 『위략』 ‘후에 자손이 교만하고 포학해지자 연은 장군 진개를 보내 조선의 서쪽 지방을 침공하여 땅 2천리를 빼앗고 만번한을 경계로 삼으니 마침내 조선이 약해졌다.’
- 『사기』 115 조선열전 ‘처음 연의 전성기부터 일찍이 진번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어 국경에 장새를 쌓았다.’
- 『사기』 6, 진시황본기 ‘진의 땅은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러 조선에 미쳤다.’
- 『사기』 115, 조선열전 ‘만은 천여인의 무리를 이끌고 상투를 틀고 오랑캐 옷을 입고 동쪽으로 달아나 장새를 나가 패수를 건너 진고공지 상하장에 머물렀다.’
- 『사기』 115, 조선열전 ‘한 초에 그곳이 지키기 어렵다하여 요동고새를 수리하고 패수에 이르러 경계로 삼고 연에 소속시켰다.’

다음으로 중심지(수도)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삼국유사』 기이, 왕검조선(王儉朝鮮) ‘위서에 이런 말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에 단군왕검이 계서 아사달 —경에는 무엽산이라 했고, 또는 백악이라고도 했는데, 백주에 있다. 혹 개성 동쪽에 있다고도 하는데 지금의 백악궁이 바로 이것이다—에 도움을 정하고 새로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불렀는데 요와 같은 때였다고 한다.’

- 『사기』 115, 조선열전 ‘만은 … 점차 진번 조선의 오랑캐들 및 옛 연·제 망명자들을 복속시켜 거느리고 왕이 되어 왕험(王險)에 도읍하였다.’
- 『삼국유사』 기이, 위(魏)만조선 ‘연의 위만은 … 점차 진번·조선의 오랑캐와 옛 연·제에서 망명해온 사람을 다스려 왕이 되어, 도읍을 왕검에 정했다.’

## 2) 고조선 관련 고고학 자료

고고학적으로는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이 한 집단 내 수장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고조선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고조선의 역사를 복원하는 연구에서 고고학 자료는 부족한 문헌기록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을 표지로 하는 소위 동검문화의 분포범위가 상당히 넓은 점이다.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의 제작 주체 및 향유 집단을 고조선으로 단일하게 대응시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동검을 반출하고 있는 유적 가운데 어느 것을 고조선의 역사적 결과물로 볼 수 있는가?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적은 무엇인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고인들의 제작 주체를 고조선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중국 요령성과 한반도 전역에 분포해 있는 고인들은 고조선 주민들이 남긴 것인가?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유형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고조선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가?

어느 것 하나 명확한 답을 해주지 못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고고학 발굴이 늘어났고 중국 동북지역의 고고학 자료에의 접근이 예전에 비하여 수월해 짐에 따라 이에 대한 국내 전문 연구자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중국 동북지역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지역에 비슷한 유물군을 보여주는 고고학 문화유형이 몇 개로 구분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문화유형을 간략하게 나열해보면 요서지역의 하가점하층문화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전하고 요동산간의 마성자문화 및 요동남단의 쌍타자문화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등장한다. 이어서 요북지역의 고대산문화, 요서지역의 위영자문화, 하가점상층문화, 십이대영자문화가 발전하고, 요동반도일대도 약간 늦은 쌍방문화(또는 유형)가 발전한다. 시기가 내려오면 요동지역에 정가와자문화(또는 유형)가 십이대영자문화에 속하는 남동구유형과 비슷한 시기에 발전한다.

기원전 4세기, 즉 철기시대에는 비파형동검이 세형동검으로 바뀌는데, 이 시기에 이들

지역에는 특정 문화로 구분될만큼 친연성을 가지는 문화유형이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 지역성이 강한 문화가 발전하는데, 지역이름을 따서 ○○유형이라고 구분한다. 예를 들면 상보촌유형이나 윤가촌유형, 정백동유형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이 지역 고고학 자료에 대한 연구를 보면 비파형동검에서 세형동검으로 변화하는 중간단계의 검을 초기세형동검이라고 하지 않고 요령식세형동검이라고 부르고 시기를 기원전 4세기 후반에서 3세기 초로 편년하여 요령식세형동검문화라고 부르는 것 같다. 또한 기존의 전형적인 세형동검을 한국식세형동검이라고 부르고 기원전 3세기 초부터 기원 전후(물론 서북한, 서남안, 영남 등 지역적인 차이 존재)로 편년하고 한국식세형동검문화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문화와 유형은 다시 세분되는 경향이 있고 편년도 학자마다 다르다. 한반도 전역까지 포괄한다면 그 논의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데, 문제는 이들 문화 및 유형들과 고조선의 관계이다. 주지하다시피 특정문화유형을 남긴 주인공으로 언급되는 집단(혹은 정치체, 종족)은 산융, 동호, 예, 맥, 예맥, 한, 흉노 등으로서 문헌자료에 기록된 종족은 대부분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고학 자료를 통해 고조선의 위치 등을 찾기 위한 키워드는 고고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문화유형과 종족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가 될 것이다.

### 3. 고조선의 이웃들

고조선이 청동기시대부터 정치세력으로 발전하여 지금의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고 보았을 때 고조선과 접촉했던 이웃 정치체들로는 누가 있었을까? 이에 대한 정보는 진(秦)의 통일 이전인 선진시대(先秦時代) 문헌자료와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를 발전시킨 주인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진사서의 경우 매우 소략하지만 고조선과 더불어 그 이웃한 국가 혹은 종족이 등장한다. 고조선이 문헌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춘추시대의 일이 채록되어 있는 『관자』와 전국시대의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는 『전국책』이다. 앞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사서에는 중원 세력이나 북방 이민족의 동향과 관련하여 고조선이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이웃 종족 혹은 집단으로 ‘예맥(濊貊)’과 ‘산융(山戎)’, ‘동호(東胡)’등이 나온다.

『관자』에는 제 환공(桓公, 기원전 7세기 중엽)대에 ‘산융’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예맥’등과

조우하였으며, 이 무렵에 ‘발조선’과 문피교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전국책』 연책에는 연 문후(文侯, 기원전 4세기 중엽)대 북쪽에 ‘산융’과 ‘동호’가, 동쪽에 ‘조선’과 ‘요동’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국시대 중기 이후 고조선은 진과 한 등 중국 내륙의 정치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사기』와 『삼국지』 동이전에 인용되어 있는 『위략』에 중원세력과 주변 이민족의 갈등 관계 속에 고조선이 연과 경쟁하는 정치체로 언급되고 있다. 기원전 4세기 중반부터 고조선은 ‘왕(王)’을 자칭하는 정치체로 등장한다.

기록에는 연이 칭왕하는 것을 보고 고조선도 칭왕하였다고 하였다. 연의 칭왕 시기는 이왕(易王, 기원전 332~321) 때 이므로 고조선도 이 시기에 칭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고조선은 연과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된다. 기록에는 ‘그 뒤 자손이 교만하고 포악해지자 연은 장수 진개를 보내 조선의 서쪽을 침공하고 2천여리의 땅을 빼앗아 만번한에 이르는 지역을 경계로 삼았으며, 마침내 조선의 세력이 약화되었다’라고<sup>3)</sup> 되어 있다. 진개는 연 소왕(昭王, 기원전 311~279년) 때의 인물로서 그의 침략은 기원전 282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조선과 연이 경계로 삼았다는 만번한에 대해서는 대개 요동의 천산산맥 서남쪽 일대, 요동의 어니하(淤泥河)와 청하(淸河) 하류 및 성수산(聖水山)을 잇는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

또한 『염철론(鹽鐵論)』 벌공편에는<sup>4)</sup> 연이 ‘동호’와 ‘조선’을 공략하여 요동 방면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온다.

시기가 내려오면 고조선과 이웃한 정치체는 진과 한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며, 흉노도 고조선의 이웃으로 기록되어 있다. 진은 중국 내륙에 할거하던 정치체들을 병합하여 진제국을 건설하고 난 뒤 동쪽으로 조선을 공격하였다.<sup>5)</sup> 진을 이은 한과의 관계는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기』 조선전에 위만조선의 성립에서부터 조선-한 전쟁 이후 멸망에 이르는 과정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sup>6)</sup> 지면관계상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흉노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서』의 기록이 참고된다. 즉 ‘동쪽으로 조선을 벌하고 현토·낙랑을 일으켜 흉노의 좌비를 끊었다’<sup>7)</sup>라는 기록을 통해 고조선과 흉노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三國志』卷30. 烏丸鮮卑東夷傳30. 韓 인용 『魏略』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

4) 『鹽鐵論』卷8 伐功 第45. “燕襲走東胡 辟地千里 度遼東而攻朝鮮”.

5) 『鹽鐵論』8 誅秦 44. ‘秦既并天下 東絕沛水并滅朝鮮’

『史記』6. 秦始皇本紀. 26년조. ‘秦初并天下(중략)分天下以爲三十六郡(중략)地東至海暨朝鮮 西至臨洮羌中 南至北嚮戶 北據河爲塞 竝陰山至遼東’

6) 『史記』115. 朝鮮列傳.

7) 『漢書』卷73. 韋賢傳 43. ‘東伐朝鮮 起玄菟樂浪 以斷匈奴之左臂’.

## 4. 고조선의 대외교류

고조선이 앞에서 살펴본 이웃 정치체들과 교류하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헌기록을 통해 나타나는 정치적 교섭 외에 물자 교역에 대한 증거는 고고학 발굴조사를 통해 잘 드러난다.

지금까지 조사된 외래품목은 화폐류, 철기류, 청동기류, 토기류, 완전류(瓦甄類), 장신구류 등이 있다. 수입된 품목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화폐는 명도전, 포전 등의 전국시대 화폐와 반량전, 오수전 등 진 및 한대 화폐가 대표적이다. 주목되는 점은 평양 일대에서 서한 반량전 거푸집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모두 7개체의 거푸집으로서 위만조선 시기에 유입된 것인데, 인근 지역의 반량전 출토 사례가 많지 않아 실제로 이 지역에서 주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철기류는 대부분 전국시대의 철기문화를 이은 한(漢)계통의 철기가 출토되었다. 평양 정백동 96호 무덤, 평안남도 강서군 태성리10호 무덤, 황해남도 갈현리, 황해도 봉산군 송산리 솔피골, 배천군 석산리, 함경북도 무산 호곡동, 회령군 오동, 함경남도 함흥시 이화동, 함주군 조양리 탐동, 당진군 소소리, 부여군 합송리, 논산시 원북리, 장수군 남양리, 익산시 신동리 유적이 대표적이다. 종류는 주로 도끼, 끌, 낫, 손칼 등의 공구류가 대부분이며, 장검, 창, 활촉 등 무기류도 다수이다. 물론 반월도·창·껴창 등과 같은 在地系의 철기가 생산되고 있었다.

청동기류는 각종 거마구, 한경(漢鏡), 그릇류가 있으며, 수량은 많지 않은 편이다. 대표적인 유적은 평양 정백동과 토성동, 자강도 토성리, 황해남도 재령군 부덕리, 배천군 석산리, 은율군 운성리토성, 함흥시 이화동, 북창군 하세동리 등이다. 대부분의 유적에서 양산살, 양산대 꼭지, 굴대끝과 같은 거마구류가 출토되어 수입된 청동기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 도씨검·반리문경(蟠螭文鏡)·동정(銅鼎) 등의 한계 물품이 한반도 서북부와 완주 상림리, 익산 신흥리 등에서 출토되었다. 동정(銅鼎)도 한계 물품 가운데 하나인데, 평양, 울산 하대, 김해 양동리 등에서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한식(漢式) 토기가 대부분이다. 대체로 실생활에 사용된 각종 용기들이며, 이 가운데에는 한에서 직접 수입한 것들도 있지만 한의 기술을 이용한 현지 생산품도 많다. 왜냐하면 토착계통의 협사조갈도 등이 주이고, 또 바탕흙에 재지(在地)의 가는 모래나 운모, 활석 등을 섞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와전류는 많지 않다. 기원전 2세기 이전으로 편년되는 곳은 평안북도 박천군 단산리유적이 유일하다. 이곳에서 암키와, 솟키와, 고사리무늬를 돌친 막새 등이 출토되었다. 북한학계는 고조선의 전문 수공업자들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대 와당은 평양일대에 분포하는 성곽들 중 낙랑토성, 청암동토성, 운성리토성, 청산리토성 등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소위 낙랑계통의 벽돌무덤도 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기와와 벽돌은 무겁기 때문에 이것이 완제품으로 교역되었는가는 의문이다.

장신구류는 옥과 유리제품이 대표적이다. 중국계 유리 대롱옥이 한반도 서북부에서 다수 출토되었고 부여 합송리와 당진 소소리, 공주 봉안리 등에서도 출토 사례가 있다. 완주 갈동 2호 토광묘에서도 고리모양의 유리제품이 출토되었다.

고조선에서 주변지역으로 교역된 것으로는 청동검과 청동도끼가 대표적이다. 소위 세형동검이 하북성과 산동성 일대에 분포해있고, 청동도끼는 산동성 연해와 그 도서에서 수점이 발견되었다.

이외 흥미로운 것은 고조선이 서쪽으로 더 멀리 교류하였음을 보여주는 고고학 자료이다. 안테나식검이 그 주인공인데, 안테나식검은 소위 촉각식검(觸角式劍)이라고도 하며, 말그대로 검자루끝이 곤충의 더듬이(촉각 : 觸角, 영어의 Antenna)와 같이 둥글게 말려 올라간 모양으로 장식되었다. 이 독특한 장식을 한 검이 요동 및 길림 일대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다수 발견되었다.

검자루 끝에 동물 장식을 하는 예는 일반적으로 북방 초원, 특히 오르도스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로 멧돼지, 새, 사슴, 산양 등의 동물이 장식으로 채용되었다. 동북지역과 한반도에서는 새로 장식된 경우만 발견되었다. 이를 쌍조형안테나식검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유형의 검이 그리스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유럽의 할슈타트문화에서도 발견되었다. 안테나식동검(Antenna Style Dagger)이라 불리는 이들 검은 검자루 끝이 가늘고 긴 더듬이로 장식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한반도의 것과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장식 끝이 동그란 고리 모양으로 마감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만주, 한반도, 일본 규슈 등에서 발견되는 쌍조형촉각식검은 일찍이 동서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이것을 만든 주인공이다. 검신의 모양은 소위 고조선의 검문화로 알려진 비파형동검 혹은 세형동검의 검신 모양을 띠고 있다. 제작 수법에서도 검신과 검자루를 한꺼번에 주조하는 북방계의 소위 연주식(連鑄式)—또는 일주식(一鑄式)이라 함—으로

제작된 경우와 비파형동검의 전통적 동검 제작기술인 별주식(別鑄式)으로 제작된 경우가 모두 발견된다. 이는 분명 두 문화의 결합 현상을 보여주는 바, 쌍조형안테나식검은 동물장식이라는 외래요소와 토착적 문화요소가 융합된 고조선 주민의 창조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5. 맺음말

본문에서는 고조선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과 고조선의 이웃들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고조선과 그 이웃들에 대한 기록,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외래의 유물들을 통해 고조선을 비롯한 한국 초기국가들이 외부세계와 소통한 일면(一面)을 볼 수 있다. 고조선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여러 정치체 및 국가들과 교류하였고, 사료에 보이는 바와 같이 흉노와도 교류하였다. 중국 내륙에서 진과 한이 들어선 이후에는 이들과 교류하였음은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아가 서쪽의 초원 넘어 멀리 떨어진 이웃들과도 교류하고 소통하였음은 쌍조형촉각식검이라는 유물에 잘 나타나 있다.

한 사회 혹은 국가, 문화 혹은 문명이라는 것은 이웃한 어떤 것들과의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변화하고 발전한다. 또는 퇴보하고 사라진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새로운 문화요소의 출입은 다양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고, 각기 다른 기능과 의미가 부여되었다. 때로는 거부되거나 흡수되기도 하며 변용되거나 그대로 수용되기도 하였다. 아이디어가 전해지기도 하고 완제품으로 수입되었다가 문화접변을 통해 전혀 다른 모양으로 재창조되기도 하였다. 다양한 프로세스를 거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이라는 국가와 문화가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출입또한 발생하였을 것이다.

\* 강연은 PPT 사용 예정



---

**일본에 남겨진 한반도에 대한 기억**  
**- 일본서기와 고대한일관계 -**

---

• 연민수 (동북아역사재단) •



# 일본에 남겨진 한반도에 대한 기억

## － 일본서기와 고대한일관계 －

연민수 (동북아역사재단)

1. 일본서기 편찬과정
2. 신공황후와 한반도복속기원설화
3. 가야인식과 임나일본부
4. 백제관계 기사의 특징
5. 고구려에 대한 기억
6. 신라 적시관과 한반도 번국사관

### 1. 일본서기 편찬과정

『일본서기』는 日本 국호가 만들어지고 율령을 근간으로 하는 천황제 통일국가가 완성된 시점에서 편찬되었다. 일본의 건국신화를 전하는 신대기, 초대 천황인 神武로부터 697년 持統천황 사망시기까지 편년체로 구성되어 있다. 편찬의 시점은 천무천황10년(680)에 개시되어 720년 천무의 아들인 舍人親王의 대표편자로 완성되었다. 천황기만을 수록한 편년체 사서이다. 『일본서기』의 편찬이념은 천황통치의 유구성, 정당성,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역사서이다. 일본국의 유구성을 주장하기 위해 건국신화를 만들었고 황조신으로서 천상의 세계를 다스리는 天照大神을 설정하고 그의 후손 니니기도미코토가 지상에 내려와 일본국을 세우고 천손족의 혈통이 통치한다는 황통보를 만들었다. 따라서 타씨족에 우월한 천황가의 유구성과 우월성을 강조하게 되고 혈통의 신성성을 통해 통치의 절대화를 꾀하였다.

『일본서기』에는 한반도제국과 관련된 내용이 수없이 나온다. 그러나 내용의 기본 이념은

한반도제국에 대한 우월의식, 지배-복속사관이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오랜 역사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고대일본인의 한반도 인식은 그대로 객관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천황통치의 정치적 이념에 의해 편찬된 기록과 사실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있다. 일본서기에 수많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양 지역간의 교류의 산물이지만, 일본고대 지배층들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서기에 남겨진 기록을 통해 고대일본인의 한반도에 대한 기억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일이야말로 올바른 고대한일관계사를 정립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 2. 신공기와 한반도복속기원설화

일본서기에 나오는 신공황후는 천황이 아니면서 독립된 편년기를 갖는 인물이다. 신공기 전체 기사를 통람해 보면 모두 한반도제국과의 관련내용이다. 한반도제국과의 교섭의 개시가 군사적 정벌, 복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서기』 편자의 대외관념 속에서 구상,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

신공황후섭정전기에 보이는 삼한정벌의 내용을 보면, 신의 계시에 따라 금은의 나라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 병선을 이끌고 신라에 도착하자, 신라왕이 스스로 복속을 맹세하고, 이어 고구려와 백제가 함께 복속하여 이른바 內官家가 되었다는 이른바 삼한복속설화이다. 후대에 전승화되는 삼한복속설화의 기원은 여기에 있다. 이어 신공기46년에서 52년에 걸친 기사는 일본과 백제가 국교를 성립하는 과정에서 신라를 공격하고, 가야의 7개국을 복속시키고, 백제에게는 영토를 하사하여 백제왕은 일본천황에게 복속의 징표로서 칠지도 등 많은 보물을 헌상했다고 한다. 신공황후의 한반도제국에 대한 일련의 군사적 행동과 복속설화는 이는 일본서기 편찬의 한반도제국에 대한 번국사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침략기사가 역사적 사실과는 맞지않은 완전 허구의 세계임은 말할 것도 없다. 신공황후의 삼한정벌설화에서 일본만이 신국이고 신라 등 기타 외국과는 다르다는 자국우월의식이 이 설화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후의 일본의 신국사상은 여기에서 기원을 두고 있으며 대외의식을 매개로 하여 대외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강렬하게 표출되어 간다.

### 3. 가야인식과 임나일본부

일본서기에 나타난 가야는 신공기에 보이는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의 7개국이 일본에 복속되는 기사를 비롯하여 일본 천황의 직할령으로서의 내관가 지역으로 기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540년대에는 가야지역에 임나일본부가 설치되어 일본의 복속하여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고대일본의 한반도남부지배설은 신공황후전설과 일본서기의 흠명기 기사가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임나일본부 사료는 백제계 사료인 백제본기에서 상당부분 인용되어 있다. 주된 내용은 금관국 등 가야제국이 신라에 의해 멸망되고 나서 가야를 구원해야 한다는 이른바 임나부흥회의의 과정에서 나온 기록이다. 내용의 구성은 백제가 일본에 사신을 보내 칙서를 받는다든가 일본에서 백제에 사신을 보내 천황의 명을 받아 백제가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임나부흥문제에 당사자인 가야제국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백제왕과 백제왕을 통한 일본천황의 조치가 있을 뿐이다. 흠명기에는 일본부경, 일본부신, 일본부집사 등 마치 일본조정에서 파견된 듯한 관인들이 존재가 보이고 있으나 이들이 일본조정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다거나 일본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이들 관인들은 백제측에서 볼 때 임나부흥에 방해가 되는 인물로 비쳐지고 있다. 이른바 일본부 관인들이 일본조정에서 파견되어 임나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면 일본은 백제를 통해서가 아닌 이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야 한다. 즉 천황의 조서를 지참한 사신을 임나에 있는 일본부 관인들에게 보내고 현지에서 체재중인 이들은 그 지시를 받아 임나부흥이나 지배를 위해 활동해야 한다.

백제본기와 이를 저본으로 한 일본서기에서 간취할 수 있는 것은 임나문제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은 백제이고 일본은 임나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은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백제측에서 본 일본의 임나부흥에 대한 대변의 언어로서, 「천황의 뜻」 「천황의 조」 「천황의 위엄」이라는 문구로 표현하며 임나의 부흥문제를 다루고 있다. 철저하게 일본에 영합적인 기술이고 천황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임나의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가야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은 일본천황의 권위가 아닌 스스로의 힘에 의해 가야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를 펴면서 백제와 가야의 역사적 관계를 설명하고 가야에 대한 우월적 입장을 강조하며 임나부흥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로는 일본에 대한 복종적, 굴욕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밑으로는 가야에 대한 고압적, 우월적 자세로서 백

제의 대외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백제사료는 백제망명집단과 그 후예들에 의해 『일본서기』편찬의 자료로서 수사국에 제출되었다. 이들 사서는 백제 망명세력에 의해 일본에 영합적 내용으로 고쳐지고 최종적으로는 『일본서기』 수사국에 제출된 시기에 일본서기 편찬 이데올로기에 의해 일본천황을 정점으로 한 대외관계 기술로 개변되는 과정이 있었다. 임나일본부 관련기사는 백제의 가야에 대한 백제의 부용관과 일본의 백제·가야에 대한 우월적 입장이 반영된 이중구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고대일본의 가야지배설인 임나일본부설은 백제계 사료의 2차에 걸친 조작과 변형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남아있는 본질은 당시 가야제국이 놓여있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안라국을 중심으로 한 가야제국이 신라, 백제, 왜국을 상대로 벌인 자립적, 독립적 운동이었다고 생각된다. 임나일본부 관인의 구성분자 중에는 가야인이 중심이고 그 내용도 가야를 위해 주변제국과 외교적 교섭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국에 의한 지배설을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고대일본의 가야에 대한 집착은 가야지역으로부터 수입해 오던 철자원 등 선진문물이 신라에 의해 멸망당함으로써 정상적인 교역활동이 불가능해지자 신라에 대한 적시관과 더불어 가야에 대한 연고권을 내세우며 가야 내관가 관념이 생성되었다.

금관국의 한 지역명인 다다라의 어원은 제철의 의미를 담은 踏鞴에서 나왔고, 금관국의 별칭인 수나라, 소나라도 쇠나라 즉 철의 나라를 의미한다. 일본서기에 한반도제국을 의미하는 말로 흔히 韓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를 ‘가라’라고 읽는다. 이는 고대일본이 가야제국에 대한 관심의 반영이며, 철문화의 수입에 근원을 둔 기억의 전승이라고 할 수 있다.

#### 4. 백제관계 기사의 특징

일본서기의 백제관련기사는 영토할양기사, 문물 전래기사와 파병기사, 백제왕책립기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내용상의 특징은 우호적, 친연적으로 되었지만, 그 기저에는 백제에 대한 번국사관이 깔려있다.

『일본서기』에서 영토할양기사는 백제에 대해서만 나온다. 한반도남부 영토의 일부를 백제에 하사했다는 것이다. 용략기21년조에 「천황이 백제가 고구려에게 멸망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구마나리를 문주왕에게 주어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을 도왔다」고 하여 문주왕에게 구마나리(웅진)를 할양했다고 한다. 계체기6년조에는 백제가 사신을 보내어 調를 바치고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 등 임나4현을 청하자 주었다고 한다. 이것은 신공황후의 삼한정벌설화에 근거한 일본의 지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른바 내관가 사상이 투영되어 있다.

다음은 백제에 파병기사이다. 왜왕권의 파병사례는 백제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백제에서는 인적, 물적자원을 보내 답례의 형식을 취한다. 『일본서기』에서는 백제에서 보낸 각종 물품과 사절을 공물, 조공사로 표현하고 있다. 백제에 보낸 군사력은 정치적 우월성을 상징하는 소중화의식을 발현시켰고 백제로부터의 문물수용은 일본에 현상하는 조공물로 간주한 것이다. 특히 외국사가 가져온 물품을 조로 표현한 것은 국내 수취체제의 연장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것은 양국이 서로 인식한 객관적인 실태가 아니라 일본지배층의 일방적인 자기주장이고 『일본서기』편찬이념에 통일적 개념으로 윤색되어 있다.

왜왕권의 파병은 삼국간의 전쟁이라는 정세 속에서 백제의 지속적인 대외외교와 양국의 친연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왜왕권의 일관된 친백제정책의 결과이다. 양국의 군사협력체제의 시동은 4세기말 고구려 광개토왕의 백제 침공이다. 이때의 상황은 광개토왕비문을 비롯하여 『삼국사기』, 『일본서기』에 나타나 있듯이 백제의 아신왕이 왕자 전지를 왜국에 청병사로 파견하여 왜병의 파견을 이끌어냈다. 이어 각종 수공업 기술자, 왕인, 아직기와 같은 학문에 능한 지식인의 파견이 이루어진다. 웅락기7년(463)조에 서한재기 환인지리라는 자가 모국인 백제로부터 금래재기를 맞이하여 동한씨에게 관리시켰다고 한다. 이때에 왜국에 온 인물을 보면 陶部 고귀, 鞍部 견귀, 畫部 인사라아, 錦部 정안나금, 譯語 묘안나 등 전문 기술집단들이다. 이들의 도래전승에서 설화성을 배제하면 당시의 백제가 처해있던 긴박한 상황하에서 파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백제 개로왕이 즉위한 해인 455년에 고구려의 침공이 시작되었다. 백제왕위 교체기의 허점을 노린 기습공격이었다. 이후 만성적인 고구려와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461년에는 개로왕의 동생 昆支를 대외 청병사로 파견하였고, 백제의 인적자원의 파견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배경하에서 이루어졌다. 6세기중엽 백제의 한강유역 수복시에 신라의 배반으로 성왕의 전사하고, 이 지역이 신라의 수중으로 돌아간 사건 때에도 동일하다. 백제의 왜왕권에의 파병요청과 선진문물의 전달, 왜왕권의 파병과 문물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으로 왜왕권의 파병과 백제의 인적, 물적 자원이 상호 교환되는 실태를 알 수 있다. 오경박사, 易박사, 曆박사, 채약사 등 백제의 종교인, 지식인, 각종 기술 전문가 집단이 왜왕권에 파견되고 있다.

특히 백제로부터의 문물의 전래기사에는 문자지식에 밝은 지식인 관련 내용이 많다. 왕인

의 후예씨족으로 나오는 西文氏를 비롯하여 史姓 씨족이 있고, 민달기에 나오는 백제계 이주민인 왕진이 관련 기록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570년 고구려 사신이 갖고온 국서를 아무도 해독하지 못하자 왕진이만이 이를 읽어내어 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조정에서 근무하게 하였다고 한다. 문필을 업으로 삼는 사성 씨족은 거의 한반도계 이주민에게 적용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백제계가 압도적으로 많다.

백제로부터의 불교관련 문화전래기사도 적지않다. 흠명기13년조에는 백제의 성명왕이 西部姬氏 달솔 노리사치계 등을 보내 석가불 금동상 1구, 약간의 번개 및 경론을 보냈다고 한다. 왜왕권에서 불교의 수용과정은 전통적 세계관을 지키려는 보수파와 동아시아의 문명세계로 나아가려는 개명파 사이의 치열한 대립 속에 왕권의 불교로서 정식 공인되었다. 초기 일본불교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백제계 인물이 대부분이다. 鞍作氏 일족은 불상의 제작에도 참여하여 불사로서도 명성을 높여간다. 마구나 불상 모두 전문공인에 의해 제작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사마달등 자신이 백제불교에 대해 이미 상당 수준의 지식을 체득하고 있었다. 일본 최초의 가람형식을 갖춘 아스카사의 조영시 백제에서 혜충을 비롯한 많은 승려가 왜국에 왔고, 사찰 설계사, 노반박사, 와박사, 화공 등 많은 인력을 파견하였다. 백제의 최신 기술에 의해 완공된 아스카사는 추고4년(596)에 준공하였다.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대신 소아마자는 그의 아들 선덕신을 寺司로 임명하고 고구려승 혜자와 백제승 혜충을 설법자로 안치하였다. 이날 소아대신을 비롯한 100여명이 백제옷을 입고 참관하며 모두 즐거워했다고 하듯이, 아스카사의 창건은 백제의 영향이고 백제의 혼과 정신이 깃든 사찰이었다.

백제 무왕3년(602)에는 승려 관륙에 의해 역본, 천문지리서, 둔갑·방술서 등의 서적이 왜국에 전해졌다. 왜조정에서는 3~4명의 서생을 선발하여 역법, 천문둔갑, 방술을 관륙에게 교습케하여 그 업을 이루었다고 한다. 관륙은 왜국에 온지 22년째 되는 해인 624년 불교계의 최고위인 僧正에 임명되었다. 그의 승정의 임명은 교단의 통제기구인 僧官제도의 성립을 의미한다. 관륙에 의해 정비된 교단의 통제기구인 승관제의 실시로 왜국의 불교는 안정성을 갖게 되었다. 왜왕권에 있어서 불교는 문화의 종합체로서 수용되었고, 종전의 거대고분을 통해 왕권의 권위를 과시하던 것을 불교의 사상, 사원 건축이 대신하게 되었다. 일본서기에 불교관련 기사가 많은 것도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백제멸망 전후한 시기에 관한 기록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660년 백제멸망 직후 귀신복신이 보낸 사신에 의해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했음을 전하고, 왜왕권은 이에 대응해서 제명여왕에 의해 파병준비가 전개되고 그 뒤를 이은 중대형황자에 의해 대규모의 파

병이 이루어진다. 왜국에 체재중이던 백제 의자왕자 풍장을 부흥운동의 수반으로 하여 본격적인 나당연합군에 대항해 나간다. 왜왕권은 661년에서 663년까지 백제에 병력과 군수물자가 지속적으로 보내고 백강전투때에는 2만7천명이라는 대병력이 파견되었다. 동년 9월 부흥운동이 좌절되자 수많은 백제인들이 왜국에 망명길에 오른다. 이들 대부분은 국내사서에는 보이지 않는 인물들이 대부분으로 왜왕권내에 포섭되어 관위와 관직을 받고 왜왕의 신료가 되어 왜국에 정착하게 된다. 백제망명인에 대한 왜조정은 매우 호의적으로 백제에서의 관직과 능력에 따라 배치했으며 각 분야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예를 들면 왜국의 본토 방위를 위해 축성한 조선식산성을 쌓는데에 병법에 밝은 곡나진수, 목소귀자, 억례복류, 답발춘초와 같은 인물을 발탁했고, 사택소명을 법관대보라는 법무차관에 임명했고, 귀실집사라는 학직두라는 율령제하에서 식부성 산하의 대학료의 장관에 해당하는 직책을 맡겼다. 특히 백제부흥운동의 실패에 따른 위기의식을 반영하듯이 병법에 밝은 인물들을 중용하였고, 전쟁의 부상이나 질병에 필요한 의술·제약기술을 보유한 인물들도 등용시켰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 백제로부터의 대규모의 새로운 인적자원의 확보는 새로운 국가건설의 기반이 되었다. 당연히 이들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기억되어 기록으로 남겨질 수 밖에 없었다.

## 5. 고구려에 대한 기억

일본서기에서 고구려관련 기록은 응신기28년(417)조에 고구려왕이 보낸 국서에 “고구려왕이 일본국을 가르친다”고 하자, 왜왕의 태자가 무례함에 고구려사를 책하고 찢어버렸다고 한다. 이 기록은 7세기초의 성덕태자시대의 역사상이 응신기에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고구려에 대한 경외심과 강성의 이미지, 여기에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듯이 고구려군에 의해 비참한 패배라는 적개심이 융합되어 고구려국의 무례함을 책한다는 유교적 지식을 가미시켜 응신기에 위치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인덕기12년조에는 고구려가 철제 방패와 과녁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이 시기에 고구려가 사자를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다만 군사무기에 해당하는 철제 방패와 군사훈련용 과녁을 고구려가 보냈다는 전승은 고구려 무기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的臣의 선조가 이를 관통했다는 것은 씨족의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家傳 특유의 과장법이지만, 군사적 시험대상이 고구려제 방패와

과녁이라는 사실과 아무도 해내지 못한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씨족의 전승기록을 통해 고구려라는 현실의 강적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일본서기』에 채록되었다는 것은 왜왕권에 있어 고구려라는 존재가 곧 군사적 강대국이란 인식과 맞물려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구려와 왜왕권의 공적인 교섭이 시작된 것은 570년경이다. 흠명기31년(570), 민달기2년(573), 동3년(574)에는 3차에 걸친 고구려사신의 왜국파견 기록이 보인다. 고구려의 대왜 접촉은 광개토태왕시대의 전란이 끝난 이후 실로 160여년이나 경과한 시점이었다. 왜조정에서는 산성국 상락군에 고구려사를 위한 관사를 세울 것을 명한다. 이어 사절을 越 지방에 보내 고구려사를 마중하게 하고, 근강에 도착한 고구려사를 위해 장식선을 난파진에서 발진시켜 맞이한 후에 새로 지은 산성의 상락관에 들이고 향응을 베풀었다. 고구려사가 도착한 월 지방에서 산성의 상락관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고구려사를 맞이하는 왜왕권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인다. 다양한 인물군에 의한 외교적 접대와 상락관의 신축, 장식선 건조 등 고구려사에 대한 왜조정의 태도는 예사롭지 않다. 백제의 대고구려 전쟁에 수차에 걸친 군사적 지원을 행한 사실도 있어 고구려사의 입국은 왜왕권에게 충격과 경외로움으로 비쳤을 것임에 틀림없다. 고구려사를 맞이하는 왜왕권의 의례는 중국사절의 그것에 전례가 될 만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고구려에 대한 강한 경외감의 발로임에 틀림없다. 『일본서기』 편찬 당시의 율령적 필법에 의한 윤색도 엿보이나, 고구려사를 대하는 왜조정의 태도를 간취할 수 있다. 어디서도 고구려에 대한 이전의 적대적인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고구려에 대한 왜왕권의 우호적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추고3년조에는 「고구려승 혜자가 귀화하다. 즉 황태자의 스승이 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혜자는 성덕태자의 학문의 스승일 뿐아니라 정치, 외교상의 고문 역할도 하였다. 혜자가 초면한 성덕태자는 당시 22세의 청년이었고, 20년간 성덕태자의 최측근으로서 그를 보좌하였다. 귀국후 5년이 지난 620년에 고구려에서 성덕태자의 사망소식을 접한 혜자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나는 비록 국가는 다르지만, 태자와의 마음의 인연은 끊을 수 없다. 홀로 살아 무슨 득이 있겠는가. 나는 내년 2월5일에 필히 죽어 상궁왕자와 정토에서 만나 태자와 함께 중생을 교화할 것이다」라는 애절한 사모의 정을 토로한다. 생전의 양자의 관계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혜자의 가르침은 성덕태자의 사고의 형성과 정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틀림없다. 성덕태자가 제정했다고 전하는 헌법17조도 혜자의 사상으로 부터 기초가 되었고 고구려 관위제의 영향이 엿보이는 관위12계의 제정도 혜자의 가르침에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추고13년(605)에는 고구려 영양왕이 왜왕권의 불상조영에 황금300냥

을 보낸다. 이때의 황금은 아스카사 본당의 대불의 표면에 도금하기 위해서인데, 아스카사에 주지하고 있던 혜자의 역할이 추측된다. 그 전년도인 604년에는 諸寺의 불상을 그리기 위해 黃文畫師를 설치했다. 黃文氏는 고구려계 화공집단으로 이미 고구려로부터 화공들이 파견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추고18년(610)에도 고구려가 승 담징과 법정을 보내어, 채색, 지목, 맺들의 제조법을 전수하는 등 고구려로부터 문화, 예술적 재능을 지닌 승려들이 파견되어 왔다. 추고33년(623)에는 고구려 영류왕이 혜관을 보냈는데, 그는 왜국 불교계를 총괄하는 승정의 지위에 임명되었다. 이렇듯 7세기전반은 불교문화를 비롯한 고구려의 인적, 물적 자원이 왜국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왜왕권의 지배층에게 문화적 선진국으로서의 고구려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했으며 자신들의 우호세력으로 간주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7세기중엽 효덕조 대화원년(645)에 왜국에 온 고구려사에 대해 왜왕의 조서가 내려진다. 이에 따르면 「천황이 보내는 사자와 고구려의 신의 아들이 보내오는 사자와는 과거는 짧았어도 장래는 길 것이다. 그런 까닭에 마음을 온화하게 하고 계속해서 왕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우호감을 표시한다. 이 조서에서 왜왕은 고구려왕을 신의 아들로 표현하고 인식했다는 점이다. 7세기전반기에는 고구려의 건국신화가 이미 왜왕권 내부에 알려졌고 그것을 외교문서의 형식을 띤 조서로 남겼다는 것은 고구려에 대한 강한 유대감의 표시이고 경애와 존송의 발로임이다.

668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고구려는 멸망한다. 이때의 소식을 『일본서기』에는 「大唐의 대장군 莢公이 고구려를 쳐 멸망시켰다. 고구려 仲牟王이 처음 건국할 때 천년을 통치하려고 했다. 母夫人이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려도 불가능하다. 7백년의 치세가 계속되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말했다. 지금 이 나라가 멸망한 것은 바로 7백년 후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고구려의 시조인 중모왕(추모, 주몽)과 그 생모인 하백의 딸 유화부인의 인명과 국내사서에 전하는 BC37년의 건국에서 668년의 멸망에 이르는 7백여년의 존속기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 고구려에 대한 역사지식이 상당히 축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멸망 이후 『일본서기』에는 671년에서 682년까지 11년간 9번에 걸친 고구려사절의 파견기사가 보인다. 일본에서 고구려에 파견한 사절도 天武10년(681)·13년(683)·14년(684) 등 3회 보이고 있다. 고구려 멸망 이전의 양국관계에 비추어 보면 매우 빈번한 사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일본에 파견된 고구려사절이란 고구려 왕족 안승을 수반으로 하는 보덕국에서 파견한 사절이다. 고구려의 망명정권인 보덕국의 대일사절은 보덕국이 독자적인 외교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신라측에 의해 조종된 계획사절이다. 신라에 의해 책봉된 보

덕국을 일본에 조공사의 자격으로 보냄으로서 일본조정 of 중화의식에 영합하는 외교책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신라에 의해 연출된 일본에 의례적, 현실적 조공국으로서의 보덕국의 존재야말로, 8세기 일본율령국가의 고구려에 대한 번국관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일본측의 고구려관을 엿볼 수 있는 사료로서 『일본서기』천지원년(662)조의 기사를 살펴보자. 「궤가 말꼬리에 새끼를 낳았다. 釋道顯이 점을 쳐 “북국의 사람이 남국에 붙으려 한다. 아마 고구려가 패하여 일본에 복속하려는 것일까”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이다. 참위설의 역사관에 기초한 그의 저술은 예언적 기사가 종종 보인다. 위에 인용된 문장도 고구려의 멸망에 대한 전조기사로 북국(고구려)이 패하여 남국(일본)에 복속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당시의 일본조정의 고구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고구려승 도현의 저술이지만 서명에서 풍기듯이 일본화된 의식이 반영되어 있고 일본의 고구려에 대한 번국의식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중화적 이념이 강하게 반영된 대보율령의 제정을 전후한 시기에 나타난 고구려관이다. 이른바 일본에 복속되어야 할 존재로서 고구려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 6. 신라 적시관과 한반도 번국사관

일본서기에 나타난 신라관련 기록은 기타의 한반도제국과는 달리 시종 적대적 인식하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서기 편찬 당시의 일본지배층의 신라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다. 일본서기에 앞서 편찬된 대보율령에는 ‘신라=번국’을 법제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후 천황제 율령국가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편찬한 『일본서기』와 실록적 성격으로 사실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속일본기』 역시 신라를 일본의 번국으로, 신라사신을 번국사로서 자리매김하는 등 사료의 변형, 굴절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상대를 자국의 하위에 두려는 인식은 고대 동아시아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며, 자국 우월주의에서 나온 중화의식의 발로이다. 이러한 대외인식은 일본만의 특이한 현상은 아니지만, 단순한 인식론을 넘어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되어 있다. 게다가 특정시기에 한정하지 않고 고대한일관계 전반에 걸쳐 고대사의 담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신라에 대한 적대관념의 시작은 가야제국의 멸망이다. 532년 금관국 병합 등 남부가야에 대한 세력권을 확장하고 562년에는 가야의 최후의 왕국 대가야를 접수한다. 흠명기23년조

에는 가야의 멸망사실과 신라에 대한 비난의 연사가 실려 있다. 여기에는 신라가 천황의 직할령인 임나관가를 멸하였다라는 사실에 분노를 표시하고 반드시 보복하여 원수를 갚겠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양서』 왕승변전에 보이는 승성원년(552) 2월 왕승변과 진패선의 맹서문에 의한 윤색지만 『일본서기』 편찬시의 율령국가 지배층의 신라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가야의 멸망이 왜왕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가 하는 것, 가야에 대한 기억의 역사적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본열도와 교류가 깊었던 금관국의 멸망 이후에 왜왕권에 의한 近江毛野臣의 6만명 파병전송, 임나부흥과 임나재건을 외치는 흙명과 그 유훈을 계승한 후계왕들, 게다가 임나멸망 이후에도 신라로부터 임나지역 산출물을 신라가 공납했다는 ‘任那調’의 문제가 대화2년(646)까지 나오는 등 왜왕권의 가야지역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었다. 고대일본이 가야를 직할령으로 간주한 내관가사상의 연원은 철자원 등의 선진문물의 수입처의 상실이라는 측면이 강하고 이때의 왜왕권의 받은 충격이 심각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야의 멸망은 상대적으로 신라에 대한 증오심, 적대관으로 전화되어 간다.

다음으로 고대일본의 신라에 대한 적시관이 최고조에 이른 것은 백제의 멸망이다. 3백년 불변의 우호관계가 660년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의 사직이 붕괴된 것이다. 백제의 멸망은 왜왕권의 대신라 적대감을 증폭시켰다. 특히 왜왕권의 관료가 된 백제망명집단에 있어 신라는 잊을 수 없는 증오의 대상이었다. 왜국에 정주한 백제인들은 모국의 부흥을 기대하며 왜왕권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희망은 멀어져 갔다. 한반도에서의 신라의 세력은 안정화되어 갔고 왜조정도 동아시아에서의 고립을 피하기 위해 신라와의 교섭을 재개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제왕족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왜왕권에 봉사하면서 체제에 흡수되어 가는 일이었다.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왜왕권에 포섭된 백제왕족은 持統朝(687-696) 때에 의자왕의 직계혈통에게 ‘百濟王’이라는 특별 가바네(姓)를 수여한다. 이것은 백제왕족에 대한 특별배려였지만, 백제왕을 왜왕의 신하로 자리매김하고 왜왕권의 질서하에 포섭한다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에서 나왔다. 백제부흥군의 수장으로 백제에 건너간 의자왕자 풍장을 왜왕이 책립하였고, 그 이전시기의 전지왕, 동성왕의 즉위도 왜왕권의 의해 즉위했다는 왜곡된 인식도 백제 멸망후의 인식에서 나왔다.

고구려 멸망 직전의 고구려사의 왜왕권에 대한 청병 사절, 멸망 후의 신라에 의해 연출된 일본에 의례적, 현실적 조공국으로서의 보덕국의 존재야말로 8세기 천황제 일본율령국가의 고구려에 대한 번국관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속일본기』 대보3년(703)

조에는 高麗若光에게 ‘高麗王’姓을 내리고 있다. 그는 『일본서기』 천지5년(666)에 고구려사절로 일본에 온 玄武若光으로 고구려의 멸망 직전에 왔다가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 체재하여 관인이 된 인물이다. ‘고려왕’성의 사여는 ‘백제왕’성과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일본의 조공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일본본위의 중화적 세계관의 발로이다.

가야와 백제의 멸망은 왜왕권의 발전사에 문물의 수입처이자 왕권 상호간의 우호와 동맹의 나라였고 고구려도 왜왕권의 중요한 교류의 국이었다. 신라에 의한 이들 3국의 멸망은 왜왕권의 신라 적시관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나 7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격동기가 종료하고 한반도의 패자가 된 신라의 존재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왜왕권에게 신라는 경쟁의 대상이자 극복해야 할 국이었다. 신라적시관은 한반도제국 모두를 일본의 번국으로 간주했고, 한반도의 주인공이 된 경쟁국 신라를 능가하는 국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천황제 율령 국가를 만들었다.

새로운 일본국가의 대외적 이념은 신라왕의 위에 선 천황상의 창출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서기에는 647년에 일본에 온 김춘추를 인질로서 자리매김하였다. 김춘추의 인질관은 신라사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치와 일본과의 인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는 태종무령왕으로 즉위하여 신라중대 왕통을 열었고 재위시에 백제왕통을 끊은 인물이다.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백제부흥운동을 지원했으나 패배하고 만 일본은 김춘추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上臣의 신분으로 일본에 왔던 김춘추가 신라 최고통치자에 오르고 그의 직계 후손들이 신라왕으로 계승하여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며 활발한 교류의 역사를 전개하였다. 8세기 율령국가의 일본지배층들은 신라를 번국으로 위치시키는 율령법을 제정했고 역사적으로는 조공국임을 증명하는 『일본서기』를 편찬했다. 바로 일본의 이러한 대외이념을 충족시키는 인물로서 김춘추는 더할나위없는 소재로서 등장했고 그의 인질관은 이런 상황에서 나타났다. 그를 인질로서 자리매김하는 일이야말로 일본천황의 신라왕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역사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신라에 대한 대항의식에서 나온 것이지만 일본열도내에서만 통용되는 공간적 한계가 있었다. 일본서기의 왜곡된 한반도제국에 대한 기억과 인식은 이러한 이념과 배경하에서 나왔던 것이다.

## 〈참고 문헌〉

동북아역사재단편(연민수 외), 2013, 『역주일본서기』

연민수, 『고대일본의 대한인식과 교류』, 역사공간, 2014

---

# 고구려사 어떻게 볼 것인가?

---

•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





# 고구려사, 어떻게 볼 것인가?

**김 현 속**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2017. 5.20



**일본과 중국의 시선이 만난  
지점 - 고구려**



## 만선사관과 동북공정

滿鮮史觀 : 만주와 조선반도의 역사가 정치, 민족,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단위로 묶여 있었다고 본 일제시기 일본학계의 역사관,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산하 만선역사지리조사실 소속 연구자들이 주도

‘東北工程’ :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과 吉林省, 遼寧省, 黑龍江省 등 동북 3省 지역 연합, 추진한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의 약칭

- 兩者를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비과학적
- 특정 관점 아래 역사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최근 중국학계의 고구려사 인식을 동북공정식 인식이라 假稱



## 滿鮮史觀에서의 고구려사 연구

- 白鳥庫吉, 稻葉岩吉, 津田左右吉, 池內宏 등 중심
- 한국사의 성격을 만주사에 종속된 역사로 규정
- 조선의 독립을 부정하고 식민지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성 강한 식민사관
- 그러나 滿鮮史연구의 최우선적 목적은 일본의 만주지배를 위한 지역조사 겸 명분축적
- 고구려는 만주와 조선반도를 포함한 영역에 성립되어 중원왕조와 당당히 대결했던 나라
- 한반도를 기반으로 만주지배와 중국진출을 도모하고 있던 일본에게 본 받아야 될 대상
- 만선사연구에서 가장 주목받은 연구대상이 고구려사



## 滿鮮史觀에서의 고구려사연구 - 중점을 둔 연구분야 1

1. 고구려와 중원왕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 현도군을 비롯한 한사군 및 隋·唐과의 전쟁
  - 唐軍의 행군경로, 戰線, 고구려 城 위치 등에 대한 역사지리적인 고증이 주류
  -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방패역할을 한 고구려 부각
  - 한반도의 안정적인 지배를 위해 요동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구려사를 통해 강조
2. 고구려의 종족문제에 대해 관심
  - 만주족 일부, 부여족 일파로 韓人, 韓民族과 구별
3. 광개토왕과 장수왕이 확장한 영역 및 백제, 신라와의 전쟁과 境界에 대한 지리적 연구
  - 고구려와 왜가 양대 축, 백제, 신라, 가야는 부용세력



## 滿鮮史觀에서의 고구려사연구 - 중점을 둔 연구분야 2

4. 고구려 멸망과정과 고구려 遺民에 대한 연구
  - 고구려의 멸망을 만선사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봄
  - “滿鮮은 종래 一家였다”고 하는 사고 파탄
5. 벽화고분연구
  - 벽화고분에서 중국문화적 요소보다 서역적 요소나 고구려의 독특한 요소에 주목, 문화적으로 중국과 분리
  - 전문적인 연구논문보다 개설서류에 고구려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더 많았다.
  - 고구려 관련 사료 자체에 대한 검토 끝에 결론이 도출된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관찰과 선입견 아래 내려진 판단에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줌



## ‘東北工程’에서의 고구려사 연구

1. 고구려사의 귀속문제 : 중국사로의 귀속강조
2. 고구려의 族屬起源 : 貊族, 顓頊高陽氏의 후손인 高夷族, 殷商族, 炎帝族, 漢族 위주 多民族
3. 朝貢-冊封 관계의 실제성 강조, 지방정권 주장
4. 평양 천도 이후의 고구려사의 귀속 문제 논의 : ‘一史兩用說’, 역사적 영역설
5. 고구려 멸망 후 유민의 漢族으로의 흡수 강조
6.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은 지방정권의 이탈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군사활동이자 민족내부의 통일전쟁
7. 왕건의 고려와 고구려는 별개



## ‘東北工程’에서의 고구려사 연구

- 고구려는 중국 고대의 지방정권, 少數民族政權
  - 고구려사는 한국사가 아닌 중국사라고 강조
- 동북공정에서는 귀속문제를 밝히는데 필요한 주제들 위주로 연구를 진행
- 역사계승, 정통성계승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전왕조의 역사를 후왕조가 정사로 펴낸 것
  - 고려왕조에서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를 편찬
- 그러나 중국정사에서는 고구려를 자기 선조로 본 역사책을 낸 적이 없음
  - 동북공정에서는 이 점을 간과. 심지어 『宋史』이후 중국 정사에서 왕건의 고려를 고구려 계승국으로 서술한 것을 명백히 잘못된 역사서술이라고 비판



## 滿鮮史觀과 ‘東北工程’의 공통점과 차이점-차이점

1. 만주와 한반도 북부지역을 공간적 연구대상으로 함
2. 현재 영토 중심주의 역사관
3. 고대사 중심 연구
4. 종족연구 치중
5. 한국측 사료의 부정, 중국 및 일본 사서의 사료만 중시
6. 현재적 관점 우선시. 정치현실적 목적이 강하게 내포
7. 외부자적인 입장과 시각에서 연구를 진행 : 고구려사 자체보다 외부와의 관계에 초점
8. 가장 우선을 둔 역사가 고구려사라는 점  
: 그 중에서도 종족(민족)문제, 중국과의 전쟁, 문화적 측면에서의 중국과의 관련성 문제 등에 관심집중



## 滿鮮史觀과 ‘東北工程’의 공통점과 차이점-차이점

- 만선사관과 동북공정의 무리한 인적, 공간적 분리는 곧 역사의 분리로 연결됨
  - 고조선, 고구려, 부여사와 백제, 신라, 가야사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사료에 대한 무리한 해석, 자의적인 취사선택
- ex. 『三國志』魏志에 이들 모두가 東夷傳에 편제된 것, 廣開土王碑에 보이는 고구려의 지배권 및 영향권에 대한 인식, 고구려의 독자적 연호 사용, 남, 북조 왕조 모두에 대한 조공기사 등은 무시



## 滿鮮史觀과 ‘東北工程’의 공통점과 차이점-차이점

1. 종족(민족)문제에 대한 이해
  - 만선사관 : 중원 종족과 별개의 예맥족
  - 동북공정 : 중원인의 이주, 토착족이라도 모두 중국 고대의 소수민족
2. 고구려와 隋, 唐과의 전쟁에 대한 이해
  - 만선사관 : 隋·唐 침략의 격퇴에서 고구려의 우수성 강조
  - 동북공정 : 외국과의 전쟁 아닌 지방정권의 반란, 통일전쟁
3. 고구려 문화의 성격에 대한 이해
  - 만선사관 : 중원문화 외에 서역 등 외부문화의 영향받았으나, 그것을 고구려의 독창적인 문화로 재창조했다는 점을 부각
  - 동북공정 : 고구려 문화 가운데 중원문화의 영향에만 주목



## 만선사관은 동북공정의 뿌리!♪

- 일제의 만주지배시기에 나온 연구서  
傅斯年, 『東北史綱』(1932), 金毓黻, 『東北通史』(1941) : 특히 후자는 오늘날 동북지역사 연구자들의 역사인식의 기반
- 이들이 고구려사를 중국사라 한 것은 만선사관에서 고구려사를 포함한 만주지역 역사를 중국사와 분리시키는데 대한 반발
- 학계에 제시된 연구물이나 역사관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오랫동안 후학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
- 정치적 목적이 강한 만선사관과 동북공정의 선언적, 주관적 주장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 고구려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 만선사관을 비롯한 식민사학에 대한 선학들의 대응
  1. 민족사학의 논리
  2. 재야사학의 주장
-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
  1. 국사적 입장
  2. 동아시아사적 입장
  3. 고구려사를 고구려사로 두라!
  4. 재야사학의 주장



## 우리 내부의 문제♪

- 민족주의와 자민족 중심주의의 차이
- 대와 고에 대한 열망
- 문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부정하는 원조 콤플렉스
- 한중 양국의 우리 것 싸움



##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맞서 우리가 해야 할 일

- ❖ 학계 : 학술적 논거축적, 통일사학 필요, 역사 사실을 세계에 알리는 작업(우군확보), 국민들에게 역사 알리기 노력 등
- ❖ 정부 ; 대응시스템 정비와 지속적, 체계적 관리, 사후확인작업,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견지, 외교적 노력
- ❖ 국민 ; 지속적 관심, 역사의 중요성과 현재성 인식
- ❖ 역사에서의 계승문제 ; 집단기억과 기록



## 역사연구의 목적은?

- 역사계승 : 영토, 주민, 주권, 문화, 의식
- 역사연구의 목적 : 국가와 민족의 현 상황 인식을 통한 바람직한 미래건설(자기인식)
-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한 역사인식, 화해와 협력, 상호발전을 위한 역사인식이 필요



## 현재의 최대 난관

- 아베에 의한, 아베를 위한, 아베의 아베스러운 일본의 역사인식
- 표출하는 일본보다 더 무서운 중국
-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민족중심주의



- 사실에 입각한 상식적, 과학적, 객관적  
역사인식의 함양



---

# 남북국시대론의 전개와 발해 디아스포라

---

• 김은국 (동북아역사재단) •



# 남북국시대론의 전개와 발해 디아스포라

김은국 (동북아역사재단)

## 1. 머리말

발해는 고구려 멸망 후 30여년에 걸친 유민 부흥운동의 결과 고왕 대조영의 영도 하에 현재 한반도의 서북에서부터 동북까지 아우르는 해동성국이었다.

발해는 거란도, 신라도, 영주도, 압록도, 일본도 등의 교통로를 두어, 발해 주변의 국가와 교류를 지속하여 갔다. 현재 동아시아 사에서의 발해가 차지하는 위상은 서역으로부터 중원, 그리고 신라와 고려 및 바다 건너 일본 등과 대륙과 해양의 다양한 문화를 소화할 수 있는 위치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동아시아 상의 발해는 남쪽에 위치한 신라와 남북국을 이루고 중원, 거란, 서역 및 바다 건너 일본과 동서 문화권의 교량 역할을 하였다.<sup>1)</sup>

7세기까지 한국고대사의 남북, 동서 사이의 拮抗이 이어지던 四國<sup>2)</sup>의 흐름은 다시 신라와 발해의 南北國시대로 이어간다.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한국사 체계에서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 실학자인 柳得恭(英祖24, 1748~1807, 純祖7)이 편찬한 『渤海考』의 〈序文〉에서였다. 어느덧 『발해고』가 세상에 나온 지 230년을 넘어섰다.<sup>3)</sup> 그러나 유득공이 제창한 ‘남북국’의 원형은 발해와 같이 남북국을 이루며 교류하였을 신라 중심의 서술체계인 金富軾의 『三國史記』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발해는 건국 직후 신라에, 또 신라는 발해로 사신을 파견하는 기사가 두 곳 등장한다. 신라 孝成王과 元聖王 대 기록에서는 신라가 발해를 ‘北國’

1) 김은국, 『발해의 환동해 교류와 연해주』 『백산학보』 97호, 백산학회, 2013 참조. 발해의 동서, 남북 교류의 다양성에 대한 접근을 환동해 인식이란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2) 이 글의 진행상 남북국(발해와 신라) 이전 한국사 줄기를 형성한 나라는 북방의 고구려와 남방의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의 4國이라 보고, 이를 ‘남북국시대’ 이전의 ‘사국시대’로 설정한다.

3) 『발해고』 출간은 보통은 1784년(正祖8)으로만 알고 있지만, 최근 수정본의 존재와 분석을 통해 1800년 이후 말년에도 계속 『발해고』 내용을 보완 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근 번역서(김종성 옮김 유득공 지음, 『발해고』 위즈덤하우스, 2017).

이라 기술하고 있다. 바로 이 사료들에서 유득공의 남북국사 설정이 가능했고, 현재 발해를 남북국의 일원으로 당당한 한국사 구성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발해인 스스로 남긴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여서, 정작 발해를 중심으로 한 남북국 호칭의 확인은 좀 더 기다릴 시점에 있다. 그렇더라도 발해는 주변 국가의 역사서에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당시 함께 존속했던 당사국과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였음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발해사는 698년 ‘진’이라는 국호로 건국하여 926년 거란의 기습공격으로 마지막 왕의 왕계가 단절되기까지에 국한해서 보곤 하였다. 그러나 발해 건국이 가능하게 했던 커다란 요소는 고구려 멸망후 고구려유민들의 30년간의 부흥운동이었다. 또 멸망도 왕위가 단절되어 거란이 세운 동란국으로 그 왕통이 이어간 것이다. 발해 유민들은 이후 200년 이상 동안이나 유민부흥을 전개해 나갔다.

발해가 멸망한 뒤 그 유민의 활동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디아스포라(Diaspora) 관점에서 접근하여 볼 수 있다. 거란의 대규모 공세에 마지막 왕이 항복은 하였지만, 이후 200여년 이상 이어진 발해유민의 저항은 세계사상 드문 것으로 평할 수 있다. 고려로 망명한 발해 유민은 고려의 후삼국통합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또 대륙에서는 요와 금대까지도 발해유민의 역량이 높았다. 이제 한민족의 대표적 디아스포라를 발해인의 멸망과 유민을 통해 이어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 2. 발해 230년

### 1) 발해의 건국과 고구려 계승

발해는 698년 고왕(高王) 대조영(大祚榮)이 고구려 유민을 중심으로 동모산(東牟山: 현재 중국 길림성 소재)에서 진(振, 震)이란 국호로 건국하였다. 이후 발해는 당 및 돌궐, 거란, 남쪽의 신라, 동해 건너 일본과 개방적 대외교류를 지속하여 해동성국(海東盛國)으로 칭송되었다. 고왕 이후 15대 마지막 왕 대인선(大諲譔) 통치 시기까지 전국을 5개의 중심 도성(京), 15개의 부(府), 62개의 주(州)로 나누고, 신라도, 일본도, 거란도, 영주도 등의 대외교통로를 두어 동아시아의 문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발해가 당시 주변국과 교류한 역사사실을 담은 사료들을 통해 보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

하였던 나라였음을 알 수 있다. 발해는 시호 및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황제국가를 표방하고 부여와 고구려를 계승하였던 독립 국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 전개 속에 발해는 신라와 더불어 7세기에서 10세기 남북국사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현재 발해의 영역은 중국 동북 지방과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북한에 걸쳐 있어 이들 지역의 유적발굴과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sup>4)</sup>

## 2) 발해사 연구의 방향

발해의 영역은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분포되어 있고, 발해 관련 사료도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한국에 남아 있어, 역사해석에서 많은 이견이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발해유적과 유물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따라서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kraskino: 渤海 시대의 염주[鹽州])<sup>5)</sup> 발해성의 공동 발굴조사의 지속적인 추진은 발해사 연구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향후 중국에 있는 상경성, 서고성, 팔련성 등의 발해유적으로부터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크라스키노성 등을 지나 북한의 부거리, 청해토성 등을 거쳐 남쪽 신라 경주에 이르는 남북국로(南北國路)는 발해사연구의 새로운 아젠다 부활이다. 필자는 2004년 크라스키노 성에서 출토된 ‘고누판’(840년경 사용 추정)을 분석한 결과, 이는 한국 전통 놀이 중의 하나인 ‘고누 놀이용 판’, 나아가 가장 전형적인 ‘참고누판’이었다. 이러한 고누판은 한반도 전역에서 출토되며, 나아가 현재 몽골에서 발견되는 발해유민 관련 유적에서도 발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발해의 고누 길(Gonu-road) 설정을 제시하였다.<sup>6)</sup> 이것은 이른바 남북국사의 새로운 연구 주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사에서 7세기부터 10세기는 신라와 발해가 남과 북의 두나라 형세로 발전하였던 남북국시대로 설정한다. 그러나 이 시기 설정에 걸맞게 실증적인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의미 부여한 연해주 염주(현재 러시아 크라스키노 위치)성 출토 ‘(참)고누판’은 남북국사의 고리를 이어주는 실물자료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4) 발해사에 대한 종합적 정리는 김은국 외 21인의 한·중·러 발해사전문가들의 공저인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7 및 김은국, 『최근 10년간 발해사 연구 성과와 방향』 『동북아역사논총』 53호, 동북아역사재단, 2016 참조.

5) 발해의 62개의 주(州) 가운데 하나로 상경성에서 이곳을 거쳐 신라와 일본으로 왕래할 수 있었던 항구도성임.

6) 김은국, 『한·몽 渤海유적과 ‘고누 길’』, 『역사민속학』 제46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참조.

### 3. 중국 학계의 발해 역사 인식

#### 1) 통일적 다민족 역사인식의 한계

중국은 발해 역사 하나만을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현재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역사, 게다가 중국 영토 안의 모든 민족까지 중국의 민족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은 역사적으로 漢族 이외에 55개의 민족이 함께 국가를 구성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접하곤 하는 티벳, 위구르 등의 독립 투쟁 등은 바로 다민족 국가로 재탄생한 중국의 고민이기도 하다. 중국에 있는 한국 동포(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고 부름) 역시 이 55개 민족 구성의 하나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중국 동북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중국사로 규정하는 연구와 이론 작업을 마무리한 바 있다. 중국은 중화민족이라는 거대 공동체 속의 구성원임 강조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한 중국의 민족정책은 자연스레 크고 작은 55개 민족의 역사 영역과 문화 까지도 중국이라는 하나의 역사와 문화 틀 속에서 설명하여야 했던 것이다.

중국은 바로 위와 같은 “統一的多民族”관점으로 한국고대사 중 조선과 중원 관계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을지문덕 장군, 또 발해의 건국자 고왕 대조영 등 한국사 속에서 다루어지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와 인물들이 모두 중국의 인물이고 그 역사라고 하는 격이다. 영역이야 지금 중국의 관할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의 역사와 남은 유적마저 국적을 뺏을 수는 없다.<sup>7)</sup>

중국에서 발해사에 대한 관심은 중국의 영토 안에서 발전하였던 것도 큰 작용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발해의 교류 모습에 더 이끌렸을 것이라 본다. 발해는 국가 위치상 동아시아 세계의 동서남북 교통로에서 중심을 이루며 발전하였다. 당시 교통 연락체계인 역참, 강과 하천을 중심으로 한 수로 교통 및 신라도·일본도·거란도·압록도·영주도 등으로 이름까지 지은 육로교통은 당시 동아시아 문물교류의 통로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지금도 이 교통로는 러시아, 중국, 북한,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물류 이동의 거점으로 부활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현재 여러 민족이 함께 이루고 있는 중국이라는 틀에서도 발해의 역사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sup>8)</sup>

7) 중국의 통일적다민족 관점의 형성과 전개에 대해서는, 윤휘탁, 『新중화주의』 푸른역사, 2006. 특히 pp.113~131의 〈중화민족 대가정〉을 만들기 위한 역사이론) 참조.  
8) 김은국, 『記錄과 遺物로 본 渤海滅亡의 이해』 『고구려발해학회 2014년도 추계 발해국제학술회의-발해와 주변민족의 역사와 문화』(2014.9.19, 한성백제박물관 대강당), 77~80쪽 참조.

## 2) 渤海 ‘靺鞨’國號論의 虛實

고왕 대조영은 신라는 물론 돌궐 등 북방민족, 일본과의 교류도 확산하여 갔다. 발해의 이러한 행보는 당이 결국 발해 건국을 인정하고 발해에 사신 파견을 시도하였다. 705년의 시도는 돌궐 등의 북방민족이 당과 발해의 통로를 막음으로서 무산되었다. 이후 713년 당은 다시 그의 사신 崔忻을 발해에 보내어 고구려 이래 隋와 唐의 골칫거리였던 靺鞨 통제를 渤海를 통해 얻어내고 당으로 돌아왔다. 말갈로 인해 시달렸던 당은 ‘앓던 이 해결한 격’이 있으니 발해 사행 임무를 마친 최흔은 배를 기다리던 요동반도 남단에 비석을 남기기까지 하였다.

중국 학자들은 최흔이 새겨 놓은 비석 명문 속에 등장하는 ‘靺鞨’이 바로 발해 건국 국호였다고 반복하여 언급한다.<sup>9)</sup> 그러나 新·舊『唐書』 등 중원 사료에는 대조영이 선포한 국호는 진(振, 震)이었음을 뚜렷이 기록해 두었다. 사료 면에서도 다민족통일론을 강조하는 중국학자들이 유독 자신들의 사료에 있는 ‘진’이라는 국호는 부정하고 반면에 기록으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말갈’이 국호였다는 논리는 억지다. 마치 그것은 진국의 사신을 맞았던 신라인의 입장에서 서술한 삼국사기의 ‘북국’기록을 중원의 것에서는 찾아 볼 수 없어 부정하는 논리의 自家撞着 그 자체다. 또 靺鞨이란 이미 唐의 주변민족에 대한 泛稱·卑稱이란 의미임을 고려한다면,<sup>10)</sup> 대조영 스스로 이 卑稱인 靺鞨을 손수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야말로 靺鞨이란 他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11)</sup>

말갈에 대한 발해 통제를 확인받은 당은, 732년 발해에 일임해 주었던 약속을 스스로 어기자 발해 제3대 武王은 당의 서해 전초기지인 登州(현 산둥산도 소재)를 기습 공격하기에 이른다. 이 전투는 당이 자초한 무력충돌로 이후 발해는 등주 지역을 교역의 거점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sup>12)</sup>

9) 최근 魏国忠·郝庆云·杨雨舒, 「渤海“靺鞨说”又添新证」, 『社会科学战线』 2014-3 에서는 말갈 국호설 비판에 대한 새로운 발굴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발해국의 초기 국명이 말갈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될 수 없는 것이다.

10) 한규철 「발해의 건국주체와 국가 성격」, 『발해의 역사와 문화』, 앞의 책, 46~53쪽 및 「三國史記」의 靺鞨 문제, 『人文學論叢』 제31집,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참조.

11) 송기호, 『渤海政治史研究』, 一潮閣, 199, 71쪽.

12) 김은국, 「登州를 중심으로 한 渤海와 東아시아의 交流」, 『동아시아고대학』 27, 동아시아고대학회, 2007; 「渤海와 唐, 登州 交流史」,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집』 (중국 항주, 절강대학, 2012년 6월) 참조. 특히 중국의 최근 말갈 국호 억지에 대한 비판은 김은국, 「최근 10년간 발해사 연구 성과와 방향」, 『동북아역사논총』 53호, 동북아역사재단, 2016 참조.

## 4. 한국사와 발해

### 1) 발해 마지막 왕 大諲譔과 渤海小城

발해 역사를 전후한 한국사를 생각해 본다. 발해 이전은 바로 고구려가 존재했다.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만에 발해는 698년 고구려를 계승하면서 건국하였다. 230여 년간 발전하면서 926년 당시 동아시아시의 강국으로 등장한 거란(遼)의 기습공격으로 왕위가 끊겨 버린 것이 발해 멸망이다. 발해에 대한 거란의 통치를 기점으로 발해민들은 이후 자의든 타의든 많이 흩어져 離散하였다.

발해 멸망은 건국과 함께 한 역사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발해의 멸망은 이후 동아시아 역사전개의 방향이 다르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사에서는 발해멸망은 남북국시대의 종언과 함께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 계통을 보여준다. 중원사와 거란사의 입장에서 보면, 중원의 동쪽 우환을 떨쳐낼 수 있었으며, 이는 거란의 경우, 문화의 전파, 전달자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제시하여 주고 있다.

해동성국으로서의 국가적 위상과 문화를 중원과 동아시아에 다양하게 제시한 바 있는 발해의 멸망에 대해서는 건국과 함께 멸망 역시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13)</sup>

발해 지배층과 각계의 전문인들은 遼의 수도(현재 내몽골 巴林左旗)로 이주되어 각각의 능력에 맞게 대접을 받았다. 이때 발해 마지막 왕과 왕비는 신료들과 수행인들과 함께 요 상경성 서쪽에 있는 발해소성(渤海小城)으로 옮겨졌다. 망국의 한과 함께 다시 부흥할 수 있는 발해 디아스포라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sup>14)</sup>

발해민이 지닌 문화 수준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게까지도 인정하고 그들을 관직에도 등용하였을 정도였다.

### 2) 또 한 줄기의 발해유민 디아스포라

다음으로 한국사에서의 발해유민의 위상을 살펴보면, 우선 고려 태조 왕건의 후삼국 통합 과정에서 발해유민의 참여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경상도 지역에서 일어난 高麗 統一戰爭

13) 송기호, 앞의 책, 53쪽.

14) 김은국, 앞의 글(2014.9.19), 77~80쪽 참조.

의 마지막전투이며 전면전이었던 일리천 전투의 배경은 그 명분확보와 힘의 축적이 모두 갖추어졌기 때문에 파악되었다. 여기에는 渤海 멸망 후 발해세자 大光顯이 주민 수만 명을 이끌고 귀부하였다는 기록 등 발해유민의 지속적인 고려 이주를 고려할 수 있다.

이들은 거란의 지배를 벗어나 남쪽의 고려 태조 왕건(王建)에게 망명하고 있다. 이에 王建은 발해와 친척관계임을 강조하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원수로 대하였다. 특히 거란이 보낸 사신은 귀향을 보내고, 그들이 데려온 낙타는 만부교(萬夫橋) 아래에 굶겨 죽였다. 또 발해 세자 대광현(大光顯)이 발해 멸망직후 관료와 백성을 인솔하고 고려로 망명하였을 땐 황해도 지역에 발해 사직을 모실 터까지 배려하였다.

발해 멸망은 거란의 왕에게 발해 마지막 왕이 항복하였던 것뿐이다. 그러기에 발해 전역에서 줄기차게 반(反)거란 항쟁이 이어졌다. 그리고 국가 명으로까지 기록에 남겨져 있으니, 후발해(後渤海), 정안국(定安國), 흥요국(興遼國), 대발해(大渤海) 등이 그것이다. 고려 역사 기록에 보이는 발해유민의 고려 망명은 바로 발해유민 항쟁 과정과 연결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고려로 내투한 발해유민은 한국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의 장기간인 2백여 년 간, 기록에 따라서는 수만 혹은 수십만으로 표현될 정도의 이동이었다. 이러한 대이동이 가능하려면 발해와 고려와의 전통적인 친연성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또 왕위계승문제로 아들인 神劔에게 내쫓긴 견훤이 결국 王建에게 귀부하게 된다. 그리고 신라의 敬順王까지도 나라를 들어 왕건에게 바쳤다. 이처럼 大光顯이 귀부한 934년 7월부터 경순왕이 귀부한 935년 12월까지의 약 1년 반은 왕건에게 있어서 통일을 목전에 둔 명분 확보의 시기였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즉위 후부터 일관되게 시행해 온 重幣卑辭에 의한 포용정책이 큰 힘이 되었다. 그 결과는 민심확보로 나타났다. 또한 고창군전투와 운주전투의 승리로 인한 힘의 과시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sup>15)</sup>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는 발해의 후예들이 太(大)氏 성을 지니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발해 디아스포라는 한국사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15대 왕이 230여 년간 나라를 이끌며 ‘海東盛國’이라 불렸을 정도로 발전한 발해. 발해의 왕과 주민들, 영역은 모두 고구려를 이어받았기에 빠른 시간에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다.

15) 김명진, 「高麗 太祖 王建의 統一戰爭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9, 136쪽.

## 5. 南北國史 230년

### 1) 남북국사의 端初

앞서 언급했듯이 발해사가 중국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중원의 각 사서들이 입증해 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발해의 건국 국호는 진(震, 振)이었다. 대조영 장군은 고구려유민을 중심으로 당나라의 통치확산에 저항하고 그의 활동 기반이었던 營州(현재 길림성 朝陽)에서 벗어났다. 이후 天門嶺에서 추격하여 온 당군을 격퇴하고 동쪽으로 이동 東牟山(현재 길림성 敦化)을 중심으로 국가를 창건하였다. 고왕은 즉시 남쪽의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진국 건국을 알리고 신라 孝昭王으로부터 그에 걸맞은 품계를 받는다. 신라 관점에서 서술한 金富軾의 『三國史記』에는 발해를 北國으로 서술하였다. 이후 790년 신라 元聖王은 반대로 북국에 사신을 보냈다. 중원의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北國’기록이 바로 한국사에서 南北國史 강조의 端初였다. 중국학자 중에는 이 기록 자체를 황당무계하다고 평가 절하하면서 남북국사 자체를 부정하는 바 있다. 이러한 남북국 역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원 역시 앞에서 언급한 중국의 통일적다민족국가이론이다. 이는 중국이 아닌 한국 사료에만 등장한 北國이 결국 허구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다.<sup>16)</sup>

정조 대왕 8년(1784년) 柳得恭은 『渤海考』를 저술하였다. 발해 멸망이후 발해를 제목으로 단 저술은 이 책이 처음이다. 유득공은 책의 서문에서 발해는 신라와 함께 남북국을 이룬 한국사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지금(조선시대)”이라도 늦지 않으니 南北國史(남쪽의 신라, 북쪽의 발해)의 편찬과 용어 사용을 적극 강조하였다. 『발해고』가 출간되고 보완된 지 어느덧 230년을 넘어서고 있어 발해의 흥망사와 함께 새롭게 와 닿는다.

‘역사’는 단순히 지난날의 모음집이 아니다. 역사의 진정한 의미는 기억과 경험을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 얼마나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발해가 진정 한국사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남북국사 속에서 발해를 보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본다. 230여년 전 유득공 선생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말은 지금도 유효하니까 말이다. 공교롭게 230년 어간은 발해가 건국해서 나라 이름을 동란국으로 바뀐 시기의 기간과도 같다.

16) 남북국론을 둘러싼 한국과 동아시아 학계의 논쟁에 대해서는, 김은국, 『南北國時代論과 渤海 Diaspora』 『高句麗渤海研究』 40, 고구려발해학회, 2011, 159~194쪽 참조.

## 2) 渤海와 東丹國

『遼史』『太宗本紀』에는 926년 봄 정월, 거란의 耶律阿保機가 上京城을 함락시키고 왕의 항복을 받은 뒤 東丹(동쪽의 거란이라는 의미)을 세우고 이름을 바꿔 천복성이라고 하였다 는 기록이 있다. 또 928에는 “동란의 백성들을 옮겨 동평을 채웠다. 그 백성들 가운데 新羅·女眞으로 도망한 자들도 있으며, 곤핍하여 옮길 수 없는 자들은 상국의 백성들에게 주어 노예로 삼게 하였다.”<sup>17)</sup>라 하였다. 곧 발해 멸망이후 동란국에 속하였던 상경성 발해유민들이 928년 시점부터 다시 遼陽으로 이주되어 감을 보여준다.<sup>18)</sup>

최근 발간된 八連城(중국 길림성 琿春 소재) 발굴보고서를 통해 팔련성 역시 상경성과 같이 발해멸망 직후 발해유민이 동란국의 치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 분석결과 八連城 제1호 전각 터 기단에서 “維次甘露元年”명문 암막새 기와가 주목된다. ‘甘露’는 동란국(東丹國)의 연호로, 甘露元年是 926년 발해가 멸망하고 동란국이 세워진 해의 연호다. 나아가 보고서는 팔련성의 廢棄 년대를 『遼史』의 기록에 의거하여 감로 3년, 즉 928년으로 설정하였다.<sup>19)</sup> 곧 팔련성과 상경성은 현재로서는 발해멸망 이후 동란국 예하에서 연용되다가, 동란국 감로 3년, 즉 928년에 그 유민의 강제이주를 통해 도성의 용도가 위축되거나 폐기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거란이 발해영역 내에 동란국을 세운 것은 물론 발해민의 저항을 막아보려는 시도였다.<sup>20)</sup>

이를 토대로 동란국과 발해유민의 관련성을 보면, 동란국은 928년 遼陽遷徙를 경계로 달리 접근해야 할 것이다. 동란국 자체의 존속기간은 982년까지도 설정할 수 있긴 하지만,<sup>21)</sup> 팔련성과 상경성의 폐기 연대처럼 928년 이후의 동란국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동란국을 통한 발해민의 간접 통치는 발해유민의 지속적인 부흥운동과 거란 왕위 계승 등 거란 내부 문제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거란의 대규모 공세에 마지막 왕이 항복은 하였지만, 이후 200여 년간 이어진 발해유민의 저항은 세계사상 드문 것으로 평할 수 있다. 이는 비록 거란이 발해의 항복을 얻어내었지만, 결코 유민들과 발해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지 못하였다. 발해유민의 통제를 위해 설치한 동란국(東丹國)은 그 설치 이후 얼마 안 되어 통치기능을 잃고 만다. 발해가 멸망한 뒤 그 유민의 활동은

17) 『遼史』第3卷 本紀 第3 太宗上, 天顯 3年(928) 十二月 癸卯條.

18) 黑龍江省文物考古工作隊, 『渤海上京城第2·3·4號門址發掘簡報』『文物』1985-11, 52~61쪽.

19) 王培新·張博, 『渤海國東京龍原府故址琿春八連城考古成果綜述』, 『边疆考古研究』第14輯, 吉林大學边疆考古研究中心編輯, 2013.12, 279쪽 및 王培新, 〈제6장 결론〉, 『八連城-2004-2009年度渤海國東京故址田野考古報告』, 文物出版社, 2014.5, 310쪽 참조.

20) 거란(遼代)의 발해유민은 바로 이 동란국(東丹國)과 연계해서 살필 수 있다. 김은국, 한·몽 渤海유적과 ‘고누 길’의 의미, 2014. 또 발해 유민사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는 이효형, 『발해 유민사 연구』, 혜안, 2007 참조.

21) 이효형, 『발해의 멸망과 유민의 동향』,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7, 116쪽.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접근하여 볼 수 있다. 거란의 대규모 공세에 마지막 왕이 항복은 하였지만, 이후 200여 년간 이어진 발해유민의 저항은 세계사상 드문 것으로 평할 수 있다.<sup>22)</sup> 이를 통해 이제는 한민족의 대표적 디아스포라를 발해인의 멸망 과정과 금대(金代) 발해유민의 활동 등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sup>23)</sup>

## 6. 맺음말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다. 내재적으로 형성된 自生的 이론이 普遍的이 되어야만 진정한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논리로 활용하여 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서로 다른 생각과 사고는 비판적으로 공유할 때 비로소 그 인식의 거리를 좁혀 갈 수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국사’ 나아가 ‘남북국시대론’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주장이나 이론이 아니다. 이는 발해와 신라가 존재하였던 그 시기의 眞景인 것이다. 柳得恭이 『渤海考』에서 언급한 ‘남북국사’역시 그 이전부터 발해와 신라를 당당히 한국사의 주체로 보려는 시각의 완판인 것이다.

『발해고』가 편찬된 지 230여년이 지났다. 眞景이란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이며, 유득공의 남북국사는 바로 한국사의 있는 그대로의 강조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통일적 다민족 이론에 입각하여 중국 영토내의 역사는 모두 중국사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물론 전혀 찾을수 없는 것이다. 바야흐로 한국의 발해사학계는 더욱 남북국사 설정에 근거를 두면서, 남북국시대 정립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다. 2004년 크라스키노 발해성 출토 ‘고누판’은 바로 남북국사의 고리를 이어주는 실증적 자료로 재평가 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다. 나아가 한국사 디아스포라의 원형 접근은 발해유민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비록 발해 멸망이란 거란의 기습공격에 왕위가 동란국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발굴 보고서 분석 결과 동란국이 928년 遼陽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발해국의 존속 기간으로 보았다. 발해국의 도성이 유지되고 동란왕으로 이어진 통치는 아직까지 외부적으로도 발해국이란 이름으로 오고 갔음을 물론이다.

15대 220여 년 간 동아시아 해륙국가로 자리한 해동성국 발해는 마지막 왕대에 契丹의 침공으로 왕계가 단절된다. 그러나 발해 멸망 못지않게 발해사 연구의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

22) 발해 멸망과 유민 부흥운동을 Diaspora 관점에 접근 한 논고로는 김은국, 앞의 글(2011) 참조.

23) 김위현, 「금대 발해인의 항방(向方)」, 『한민족연구』제7호, 한국민족학회, 2009, 91~112쪽.

는 것이 발해유민 부흥운동이다. 고구려 멸망후 유민부흥운동과 함께 같이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화수분이 되었다.

발해멸망 이후 한국의 영토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북한(北限)으로 천여 년 이상 이어왔다. 발해는 한국에서는 남북국사로 당당히 한국사의 일부로 인식하지만 현실적으로 유적과 유물은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관리 하에 있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의 발해유적 조사에 한국의 학자들 참여는 절대적이다. 현재로서는 연해주 발해유적의 발굴에 한국 학자들이 공동으로 임하고 있는 정도다. 이에 북한과 중국의 발해유적 경우에도 우리의 참여 시기가 보다 빨리 오길 바란다. 그리하여 대륙과 해양을 누비던 해동성국의 역사를 우리가 고스란히 체득할 수 있기만을 고대한다.

## 〈참고 문헌〉

### 가. 발굴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편,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발굴보고서』(2004~2005년도).

동북아역사재단 편,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성 발굴보고서』(2006~2014년도) 외.

### 나. 단행본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7,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7, 『새롭게 본 발해사』 외.

### 다. 유득공 『발해고』(국내 번역서)

송기호 옮김 유득공 지음, 『발해고』, 흥익출판사, 2000

정진헌 옮김 유득공 지음, 『발해고』, 서해문집, 2006

김종성 옮김 유득공 지음, 『발해고』, 위즈덤하우스, 2017

### 라. 논문류

김은국, 2006, 「8~10세기 동아시아 속의 발해 교통로」 『한국사학보』24, 고려사학회.

구난희, 2007, 「발해와 일본의 관계」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김은국, 2008, 「渤海와 日本의 交流와 크라스키노 城」 『동아시아의 발해와 일본』, 경인문화사.

김은국, 2008, 「登州를 중심으로 한 渤海와 東아시아의 交流」 『동아시아고대학』27, 동아시아고대학회.

- 김은국, 2009, 「湖岩 文一平의 大小思想과 渤海史 認識」 『고구려발해연구』33.
- 김은국, 2010, 「크라스키노城과 후쿠라항」 『고대 환동해교류사(2부 발해와 일본)』, 동북아역사재단.
- 허태용, 2010, 「조선후기 ‘남북국론’형성의 논리적 과정 검토」 『동방학지』152, 연세대.
- 김은국, 2011, 「南北國時代論과 渤海Diaspora」 『고구려발해연구』40, 고구려발해학회.
- A. Ochir, L.Erdenebold, 「몽골국내의 발해 고고유적」 『동북아역사논총』제31집, 동북아역사재단, 2011.
- 구난희, 2012, 「北方故土意識의 推移에 관한 考察 I - 발해멸망~조선후기」 『高句麗渤海研究』42, 고구려발해학회.
- 윤명철, 2013, 「고대 도시의 해양적 성격에 대한 체계적 검토-고대국가를 대상으로-」 『동국사학』55.
- 김은국, 2013, 「발해의 환동해 교류와 연해주」 『백산학보』97호.
- 윤재운, 2013, 「중국의 발해사왜곡논리와 대응방안」 『한국사학보』51, 고려사학회.
- 김은국, 2014, 「한·몽 渤海 유적과 ‘고누-길」 『역사민속학』 제46호, 한국역사민속학회.
- 한규철, 2015, 「三國과 渤海史에서의 靺鞨」 『한국사학보』58, 고려사학회.
- 김은국, 2015, 「渤海 鹽州城 발굴의 전개와 방향」 『中央史論』42, 중앙사학연구소.
- 김은국, 2016, 「최근 10년간 발해사 연구성과와 방향」 『동북아역사논총』53호, 동북아역사재단 외.

---

# 전근대 중국의 사서편찬과 외국인식

---

• 김정희 (동북아역사재단) •



# 전근대 중국의 사서편찬과 외국인식

김정희 (동북아역사재단)

## 1. 중국의 기록 문화

### 1) 한자

- 가공할 만한 한자의 수 : 『강희자전(康熙字典)』 42,174자, 1994년 中华书局 『中华字海』 85,568자. 현재 한자 수는 대략 10만 자 정도로 추정되며,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新华字典』에 수록된 한자는 11200자 정도.
- 중국 교육부 제정 中小学《语文课程标准》규정에 의하면, 초등학교 6년 동안 3000자, 중·고등학교까지는 3500자를 습득해야 한다. 일상의 문자생활을 위해서는 3000~3500자 정도의 한자 습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한자 습득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최근까지도 다수의 민중이 문맹의 상태였다. 따라서 ‘문자개혁’운동이 청말, 민국시대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으며, 그것은 표준어 제정, 한자를 표기하는 표음문자의 작성, 한자의 간략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 각각 보통화(普通話), 병음자모(拼音字母), 간체자(簡體字)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다. 특히 간체자 제정은 한자의 복잡한 획수를 대폭 생략하여 민중으로부터 환영받았고 식자교육에 크게 기여하였다. (ex: 漢字→汉字)

## 2) 갑골문자(甲骨文字)와 역사 기술

- 갑골문은 은대 후기인 반경(盤庚)의 은허(殷墟) 시기부터 帝辛(紂)의 망국 시기까지 약 270여 년간(기원전 1300년~기원전 1028년)의 문자이다. 1899년 하남성 안양시 은허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귀갑(龜甲)과 수골(獸骨)에 새겨진 문자이다.
- 갑골문은 그 구조나 어법이 상당히 완비된 문자로, 오늘날 한자의 기본 형식(“六書”)을 갖추고 있다. 갑골문은 원시문자가 아니며 중국 최초의 문자도 아니며, 그 이전에 적어도 500년 정도의 발전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평가한다. 강서성 淸江 吳城 은대 중기 문화유적에서 도기나 돌로 된 주형에 새겨진 70개 이상의 문자가 발견되었고, 그 대부분이 은대 갑골문과 일맥상통한다.
- 출토된 점복용 갑골 15만여 편 가운데 10여만 편에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상이한 문자가 4,500여 자이며, 이중 2,800여 자(자료에 따라 2,000자, 2,500자)가 해독되었다. 갑골문의 내용은 정치, 군사, 문화, 사회습속, 천문, 역법, 의약 등 은대사회의 여러 방면에 걸쳐 있어, 사실상 은 왕실의 역사 기록이다.
- 은허 출토의 갑골문은 복사(卜辭)로, 은대 사관의 기록이다. 은왕은 상제나 자신의 조상들에게 항상 제사를 지냈는데, 사람과 신의 의지를 소통시키는 방법이 점복이었으며, 갑골은 이러한 점복의 도구였다. 먼저 갑골 위에 구멍을 뚫고, 상제에게 복문(卜問)하고자 하는 사정을 낱낱이 나열한 다음, 뚫어놓은 구멍에 불을 쪼이면 갑골의 다른 면에 ‘복(卜)’자 모양의 균열(‘卜兆’)이 나타난다. 점복 담당자는 균열의 모양을 근거로 해서 사정(사건)의 길흉을 판단하고, 이것을 상제의 회답으로 여겼다.
- 전형적인 갑골 복사는 아래와 같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 일정한 격식을 갖추었다. 가장 긴 복사는 100자 이상에 달한다.
  - 첫째 전사(前辭) : 점을 친 날짜(卜期) 및 점치는 사람(真人)의 이름
  - 둘째 명사(命辭) : 복문(卜問)하고자 하는 사건
  - 셋째 점사(占辭) : 복조(卜兆)로 정해지는 길흉
  - 넷째 험사(驗辭) : 점친 후의 효험

### 3) 사고전서(四庫全書) 편찬과 사부 총서(史部 總序)

- 청 정부는 건륭 37년(1772)부터 10년에 걸쳐 사고전서를 편찬하였다. 총찬(總纂) 기윤(紀昀) 이하 360여명의 관원, 3,826명의 필사 인원을 동원하여 현존 최대의 총서를 편찬한 것인데, 경사자집(經史子集) 4부(部)로 나누고, 총서명을 사고전서라 명명하였다.
- 수록서[著錄書]가 3,460종(3,503종), 79,339권에 달하며, 이를 36,300책으로 제본하였다(6.49기가바이트). 수록서 외에 존목서(存目書)가 6,793부, 95,551권이었고, 파괴 서적이 10만부(전체 파괴 2,453종, 부분 파괴 402종, 석각 24종)에 달하였다. 이는 사고전서의 편찬 의도 및 그 공과를 되묻게 한다.
- 사고전서는 전체 체제를 부(部), 류(類), 자목(子目)으로 분류하고, 저록서와 존목서의 제요(提要), 4부의 서두에 총서(總序), 류(類)의 서두에 소서(小序), 자목(子目) 뒤에 안어(案語)를 각각 두었다.
- 총서 편찬과 동시에 저록서와 존목서에 대해 내용 제요를 집필하여 『사고전서총목』(『사고전서총목제요』) 200권을 편찬하고 단독 간행하였다. 제요에서는 각 부 서적의 연원, 판본, 저자, 주요내용, 우열득실을 소개하였다.
- 사부(史部)의 경우 15류로 분류하고, 사부 총서에서 역사(편찬)의 원칙으로 “찬술은 간략하게, 고증은 상세하게(史之爲道, 撰述欲其簡, 考證則欲其詳)”를 제시하고, 그 최적의 예시로 “『춘추』보다 간략한 것이 없고, 『좌전』보다 상세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 사부 15류  
 今總括羣書, 分十五類. 首曰正史, 大綱也. 次曰編年, 紀事本末, 別史, 雜史, 詔令奏議, 傳記, 史鈔, 載記, 皆參考紀傳者也. 時令, 地理, 職官, 政書, 目錄, 皆參考諸志者也. 史評, 參考論贊者也.
- (1) 정사 : “대강이다.” 국가권력에 의해 공인된 정통의 사서로, 『사기』를 비롯한 24사가 이에 해당한다. 기전체(紀傳體) 형식의 사서이다.
- (2) 편년, 기사본말, 별사, 잡사, 조령주의, 전기, 사초, 재기 : “모두 기전을 참고한 것들이다.”
- (3) 시령, 지리, 직관, 정서, 목록 : “모두 여러 지를 참고한 것들이다.”
- (4) 사평 : “논찬을 참고한 것이다.”

## 2. 중국의 사서 편찬

### 1) 『춘추』와 『춘추좌전』

- 『춘추』는 공자(기원전 551~479년)가 노(魯) 은공(隱公) 원년(기원전 722년)부터 애공(哀公) 14년(기원전 481)까지 242년간의 역사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노나라 역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주 왕실과 기타 제후국을 편년체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 주요 내용은 춘추시기 주요 인물의 활동이나 정치사건(전쟁 40%, 회맹 20%), 일식과 같은 자연현상(10%), 제사와 축성, 수렵 등 잡다한 내용(10%) 들이며, 사회경제, 문화 부분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다.
- 『춘추』의 서술 특색으로 이른바 춘추 ‘필법(筆法, 서법書法)’을 드는데, 이는 은휘(隱諱) 즉 ‘書하는가 不書하는가’와 포폄(褒貶) 즉 ‘어떻게 書하는가’의 문제이다. 결국 기사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중시하고 있는데, 다만 기록이 극히 간략해서 함의가 매우 불분명하다(微言大義).
- 242년의 역사, 1,800여 조 기사가 1만8천 자(현존 『춘추』는 16,500자)에 불과하여, 1조 평균 10자가 안 된다. 가장 짧은 기사는 한 자뿐이고(禧公 3년 하6월, “雨”), 두세 자인 경우도 있으며(襄公 9년 춘, “宋災”/宣公 5년 춘, “公如齊”), 일반적으로 10자를 넘지 않고, 가장 긴 기사도 45자에 불과하다. 그 중에는 표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건의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이 따르지 않은 경우도 있다.
- 따라서 『춘추』만 보고서는 공자가 그 가운데 숨겨둔 ‘포폄’이 도무지 어떤 것인지 매우 알기 어렵다. 공자의 문하생들조차 공자가 “구술 전수(口授)”한 것을 직접 듣고도 그 함의에 대해서는 “물려나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退而異言)”정도였다.
- 『춘추좌전』은 이러한 배경에서 저술되었다. 대체로 공자와 동시대 인물인 노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저술한 것으로, 그는 제자들이 이단을 일으켜 각각 그들의 뜻에 안주한 채 진실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여 『춘추좌전』을 저술했다고 한다(후한의 학자 환담(桓譚)은 “경만 있고 전이 없다면, 성인에 대해 문 닫고 10년을 생각해 보게 하더라도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
- 그러나 『좌전』은 좌구명 한 사람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에 의해 공동으로 집필되었다. 맨 처음 좌구명이 구술 전수하였고, 이후 죽백에 기록되었으며, 또한

뒷사람의 보충 정리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전국시대 말기에 필사되었던 것이다.

- 『좌전』은 『춘추』와 비교하면 체제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첫째 사료가 풍부해지고(전체 18만 자, 『춘추』의 10배에 달한다), 둘째 문채를 중시하고, 셋째 사실 기록(史)을 중시하면서 논평(論)을 창시하여 사론을 결합하였다. 한 단락의 역사 사실을 서술한 다음에 ‘군자왈(君子曰)’을 두어 사실에 대한 관점과 논평을 기술한 것이다. 사마천의 ‘태사공왈(太史公曰)’은 『좌전』의 이러한 형식을 발전시킨 것이다.
- 한대에는 『공양전』, 『곡량전』과 함께 『춘추삼전』으로 불렸다. 『공양전』과 『곡량전』의 취지는 『춘추』의 미언대의(微言大義)를 밝히는 것이며, 『좌전』은 역사사실의 서술을 중시하였다.

## 2) 『사기』와 『자치통감』

- 『사기(史記)』
- 『자치통감(資治通鑑)』은 북송의 사마광(司馬光)이 주편하고, 유반(劉攽), (유서(劉恕), 범조우(范祖禹)가 보조하였다. 주(周) 위열왕(威烈王) 23년(기원전 403년)부터 후주(後周) 세종(世宗) 현덕(顯德) 6년(959)까지 1362년간의 역사를 기술하였다. 『자치통감』은 엄밀한 편찬 순서를 거쳤는데, 먼저 총목(叢目)을 작성하고, 다음으로 장편(長編, 初卷) 즉 초고를 쓰고, 마지막으로 최종원고를 확정하였다. 『자치통감』의 특징으로는 사료 ‘고이(考異)’의 방법을 창시하여 사료비판을 거쳤고 이를 『통감고이(通鑑考異)』 30권으로 간행하였다는 것이다.

## 3. 중국의 정사 편찬과 정사 외국전

### 1) 『사기』와 기전체

- 사마천(司馬遷, 기원전 145~?)은 전한의 좌풍익 하양(左馮翊 夏陽, 지금의 섬서성 한성(韓城) 사람이다. 사망 시기는 대체로 60세 전후로 보고 있다. 부친 사마담(司馬談)은 전한의 태사령(太史令)으로 문서, 역사기록, 천문관측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사마

천은 부친을 따라 수도 장안에 이르러 무릉(茂陵)에 거주하였다. 제자백가의 논저 뿐만 아니라 천문, 율력, 지리에 정통했고, 의약과 점복에도 조예가 있었으며, 사부와 산문 등 문학에도 능했다. 20세 이후 여행을 시작하였고, 이후 황제의 시종관인 낭중(郎中)에 임명되었다.<sup>1)</sup> 36세 때 부친 사마담이 병사하고, 3년 뒤 태사령의 지위를 계승하였다. 이후 이릉(李陵)의 화(禍)로 궁형에 처해졌지만 계속 역사서 저술에 힘썼다.

- 『사기』 집필은 15년 혹은 20년에 걸친 작업이었다. 38세 태사령이 되었을 때 자료 수집에 착수해서 53세에 그 기본을 완성한 것으로 보면 15년이 걸린 셈이고, 이전의 준비와 이후의 수정 증보 과정을 덧붙이면 20여 년이 소요된 셈이다. 원래 서명은 『태사공서』이지만, 위진 이후에 이르러서 『사기』라고 불렸다. 이후 『사기』라는 말은 역사 서적에 대한 범칭에서 사마천의 저술에 한하는 호칭으로 바뀌었고, 태사공도 사관인 태사령을 지낸 모든 사람에 대한 칭호에서 사마천만을 가리키는 칭호로 바뀌었다. 결국 ‘태사공’과 ‘사기’는 사마천의 전유물로 공인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사기』는 황제(皇帝)부터 전한 무제 태조(太初) 연간에 이르는 총 3,000년간의 역사를 기술하였으며, 본기(本紀) 12편, 서(書) 8편, 표(表) 10편, 세가(世家) 30편, 열전(列傳) 70편의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형식을 기전체(紀傳體)라 하며, 『사기』 이후 역대 정사의 기본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 본기와 세가
  - 본기의 ‘紀’는 ‘記’와 같고, ‘사실에 근거(本)하여 기록한다’라는 뜻에서 ‘본기’라는 말이 나왔다는 설이 있다. 또 ‘본’이란 그 본계(本系,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의 위)를 엮어 연결하는 것이고 紀는 다스린다는 뜻으로서, 본계를 엮어 세계를 통치한다는 뜻으로 보기도 한다. 사마천이 생존하였던 한 무제 시대는 거대한 정치적 통일의 완성 단계였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직접 목도한 사마천은 역사를 통일에서 분열, 그리고 다시 통일로 전개되는 정치과정의 연속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에게 세계의 역사는 곧 정치의 역사를 의미하였으며, 이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의 축은 제왕이었다. 그가 모든 권력의 중심인 제왕에 관한 연대기적인 서술을 ‘본기’라고 명명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sup>2)</sup>

1) 황제의 시종관인 낭중에 임명되어 사행 길에 오르거나 황제의 봉선, 순회에 수행하면서 서남쪽으로는 파, 촉 이남의 旃, 笮, 昆明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空桐(감숙 동남부), 북으로는 涿鹿(허북 북부)과 九原(내몽고 남부)에 이르고, 동으로는 황해에 미쳤다. 대체로 지금의 광둥, 복건, 장성 이북, 하서회랑 밖을 빼면 거의 전국 각지에 사마천의 발길이 닿았던 셈이다.

2) 그렇다면 본기란 ‘제왕의 역사’라고 간단하게 규정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본기에는 「項羽本紀」나 「呂后本紀」처럼 이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사기』에서 ‘본기’라 할 경우 반드시 제왕의 역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을 정권담당자로 보았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고 실질적인 것을 더 중시했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도 없다. 진의 시황제가 죽은 뒤 陳勝(陳涉)이나 吳廣이 왕이 되어 張楚라는 국호를 내걸고, 일시적이거나 실질적인 정권을 장악한 것처럼 보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사기』에서는 진승의 기록을 ‘世家’에 포함시켜 여러 제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진승과

- 세가란 '세세로 봉록을 갖는 집' 즉 봉건 제후들에 관한 기록으로 보는 설이 있다. 그러나 『사기』의 세가에는 「진섭세가」라든가 「공자세가」 같은 것이 있어, 반드시 세세대대를 내려온 제후들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마천은 “28개의 별자리가 북신(北辰)을 둘러싸고 돌고, 30개의 바퀴살이 바퀴통 하나에 합쳐져, 운행이 끝이 없다. 보필고굉의 신하를 이에 짝 짓는다”(「太史公自序」)라고 하였다. 즉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수레바퀴의 바퀴살이 중심부로 모여 별과 바퀴의 운행이 끝이 없듯이, 군왕을 도와 그 수족이 되는 신하를 별자리나 바퀴살에 비유한 것이다.
- 이렇게 보면 본기와 세가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본기는 북극성이나 바퀴통에, 세가는 28개의 별자리나 30개의 바퀴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는 제왕을 북극성에, 제후왕을 천체의 각 분야를 점하고 있는 28개의 별자리에 각각 비유함으로써 세가가 다수의 정치적인 집단에 의해 공간적으로 나누어 맡는 정치질서임을 시사하였고, 동시에 제왕과 제후의 관계를 바퀴살과 바퀴통에 각각 비유함으로써 분권적 정치집단이 제왕을 구심점으로 통합될 때 비로소 세계는 움직인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 표와 서

- 표는 세가가 그 성격상 사건의 공간적 병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설정되었다. 각 세가 안의 사건들의 선후 또는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려면, 그것들을 다시 시간적으로 배열하지 않을 수 없는데, 표가 바로 그것이다. 사마천은 이것으로 중국사회의 단계적 변화, 예컨대 삼대(하은주), 춘추시대, 전국시대, 진한제제(秦韓之際)를 표현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 사마천이 역사를 제왕과 제후의 권력 소장관계나 그들을 둘러싼 정치적 사건의 전개 과정으로만 인식하였다면, 『사기』는 본기, 세가, 표만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서를 저술하여 역사를 좁은 의미의 정치사에서 문화 전반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정치사로 확대하였다. 그가 생각한 정치는 단순한 권력투쟁과 왕조의 흥망성쇠 과정만이 아니었고, 제왕이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수단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는 이것의 구체적인 표현인 문물제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서를 저술하였다. 그렇지만 그가 이것으로 만족하였다면 『사기』는 일반적인 문화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

향우·여후의 차이는 중심자가 되어 거기에서 나오는 호령이 정치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실력자인가 아닌가가 될 것이다. 진승은 국호를 내걸었지만 그러한 중심자는 아니었다. 사마천이 보기에 '본기'에 기록될 자는 그 같은 조건에 맞는 자라야 했다. 말하자면 세계의 중심자라는 의식이 그것이다.

• 열전의 성립

- 사마천은 넓은 의미의 정치를 창조하고 움직이는 주체의 문제를 크게 의식하였다. 그것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제왕도, 제왕의 권력을 공간적으로 나누어 맡는 제후왕도 아니며,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생을 영위하는 구체적인 개개의 인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렇다면 역사가 개개의 인간에 의해 구체적으로 창조되고 움직인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은 무엇인가. 바로 열전이였다. 전체 130권으로 구성된 『사기』 중에서 열전이 70권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그가 이 부분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으며, 사실 『사기』에서 가장 정채를 발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 열전은 흔히 개인의 전기를 병렬한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전(傳을) 주석의 의미로, 열(列)을 ‘烈’과 ‘例’의 복합 의미로 해석한다면, 뛰어난 개인 또는 모범적인 개인의 행적을 통하여 본기, 세가, 표, 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석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열전’의 목적은 단순히 개인의 생애를 소개하려는 것보다 본기, 세가, 표에 전개되는 사건의 흐름과 서에 서술된 문화 전반의 변천을 그 주체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었다.

•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와 ‘태사공왈(太史公曰)’

- 『사기』는 이처럼 크게 본기, 세가, 표, 서, 열전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지만, 성격상 이것들과 구분되는 두 부분이 있다. 하나는 열전 70편의 마지막편인 「태사공자서」이고, 또 하나는 각 편마다 삽입되어 있는 ‘태사공왈’로, 『사기』 구성상의 또 다른 특색이다.
- 「태사공자서」는 사마천의 자서전이며 동시에 『사기』의 해제이기도 하다. 『사기』 이전 중국의 저술 중 서(序)가 들어있는 것은 『상서(尙書)』뿐이다. 더욱이 『사기』의 ‘자서(自序)’에는 『사기』 전체의 집필 동기, 구성, 각 편의 서술 이유뿐 아니라, 저자 자신의 가계와 학문적 배경 및 경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서문의 성격과는 다르다. 이런 식의 ‘자서’는 실제 자기가 서술한 대상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며, 이것은 과거사실의 추체험(追體驗) 또는 재연(再演)의 과정을 거친 역사가만이 가능한 것이다.
- ‘태사공왈’에서 이러한 사마천의 역사인식 태도는 보다 뚜렷이 나타난다. 이것은 각 편마다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 또는 서술 중간에 삽입된 것으로, 여기서 사마천은 직접 일인칭으로 등장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자신의 비평을 덧붙이고 있다. 이 비

평은 태사공 자신의 의견으로서 논찬이라고 불린다.<sup>3)</sup>

- 물론 「태사공자서」에도 논찬이 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열전의 한편으로 소재화한 꼴이다. 그러므로 자서전이기는 하나, 사마천의 의식으로서의 자신을 대상화하고 객관화하여 기록했다고 할 수 있다. 「태사공자서」에 붙은 논찬은 그저 “나는 황제(黃帝)로부터 태조(太初, 한 무제의 연호)에 이르기까지를 술력(述歷)하여 130편으로 끝맺는다”라고만 하고 있다. 이 간결한 논찬은 대작품을 완성한 감동을 아주 잘 드러냈다고 평가받고 있다.

## 2) 정사 24사(史)와 외국전

- 사마천이 『사기』를 저술한 이래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는 기전체 형식으로 이전 왕조에 대한 역사서를 편찬하였다. 이 가운데 국가권력으로부터 공인을 받은 사서를 특별히 ‘정사’로 분류하고, 모든 종류의 사서 가운데 첫째 또는 최고라는 권위를 부여하였다. 시대가 바뀌고 왕조가 교체되어 정사 편찬이 거듭되면서 그때마다 공인된 정사를 13사, 17사, 22사 등으로 불렀다. 청 건륭(乾隆) 연간에 이르러서는 『사기』부터 『명사』까지 ‘24사’가 공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이 24사를 중국 정사의 총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 후 중화민국 시기에 편찬된 『신원사(新元史)』를 포함하여 25사라 칭하기도 하고, 『청사고(淸史稿)』까지 포함하여 26사로 부르기도 한다.
- 『사기』를 비롯한 이들 정사에는 기전체의 형식에 따라 열전이라는 항목을 두었는데, 외국이나 다른 지역 및 종족에 대한 기록도 열전의 하나로 편제하였다. 우리는 그러한 열전들을 추려 ‘외국전’으로 정의하고 그 총칭으로 사용하였다. 각 정사에서 그 명칭은 종족 이름을 따서 붙이기도 하고, 지역 구분에 따라 붙이기도 하고, 화이(華夷) 관념에 입각한 ‘사이(四夷)’구분에 따라 명명하기도 하였다. 『송사(宋史)』에서 처음으로 ‘외국전’이라는 명칭으로 대외관계를 포괄하는 체제가 나타나 『명사』에 이르기까지 외국전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외국과 더불어 사이, 만이(蠻夷), 외이(外夷)라는 명칭이 쓰이기도 하였다. 주목할 바는 이들 ‘외국전’의 ‘외국’이 중국 역대 왕조의 정사에서 명백히 ‘중국’과 구별하고 타자로 인식해온 다른 지역, 종족, 국가라는

3) 『사기』 이전의 저술 중 저자나 또는 편자의 견해가 간접적이거나 표현된 예로는 「좌전」, 「국어(國語)」, 「안자춘추(晏子春秋)」, 「한비지(韓非子)」의 「군자왈(君子曰)」이라는 형식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이 ‘태사공왈’의 선구였다고 흔히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등장 횟수도 크게 적을 뿐 아니라, 내용 중 편자나 저자가 직접 등장하는 예가 없어 편저자 자신의 견해라기보다는 제삼자의 견해를 소개 인용한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특정 사건에 대한 간단한 포평과 감상에 국한된 것이었다.

점이다.

- 중국 정사 24사 가운데 『진서(陳書)』와 『북제서(北齊書)』를 제외한 22개 정사에는 모두 외국전이 편제되어 있다. 외국전의 기사들은 기본적으로 한대부터 명대까지 중국의 왕조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인지하고 관계를 맺어온 세계, 즉 다른 나라와 지역 및 종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외국전은 전근대 한중관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sup>4)</sup>

### 3) 중국 정사 외국전의 편제와 외국 인식

- 『중국 정사 외국전이 그리는 ‘세계’들』
  - 중국 정사 24사의 편제[표]
  - 외국전의 구성과 서술 대상[표]
  - 중국 정사의 외국 인식

---

4) 문제는 외국전 자체의 방대한 분량, 원문 해독의 난해함 때문에 일반 시민은 물론 전문 연구자라도 외국전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외국전 전체에 대한 역주를 기획하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31명의 전문 연구자가 참여하여 외국전 역주를 진행하였다. 역주 결과는 순차적으로 『사기 외국전 역주』부터 『명사 외국전 역주』까지 총 29권으로 출간되었다. 외국전 역주서의 완간과 더불어 또 다른 요구가 제기되었다. 중국 정사 외국전은 역주본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시공간적으로 대단히 광범위하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29권의 책으로 나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전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든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종합적으로 설명해주는 지침서를 마련할 필요성이 컸다. 바로 이러한 필요에서 『중국 정사 외국전이 그리는 ‘세계’들』이 기획되고 집필되었다. 이 책은 『사기』부터 『명사』까지 중국 역대 왕조의 정사에서 ‘중국’과 구별하고 타자로 인식해온 다른 지역, 종족, 국가와 관련된 열전을 추려 ‘외국전’으로 정의하고, 이 외국전들이 기술하고 있는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 그 전체상을 그려보고자 기획하였다. 여기에서 세계란 “지구상의 모든 나라 또는 인류 사회 전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중국의 각 왕조가 시대에 따라 인지하면서 관계를 맺어온 지역, 종족, 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세계이다.

---

# ‘澶淵之盟’과 11세기 초 東北亞

---

• 이장욱 (동북아역사재단) •



# ‘澶淵之盟’ 과 11세기 초 東北亞

2017년 5월 20일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이 장 욱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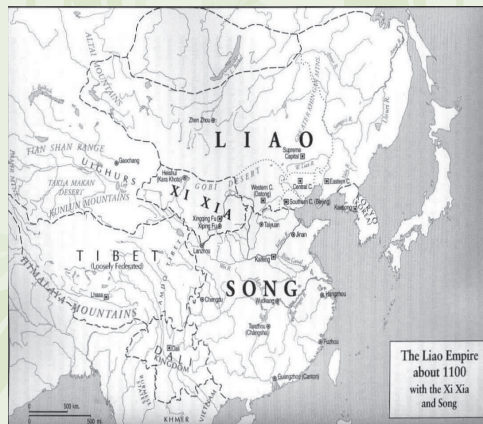
- ‘澶淵之盟’과 관련 사료, 연구
- 唐朝의 멸망과 11세기 동아시아
- 五代十國과 北宋의 통일전쟁
- 高麗와 遼宋관계
- 遼의 고립과 宋, 高麗와의 전쟁
- ‘澶淵之盟’ 전개과정
- ‘澶淵之盟’과 11세기 동북아
- 오늘날 주변 4대 강국과 한반도

## ‘澶淵之盟’ 과 관련 사료, 연구

- 역사상 ‘澶淵之盟’이란? 澶州 (澶淵의 아명, 河南清豐縣)
- 正史, 編年體, 筆記, 文集, 墓誌銘 등 考古資料
- 예) 新舊五代史, 宋史, 遼史, 高麗史, 高麗史節要, 資治通鑑, 續資治通鑑長編, 東都史略 등
- 韓中日 3국 및 歐美 지역 주요 저작 및 논문
- 예) 周寶珠 등, 簡明宋史 (1985); 方豪, 宋史 (1988)
-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5 Part 1 (2009), Volume 5 Part 2 (2015)와 Volume 6 (1994)*
- David Curtis Wright, *From war to diplomatic parity in eleventh-century China* (Brill, 2005)

## 唐朝의 멸망과 11세기 동아시아

- 遼(契丹) 907-1125
- 北宋 960-1126
- 高麗 918-1392
- 平安(헤이안) 794-1185
- 女眞
- 西夏 982-1227
- 甘肅 티베트 등
- 越南 李王朝 1009-1225
- 大理 937-1253



## 五代十國과 北宋의 통일전쟁

- 唐의 멸망 (907)과 분열
  - 北方: 五代 (907-960)
  - 南方: 十國 (892-979)
- 燕雲16州와 遼의 南進 (947)
  - 燕州: 오늘날 북경
  - 幽州: 오늘날 河北涿鹿縣
- 北宋의 건립과 중국통일
- 遼宋전쟁 (979, 986)
  - 宋太宗 (재위 976-997)
  - 昇天太后 (953-1009)
  - 高粱河戰 (979)과 雍熙北伐 (986)



## 高麗와 遼宋관계

- 王建의 高麗 건국 (918) 과 後三國 통일 (936)
- 麗宋국교수립과 문화교류
  - 高麗 光宗 사신 파견 (962)
  - 962-1031 28차례 사신왕래
  - 경제, 문화 등 해상 루트를 이용한 다양한 교류
- 高麗의 북방정책과 渤海의 멸망 (926)
- 高麗와 契丹 전쟁 (993-1019)
  - 和議 달성 (1019)과 宋과의 국교 단절 (1031)



## 遼의고립과 宋, 高麗와의전쟁

- 契丹은 만주와 몽고 지역에 거주하던 유목민족
- 唐朝의 멸망으로 중국 북방에 遼왕조 건국 (907)
- 渤海 정벌 (926)
- 五代 後晉으로부터 燕雲16州 획득 (936)과 북중국 침공 (946)
- 帝位 계승 쟁탈 기간 (947-982)
- 聖宗의 즉위 (982)와 공세적 군사, 외교정책
- 遼宋전쟁 (979, 986)
- 高麗와 契丹전쟁 (993-1019)
- 契丹의 宋, 高麗와 화의



## ‘澶淵之盟’ 전개과정

- 遼의 고립과 정치, 군사, 외교적 공세
- 高麗와 契丹 1차 전쟁 (993)
- 遼의 宋에 대한 침공 (999-1005)와 ‘澶淵之盟’
  - 遼의 宋에 대한 대공세
  - ‘澶淵之盟’ (1005)
- 高麗-遼 화의 달성 (1019)

*\*Song bride delivered to the Khitans*



## ‘瀋淵之盟’과 11세기 東北亞

- 10-11세기 東北亞 질서 재편
  - Multi-State Empires와 Balance of Power
  - 중국포위
  - 100년의 평화 기반 구축
- 契丹의 고립탈피 및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승리
  - 遼 (契丹) 중심의 동북아 국제질서 형성
  - 遼宋 형제국의 관계 수립
  - 高麗 와 宋의 遼에 대한 朝貢



## 오늘날 주변 4대 강국과 한반도

- 美中 패권 경쟁 사이의 한반도
  - 20-21세기 동맹국 미국
  - 전통의 동아시아 패자 중국
  - 南北韓과 통일문제
  - 공동번영 아니면 제2의 ‘Cold War’
- 韓國과 日本의 관계
  - 과거사 문제
  - 공존 or 대결
- 한반도와 러시아의 관계



---

# 공간으로 본 근대 서울

---

• 김종근 (동북아역사재단) •



# 공간으로 본 근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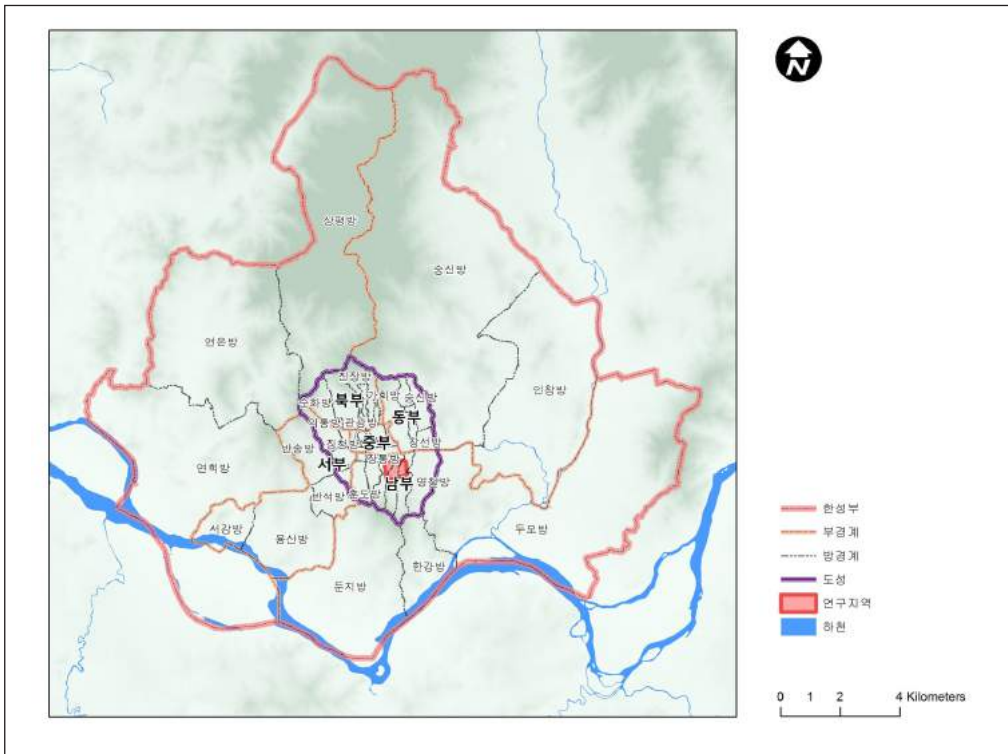
김종근 (동북아역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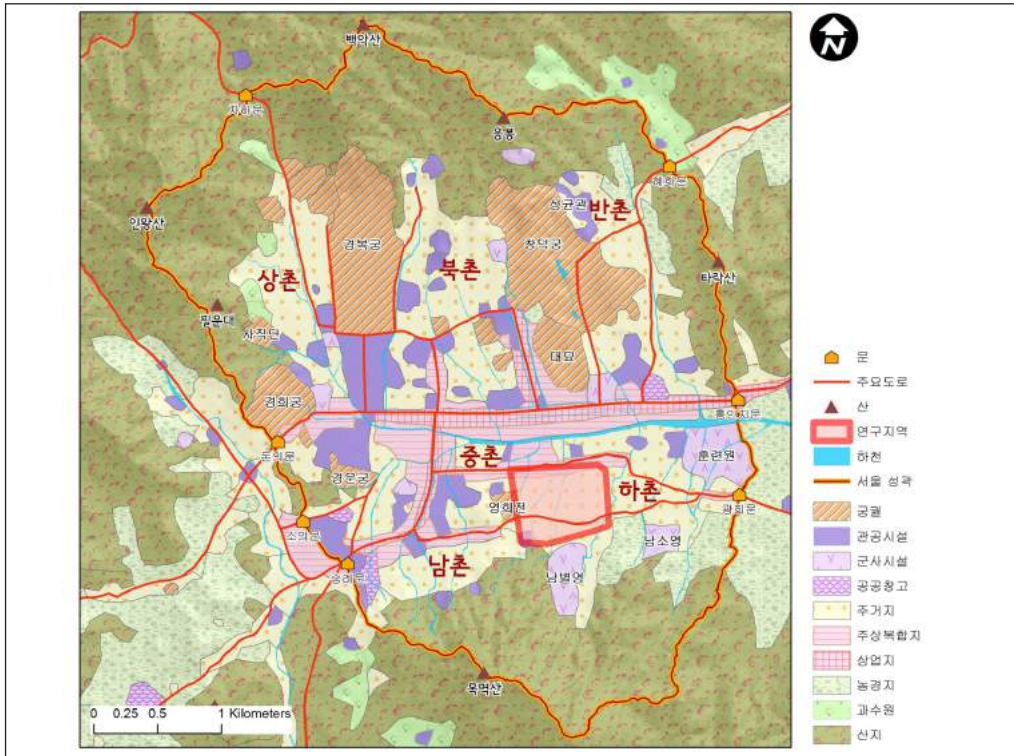
## 목차

- 1. 조선후기
- 2. 개화기
- 3. 일제강점기

# 1. 조선후기 서울의 공간

- 한양도성 성내
  - 왕실관련 공간(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
  - 행정공간(의정부 및 6조)
  - 군사공간
  - 상업공간: 운중가, 이현, 칠패
  
- 도성 외 성저십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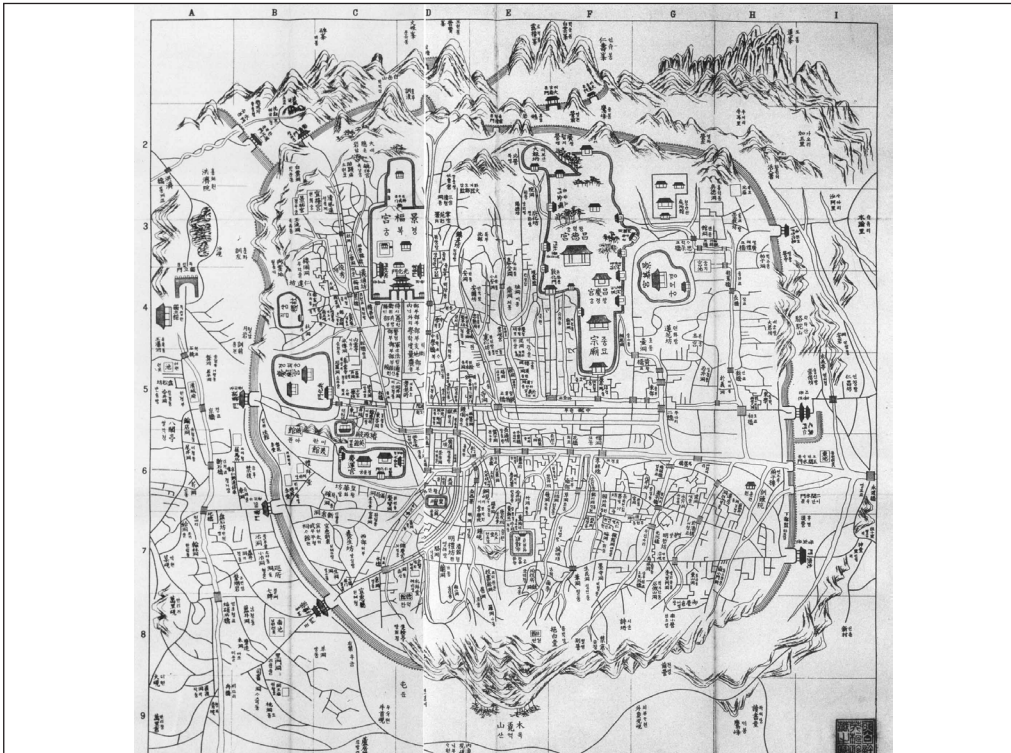
## 경복궁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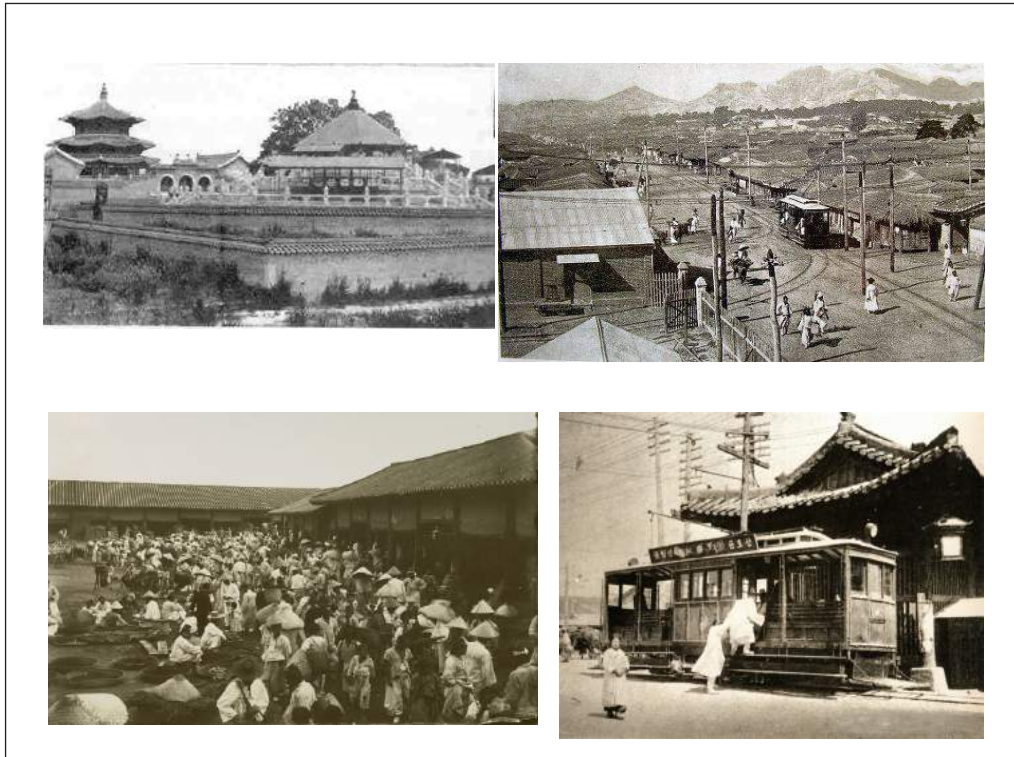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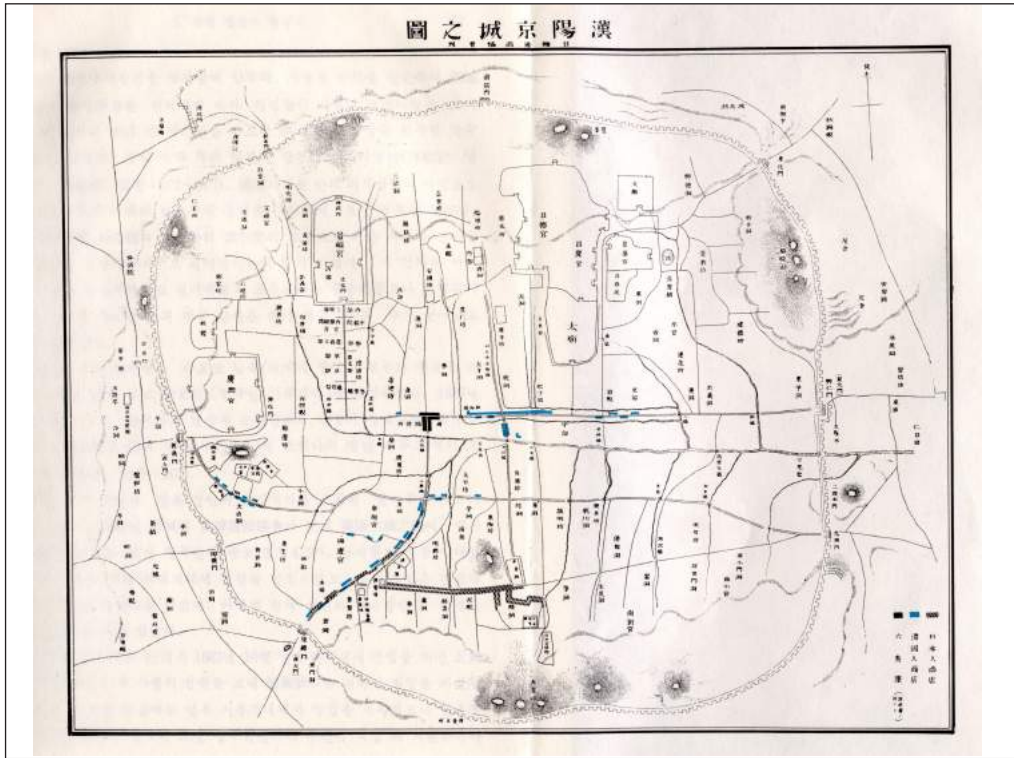
- 경복궁
  - 조선왕조의 정궁
  - 임진왜란 당시 소실
  - 흥선대원군에 의한 복원(1868년)
    - 조선 왕실 권위 세우기



## 2. 개화기 서울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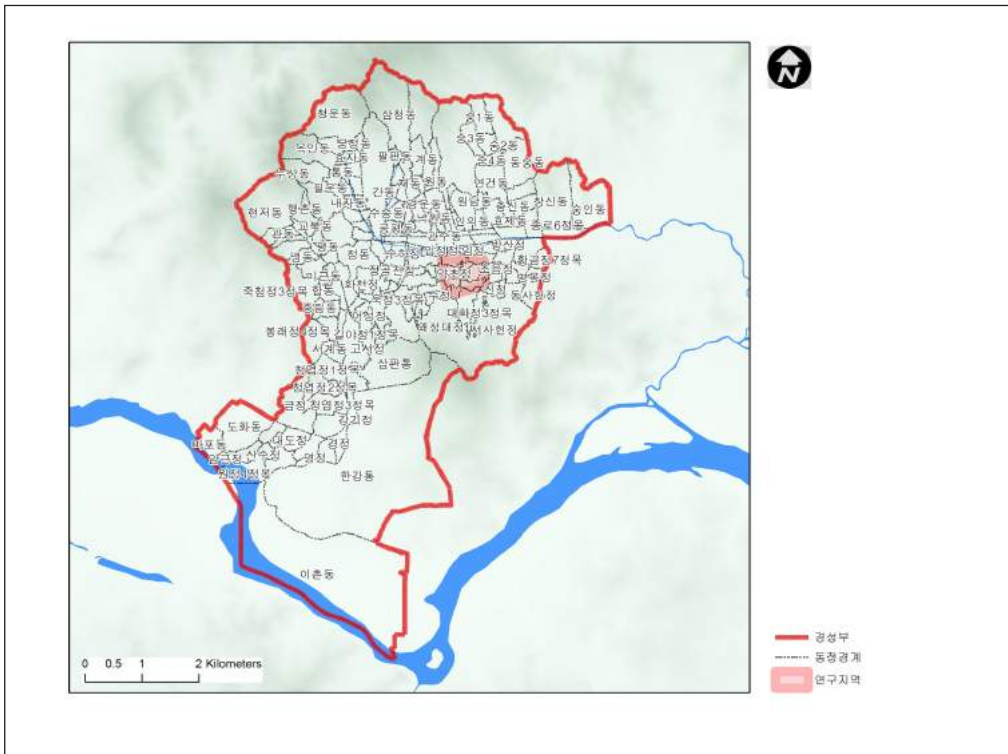
- 개항 이후 서울의 변화
  - 외국 공사관 및 외국인 거주지의 형성
    - 서구인: 정동 일대
    - 청국인: 명동 일대
    - 일본인: 충무로 일대
  - 도시개조사업
    - 황제의 도시
    - 도로신설 및 확장
    - 근대식 시장 형성: 창내장
    - 전차 부설, 서구식 건축물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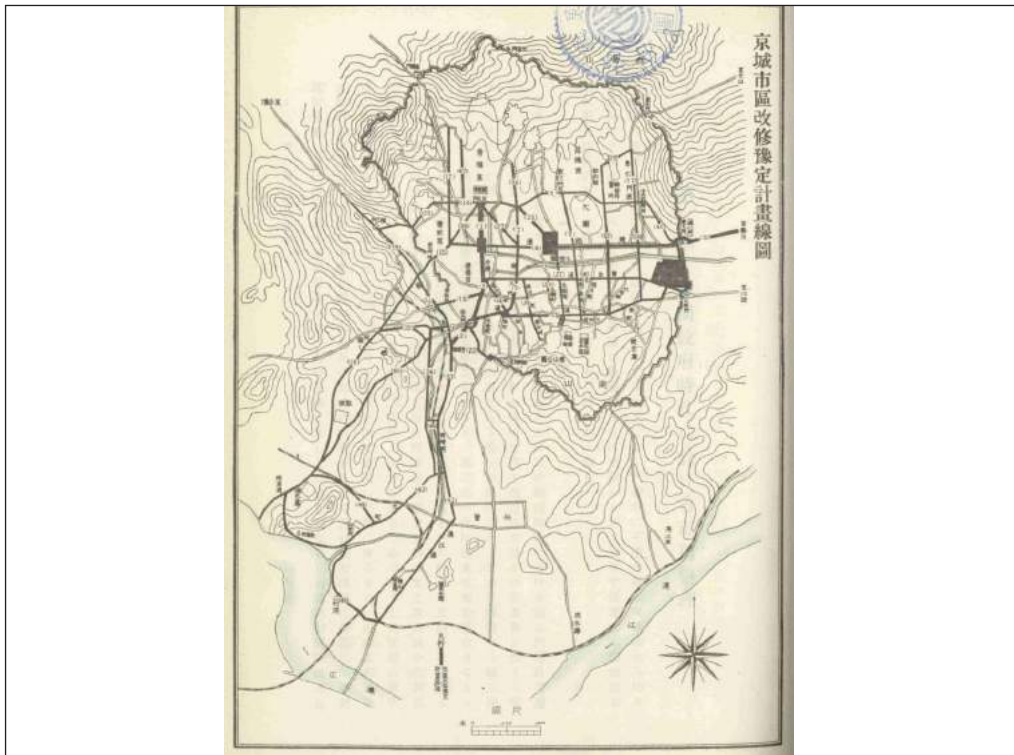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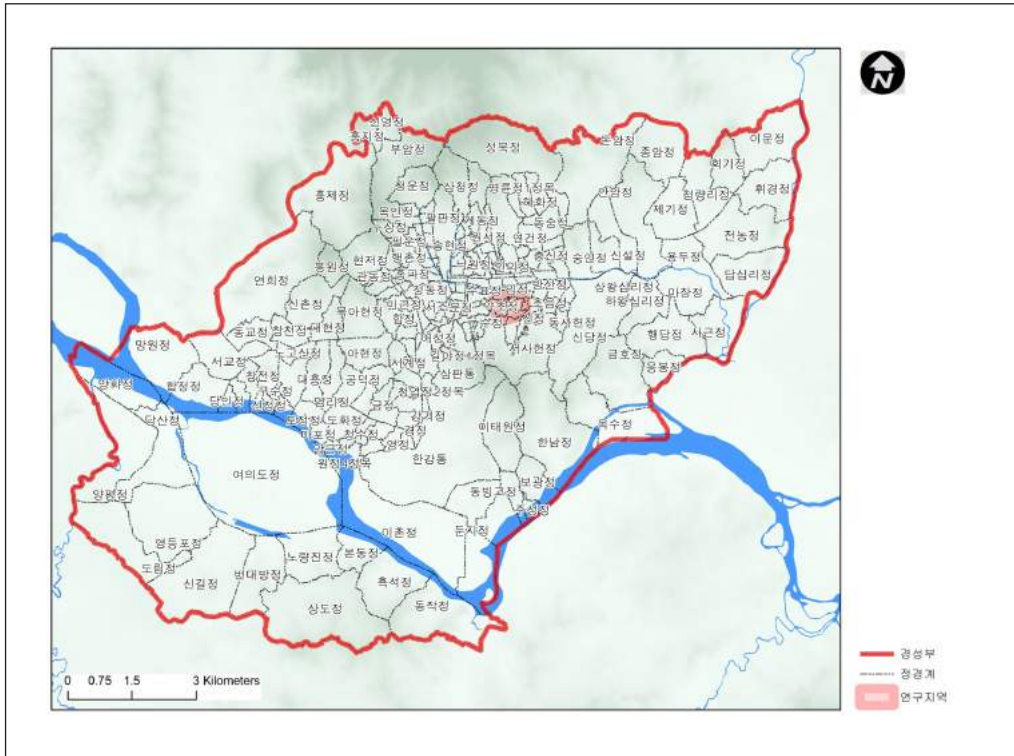




### 3. 일제강점기 서울의 경관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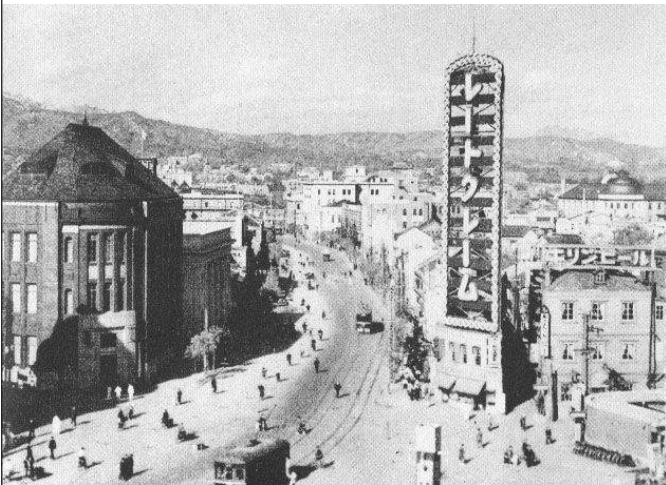
- 명칭의 개칭
  - 한양, 한성 → 경성
- 행정구역변화
  - 행정구역 축소(1914년), 대경성(1936년)
  - 일본식 지명의 등장
- 도시계획의 도입
  - 시구개정사업
  - 도시계획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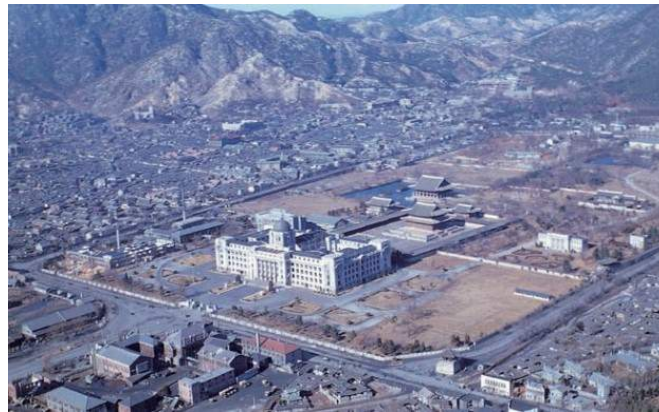
- 일본제국주의적 시설 및 행사
  - 조선총독부
  - 동양척식주식회사
  - 신사(조선신궁, 경성신사)
  - 유곽
  - 박람회
- 근대 도시화와 도시 문제
  - 자본주의화
  - 주택부족과 토막민

## 자본주의화





## 조선총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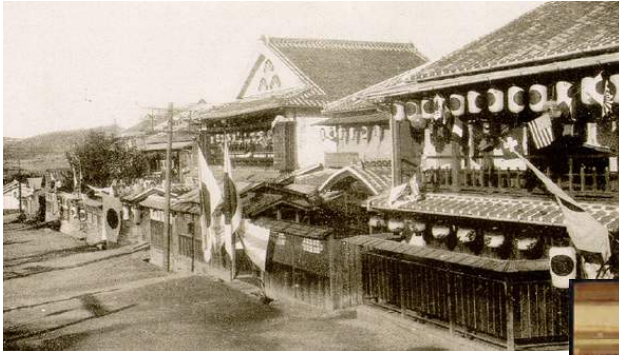
# 동양척식주식회사



# 조선신궁



## 신마찌 유곽



## 공진회(박람회)





---

# 조선시대 한성(漢城)의 공간구조와 종묘(宗廟)

---

• 이수일 (연세대 사학과) •



# 조선시대 한성(漢城)의 공간구조와 종묘(宗廟)

이수일 (연세대 사학과)

## 1. 조선의 왕도(王都) 한성의 공간구조

최1392년 7월 고려 개경 만월대 수창궁(壽昌宮)에서 왕위에 오른 이성계는 민심을 일신하고 새 왕조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1394년(태조 3) 11월 한양(漢陽)으로 천도하였다.<sup>1)</sup> 한성<sup>2)</sup>은 ‘백성의 주인’(=民主)<sup>3)</sup>인 ‘왕’의 공간이다. 그렇기에 한성은 조선의 여러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조선 팔도 모든 지방보다 높은 중심이자 중앙, 으뜸이자 모범이었다.<sup>4)</sup>

따라서 조선의 왕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먼저 고려된 바가 ‘땅과 공간에 대한 사유구조’인 ‘풍수지리’였다. 1394년 8월말 도평의사사가 한양천도를 강력하게 주장한 건의문에서 “한양은 안팎 산하의 형세가 빼어나고, 사방의 도리가 고르고, 배와 수레가 통하니, 이곳에 도읍을 정하여 후세에 영구토록 전승하여 천인(天人)의 뜻에 합하시라”고 하였고, <<동국여지승람>>에서는 한성의 지세를 “동방의 제일이요 천하의 요해지(要害地)”라고 하여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었다. 말하자면 한성은 왕도에 어울리는 뛰어난 인문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었다. 이 땅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산하의 형세가 빼어났고, 육로와 수로교통의 요지로서 왕도의 자격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거기다가 고려 말 조선 초 정치적 격동기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한성은 결코 낮은 공간은 아니었다.<sup>5)</sup>

1) ‘양(陽)’이란 산의 남쪽, 강,의 북쪽이라는 뜻으로, 한양은 북한산의 남쪽 기슭, 한강의 북쪽이라는 의미이다.

2) 1395년(태조 4) 6월에 한양부를 한성부로 개칭했다.

3) 민주(民主)는 본디 유교정치이념에서 ‘백성의 주인’ 곧 황제/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근대이후는 ‘백성이 주인’이라는 의미로 전환됨.

4) 《수선전도(首善全圖)》(1892년)는 김정호가 만든 한성의 목판지도이다. 이때 ‘수선’은 모범이 되는 곳 즉 서울을 의미한다.

5) 고려 중기부터 남경(南京)으로 승격되어 개경·서경과 함께 고려 3경의 하나였으며, 고려 말에는 기운이 쇠한 개성을 대신하는 새로운 도시로 주목받았다. 고려 숙종 9년(1104년)에 남경으로 승격되고 남궁(지금의 경복궁 일대로 추정)을 조성하였다. 공민왕대 개혁정치의 일환으로 남경천도를 시도했으나 불발되었다. 공양왕대에는 5개월간 남경에 천도 후 개경으로 복귀하였다.

조선이전의 서울공간의 역사는 깊고도 오래되었다. 서울은 한강을 끼고 선사시대부터 선사인의 삶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특히 1978년 경기도 연천 전곡리 한강변에서 발견된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당시 세계 고고학계의 통설-약명 높은 미국 하버드 대학 모비우스 교수의 ‘구석기문화 이론론’을 정면으

한북정맥<sup>6)</sup>의 끝자락에 위치한 한성은 삼각산<sup>7)</sup>을 배산(背山)으로 한강을 임수(臨水)로 삼고 있으며, 내사산(內四山)과 외사산(外四山)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쪽 삼각산과 마주보는 남쪽 산이 관악산이며, 서쪽으로는 행주산성이 지키고 있는 덕양산(德陽山)이 있고, 동으로는 삼국시대 고구려 군이 쌓은 산성이 들어서 있는 아차산이 있다. 한양의 외곽을 에워싼 이 4개의 산(삼각산-관악산-덕양산-아차산)을 외사산이라 하며, 그 안쪽 사방을 에워싼 작은 4개의 산을 내사산이라 한다. 내사산에는 경복궁의 배산인 백악산(白岳山, 도성의 진산)을 축으로 그 맞은 편 남쪽에 목멱(木覓, 남산)이, 백악의 두 날개처럼 동서 좌우로 인왕산(仁王山, 우백호)과 낙산(駱山, 좌청룡)이 솟아 있다. 내사산의 평지와 산마루를 빙 둘러 연결한 것이 한양도성의 성곽이다. 평지성과 달리 한성은 자연방어선이 잘 구축되었기에 도성성곽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 성저십리(城底十里)는 제한된 지역에만 주거가 허용된 일종의 그린벨트지역이다. 지금의 서울시에 해당하는 한성부가 도성과 성저십리를 5부(동부·서부·중부·남부·북부) 52방(坊)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였다.

한성도성은 개천[開川=청풍계천(淸風溪川), 일제 때 동(洞)지명 정리 과정에서 청계천(淸溪川)으로]을 경계로 북촌과 남촌으로 공간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백악을 배산으로 개천을 임수로 삼고 있는 북촌에 종묘와 사직, 궁궐과 관아, 시전이 계획적으로 배치되었다.

종묘는 조종(祖宗)을 봉안하여 효성과 공경을 높이는 곳이고, 궁궐은 국가의 존엄성을 보이고 정령(政令)을 내는 곳이며, 성곽은 안팎을 엄하게 하고 나라를 굳게 지키려는 것으로, 이는 모두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sup>8)</sup>

군신공치(君臣共治)의 중세적 통치행위가 발하는 정치공간인 한성은 유교적 조영원리(造營原理)에 입각한 계획도시이다. 황도/왕도의 공간은 중국 주(周)나라의 관직제도를 기록한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에서 제시된 ‘좌묘우사(左廟右社)’, ‘전조후시(前朝後市)’를 공간배치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로 부정하는 첫 발견이었다. 암사동에서 신석기 집자리 유적이 발견되었고, 청동기 유적은 서울 강남·강북 일대에서 대거 존재한다. 역사시대에는 무엇보다 한성백제의 심장이며, 백제 역사의 2/3가 이곳 서울 일대에서 펼쳐졌다. 한성 백제의 파괴로 한동안 역사의 수면아래 있었지만, 나말여초 서울과 한강일대는 왕건파 호족의 주요한 근거지이기도 했다.

6) 한북정맥은 《산경표》에서 언급된 우리 땅 13정맥의 하나로, 백두대간→강원도 평강군 추가령→한강과 임진강에 이르는 산줄기이다.

7) 삼각산은 한양의 진산(鎭山)이며,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삼각산(三角山)[도성 밖 정북(正北)에 있으니, 일명(一名)은 화산(華山)이다. 신라 때에는 부아악(負兒岳)이라 일컬었다] 도성(都城)의 진산(鎭山)은 백악(白岳)이다. [산정(山頂)에 사당(祠宇)이 있어서 삼각산의 신을 제사 지내는데, 백악을 붙여서 지낸다. 중사(中祀)로 한다]”(세종실록) 지리지 148)라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중종)에 따르면, 삼각산은 인수·백운 만경의 세 봉우리가 우뚝 솟아 세 개의 뿔과 같이 생겨 붙여진 이름이며, 화산(華山)·화악(華嶽)이라고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8)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11월 기해

종묘와 사직은 곧 ‘유교·농업국가’의 자체이자 왕조의 이념적 실제적 기초였다. 그렇기에 황제/왕의 법궁(法宮, 정궁)의 왼쪽과 오른쪽에 종묘와 사직을 배치하여 전제권력의 두 축으로 삼고 있다. 종묘가 천명(天命)을 위임받은 왕조의 피의 정통성 정치적 정당성을 드러내는 곳이라면, 땅과 곡식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사직단은 만백성을 먹여 살려야 하는 농업 국가의 간절한 경제적 염원을 담고 있다. 종묘와 사직을 딛고 선 황권/왕권은 법궁 앞에 중앙 관청을, 법궁 뒤편에 시장을 배치하였다.

그런데 전조후시는 도성이 위치한 자연조건에 따라 다소 변화된 모습으로 관철되기도 했다. 북경(北京)처럼 사방팔방이 확 트인 평지성의 경우 전조후시는 자연스럽게 관철되었다. 본디 《주례》 고공기의 전조후시란 평지성을 전제로 하였다. 중앙에 법궁이 위치하고, 법궁 앞에 관청, 그 뒤편에 시전이 자리 잡았다. 그와 달리 당나라 수도 장안(長安)이나 조선의 한성처럼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인 경우에는 법궁이 북쪽에 위치하기에,<sup>9)</sup> 중앙관청(육조거리)<sup>10)</sup>에 연이어 시전을 배치하는 방식이 취해졌다.

조선의 궁궐은 기본적으로 법궁(法宮)과 이궁(離宮)의 ‘양궐체제’(兩闕體制)로 운영되었으며,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양궐의 구조에 변화를 보였다. 태조에서 임난 전까지는 경복궁이 법궁이고 창덕궁이 이궁이었다. 임난 후(광해군)에서 고종 대 경복궁이 중건되기 전까지 창덕궁이 법궁으로, 경희궁이 이궁으로 기능했다. 고종 대 경복궁이 중건되면서 조선전기 체제로 복귀하였다. 1897년 대한제국 선포 후에는 ‘근대적 입헌군주’의 격에 어울리는 ‘황제궁’으로 경운궁(慶運宮)이 조성되었지만, 일제의 침략으로 미완에 그쳤다. 궁궐들은 위치에 따라 북궐(北闕, 경복궁), 동궐(東闕, 창덕궁/창경궁), 서궐(西闕, 경희궁)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성도성은 주자학적 자의식이 철저하게 녹아있는 완벽한 수평의 스카이라인을 이루었다. 황제의 격이 아니라 왕의 격이기에, 도성 안에는 궁궐(2층)을 제외한 수많은 1층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섰다. 그 속에서 한성부민들이 왕과 함께 살았다. 임난 이전에는 대략 10만을 헤아렸지만,<sup>11)</sup> 임난 이후 격심한 사회변동으로 도성안팎을 합쳐서 20만으로 폭증했다.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은 거주제한 지역인 성리 10리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 한성부는 내사산 비탈에 들어선 무허가 건물의 철거에 골머리를 앓았다.

그에 따라 도성을 경계로 공간적 차별의식이 자연스레 발생하였다. 도성 안에 사는 사람

9) 법궁을 북쪽에 배치하는 것은 북쪽을 중시하는 북극성 사상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북극성 사상의 기원은 적어도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0) 광화문 앞 지금의 세종로는 ‘육조(六曹)거리’였다. 동편으로는 의정부, 이조, 한성부, 호조, 기로소(耆老所)가, 서편으로는 예조, 병조, 사헌부, 형조, 공조, 장예원 등 국가의 중추적인 관서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11) 1428년(세종 10) 한성이 호구와 인구를 보면, 성안에 1만 6,921호, 10만 3,328명의 인구가 거주했고, 성저10리에 1,601호, 6,044명이 거주하였다.

들은 도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을 무척 깔보고 업신여겼다. 물론 도성 안에 거주하더라도 북촌과 남촌이라는 또 다른 공간적 차별의식이 존재하였다.

도성 안 중심공간은 북촌이다. 궁궐과 여러 국가기관들이 있고, 또한 집권양반관료들의 거주지이기도 했다. 출퇴근이 편리한 경복궁과 창덕궁사이의 공간은 집권 관료세력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이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 북촌은 군신공치의 실제적 공간이었다. 물론 같은 북촌이라고 해도 경복궁 서쪽 인왕산 기슭은 조선후기 서얼과 경아전소속 중인들의 집거지로 양반 북촌과 구별하여 서촌(西村)으로 불리었다.<sup>12)</sup> 서얼 중인층의 신분적 한(恨)이 깃든 곳이기도 하다.

한편 북촌의 집권성에 비해 남촌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다. 조선후기 남촌에는 시대상인·직업군인·몰락양반의 거주지로 유명했다. 가난했지만 기개만은 꺾지 않았던 몰락양반은 ‘남산골 샌님’, 돈이 없어 나막신을 신고 다녔다고 해서 ‘딸각발이’로 불렸다. 남촌의 샌님이 북촌에 와서 코를 막고 ‘북촌에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소리치면서 비정(秕政)을 비꼬기도 했다. ‘남촌은 술이 유명하고 북촌은 떡이 유명하다’는 말은 그와 같은 공간적 특징을 반영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청계천은 이름과 달리 도심으로 흘러가면서 하수천이나 다름없었다.<sup>13)</sup>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영조는 ‘개천준설’을 자신의 치세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거듭 자찬하였다. 1950년대 말 어느 시인은 이름과 실재가 맞지 않은 오물로 썩은 청계천을 당시 정치현실과 빗대기도 하였다. 1960년대부터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진 청계천이 다시 열려 임수(臨水)의 기능을 회복(?)하였다. 청계천 다리에서 행하는 세시풍속으로는 정월에 액을 날려 보내는 연날리기와 다리 밟기가 유명하다.

도성 안은 항시 공간이 부족했다. 농사를 짓거나 능(陵)을 조성할 수 없다. 그런데 태조 이성계 재위 시에 도성 안에 능이 조성되었다. 정릉(眞陵, 정동=정릉이 있었던 곳)이다. 경복궁 근정전 상월대에 서서 오른쪽으로 약간 눈길을 돌리면 서대문 앞 언덕에 이성계의 둘

12) 내시들은 지금의 효자동이나 사직단 부근에 많이 모여 살았고, 성균관 소속 노복들은 성균관 부근. 오늘날의 명륜동 일대에 주로 살면서 현방이라 불리는 푸주간을 개설함으로써 부를 축적하였다.

13) ㉠ “성안에서 나오는 분노를 다 수거하지 못해서 더러운 냄새가 길에 가득하며 냇가 다리 옆 석축에는 사람의 똥이 더덕더덕하게 붙어서 큰 장마가 아니면 씻기지 않는다”(박제가 《북학의》)

㉡ “모든 오물이 불결하고 좁은 도랑으로 흘러내려 도랑은 종종 폐물로 막혀 도로로 흘러넘칠 정도가 되었다. 녹색의 이끼 낀 물웅덩이는 정원과 길가에 있고 우물은 가까이에서 더러운 의복을 세탁한 배수로 오염되어 있으며 썩은 아채들이 도로와 집의 창문아래에 수북히 버려져 썩고 있다”(《상투의 나라》)

㉢ “내(=비습)가 북경을 보기 전까지 서울이 세상에서 가장 불결한 도시라고 생각하고 소흥을 가보기 전까지는 서울의 냄새가 가장 지독하다고 생각했다”(《한국과 그 이웃나라》)

㉣ “보이는 것이 더러운 물건이요 냄새마다 구린내요 길은 개천을 겸하고 개천은 뒷간을 겸하여 비가 조금오면 추잡함을 형용못하고 일기 더우면 염질이 떠날 때가 없다”(《독립신문》 1897년 3월 30일)

째부인이자 조선의 첫 왕후 신덕왕후 강씨가 잠들어 있었다. 정치적 사이가 극도로 나뉘었던 태종은 한성의 도시정비과정에서 정릉을 지금의 성북구로 이장하고, 개천을 열은 다음 정릉의 석재들을 광통교 상판으로 사용했다. 그렇게 오가는 사람들이 무심하게 짓밟고 다니게 했다.

도성에는 성 안과 밖을 연결하는 8개의 문이 있다. 동서남북 사방에 사대문(四大門)을 내고, 팔방에 사소문(四小門)을 달았다. 사대문의 이름은 사람이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인 오상[五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한 덕목씩 붙여지었다. 동대문은 흥인지문(興仁之門), 서대문은 돈의문(敦義門), 남대문은 숭례문(崇禮門), 북대문은 숙정문(肅靖門)<sup>14)</sup>이라 했다. 사소문의 이름을 보면, 동소문은 혜화문(惠化門), 서소문은 소의문(昭義門), 남소문이 광희문(光熙門)<sup>15)</sup>, 그리고 북소문이 창의문(彰義門) 별칭으로 자하문(紫霞門)이라 하였다.<sup>16)</sup> 사대문에 이르는 길은 대로(大路)이고, 사소문에 이르는 길은 중로(中路)였다. 조선후기 대로의 일부 구간이 가건물로 뒤덮여 소로(小路)처럼 되었다.<sup>17)</sup> 유명한 소로로 피맛골이 있다. 사람들이 고관대작의 요란스런 행차를 피해(=避馬) 중로 뒷골목으로 다녔다. 자연히 그 골목길에는 오가는 서민들이 요기할 수 있는 음식점이 들어섰다. 일제 때 종로상인들이 상권 진흥을 위해 종로 야시장을 개설하기도 했다.

동서남 대로의 가로에 관설상점(官設商店)인 시전(市廛)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시전은 북촌과 남촌에 걸쳐 'J'모양을 취하고 있다. 북촌에는 지금의 광화문 4거리에서 동대문까지, 남촌에는 종로 네거리에서 남대문(롯데백화점-한국은행-남대문)에 이르는 가로에 시전이 늘어서 있었다. '구름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가로'라 하여 운종가(雲從街)로 불렸다. 이 가로에 행랑을 짓고, 각종 상점과 관청, 약간의 수공업공장이 들어섰다.<sup>18)</sup> 시전의 정비는 1410년(태종 10) 2월 판매물종별 구역이 획정된 이래, 1412년 2월부터 세 차례의 공사 끝에 2,027칸의 시전행랑이 조성되었다.<sup>19)</sup>

도성의 성곽은 한양천도 2년 후인 1396년(태조 5)에 처음 축조하였다. 그때는 험한 지역은 돌로, 평탄한 지역은 흙으로 쌓았다. 1~2월과 8~9월 각 49일 동안 성곽을 쌓았다. 백악산-낙산-남산-인왕산-백악산을 잇는 5만 9,500자(18.2km)의 축성공사에 전국에서 약

14) 靖=첩으로 서로 통하는 글자이다.

15) 소의문과 광희문은 도성의 시구문(屍驅門)이다.

16) 동(東)=춘(春), 서(西)=추(秋), 남(南)=하(夏), 북(北)=동(冬)으로 시간과 공간의 일치를 보게 된다. 경복궁의 동쪽 문이 건춘문(建春門), 서쪽 문이 영추문(迎秋門), 서쪽 보조편전이 천추전(千秋殿), 동쪽 편전이 만춘전(萬春殿)이다.

17) 대한제국의 한성도시개조사업에서 가건물이 다 철거되고 대로의 본 모습을 회복하였다.

18) 조선 국가는 공설 행랑점포를 상인들에게 대여하여 점포세/상세(商稅)를 받았다.

19) 이들 상점 중에서 국가수요에 응하고 독점적 상업특권을 부여받은 6개 큰 상점을 육의전 혹은 주비(注非)라 했다. 중국 비단을 파는 선전,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단을 파는 면주전, 국산 면포를 파는 면포전, 국산 마포를 파는 포전, 저포와 황저포를 파는 저포전, 중국의 거친 베를 파는 청포전, 각종 종이를 파는 지전, 각종 건어물을 파는 내외어물전 등이다.

20만 명이 동원되었다. 1422년(세종 4)에 도성을 수축할 때 약간 둥그렇고 한 변이 약 30-40cm되는 자연석으로 석성을 쌓았다. 다시 1704년(숙종 30) 도성을 수축하면서 한 변이 60cm정도 되는 반듯한 돌을 맞추어 쌓았다.

성벽 안팎을 살펴보면 글자가 새겨진 돌(각자석)이 보인다. 조선시대 ‘공사실명제’의 흔적이다. 이전부터 성벽 쌓는 일이 고역 중의 고역이었기에, 실명각인을 통해 무한책임을 강제했다. 태조 때 천자문의 글자 순으로 공사구간을 정했다. 전체를 97개 구간(1구간이 약 180m)으로 나누어 각 군·현에 할당했다. 백악산 정상에서 ‘하늘 천(天)’자로 시작해 낙산·목덕산·인왕산을 거쳐 다시 백악산에서 ‘조상할 조(用)’자로 끝난다. 각자석에는 할당된 공사 구간의 시작과 끝 표시, 담당할 지역 명, 날짜, 책임자 등이 새겨져 있다.<sup>20)</sup> 1898년 전차가 놓이면서 흥인문과 돈의문 주위의 성곽이 일부 헐렸고, 이후 일제 통감부와 조선총독부에 의해 도성 성벽이 본격적으로 허물어졌다.<sup>21)</sup>

남산 정상에는 목덕산 산신(山神)을 모신 목덕신사[木覓神祠=목덕사(木覓祠)=국사당(國師堂)]과 봉수대가 있었다. 1395년(태조 4) 12월에 목덕산의 산신을 목덕대왕으로 봉하고 목덕신사를 세워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혹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제사를 올렸다. 가뭄이 들면 백악(백악사)과 한강(한남진 일대) 그리고 목덕사에서 기우제를 지냈고, 국가 대사나 왕실에 우환이 있으면 목덕산에 빌기도 했다.<sup>22)</sup> 남산을 비롯한 내사산 기슭에는 왕궁을 엿본다는 이유로 민가의 건물을 짓지 못하게 했으며, 금송(禁松)지대로서 누구도 소나무를 벌채하지 못했다. 남산은 내사산 중에서 가장 그윽한 풍경을 간직하고 있어, 사대부들은 남산기슭에 정자를 만들어 풍류와 완상을 즐겼다. 특히 목덕상화(木覓賞花):봄에 진달래 구경)는 한성10경의 하나였다.<sup>23)</sup>

20) 태조 때 각자석에는 구간과 지역명, 날짜를 주로 새겼으나, 조선 중기 이후 각자석엔 감독관, 책임기술자 등의 이름까지 명기되어 있다.

21) 1907년 7월 30일 일제 통감부는 ‘성벽의 훼손과 기타 이에 관련한 일체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성벽처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해 10월 한성을 방문하는 일본 왕자 요시히토(嘉仁, 나중에 大正)가 조선의 비루한 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이유로 남대문 좌우의 성벽을 헐었다. 그로부터 성벽은 본격적으로 허물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22) 1925년 일제가 조선신궁을 세우면서 국사당을 인왕산 선바위에 옮겼다.

23)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조선 초기 남산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경치 8가지는 첫째 ‘운횡북궐(雲橫北闕)은 남산에 올라 저 건너 북쪽에 자리하여 구름 속에 어른거리는 경복궁을 바라다 보이는 경치가 좋고,

둘째 ‘수창남강(水漲南江)은 장마철에 불어난 한강물이 모래톱 휩쓸어 흐르는 중에 하늘가로 떠내려가는 배 아득하게만 보이는 광경이 좋고,

셋째 ‘암저유화(巖底幽花)는 산 속은 녹음이 우거지고 골짜기 바위 틈의 기이한 풀 향기 그윽하여 좋고,

넷째 ‘영상장송(嶺上長松)은 산마루 위 우뚝 솟은 소나무들이 공중을 버티고 흰 구름 두동실 떠 노는 고요한 밝은 달 휘영청 흥청이는 광경이 불만하다.

다섯째 ‘삼춘답청(三春踏靑)은 북쪽 편과는 달리 남쪽 기슭은 벌난 동천이라 봄철이면 꽃 좋고 바람 맑고 풀이 포근하여 색다른 정서를 자아내니 좋고,

여섯째 ‘구월등고(九月登高)는 하늘 맑은 구월 초승 붉은 단풍잎 먼 골짜기에 새빨갳고 푸른 소나무 층층마다 둘러온 속에서 술 마시고 시 읊는 운치 또한 제격이며,

일곱째 ‘적현관등(陟獻觀燈)은 4월 8일 성안 집집마다 연등놀이 성대하여 밤 하늘은 대낮 같이 밝아 남산에서 내려다 보는 그 구경 밤새도록 흥을 일구니 좋고,

여덟째 ‘연계탁영(沿溪濯纓)은 천천히 흐르는 맑은 냇물가에서 흐르는 물에 갠 씻고 붉은 꽃잎 동구 밖으로 떠내려 가는 것을 보노라면 바로 도원경이 예가 아닌가 싶어 좋다는 것이다.

남산의 봉수대(烽燧臺)는 1406년(태종 6)에 설치되어 갑오개혁 때 혁파되었다. 봉은 햇불(밤)이고, 수는 연기(낮)다. 남산 봉수대는 전국의 봉수를 받아 국경이나 해안의 이상 유무를 병조에 보고하고, 병조는 매일 새벽 승정원에 보고하여 임금에게 알렸다. 어느 변경에 위치한 봉수대에서 올린 봉화이든지 대략 12시간이면 남산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봉수역이 고역이기에 도망하는 자나 업무태만 자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봉수의 장점인 신속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불통되거나 전달 소요시간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고 정확성마저 떨어졌다.<sup>24)</sup>

한성은 조선 최대의 소비도시로서, 전국 각지의 산물이 육로와 물길을 통해 서울로 모여 들었다. 바닷길을 통해 한강을 거슬러 올라온 배들은 마포·서강·용산에 닿았고, 남한강과 북한강을 타고 내려온 배들도 광진·송파·두모포·한강진·동작진 등에 닿았다. 이들 한강나루에는 돛 2개를 단 배와 돛 1개를 단 배들로 뽐냈다. 지금은 100층이 넘는 최고층 빌딩을 자랑하는 그 일대에 부상과 보상들이 모여든 송파장이 있었고, 마포 서강에는 도성 안 물가를 들었다 놓았다 했던 경강상인의 본거지였다. 특히 돈과 사람들이 몰렸던 마포나루(=삼개나루)에는 마포삼주(객주-색주-당주)로 유명하였다. 이들 나루들은 관진(官津)과 사진(私津)으로 운영되었고, 지금은 모두 한강다리로 연결되었다.

1897년 대한제국의 선포로 왕도 한성은 ‘근대적 입헌군주’<sup>25)</sup>의 격에 맞는 근대적 황도(皇都)로 변모해갔지만, 1910년 일제강점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황도의 공간적 주체성은 사라지고, 일제에 의해 조선지배의 중심 경성(京城)이 만들어 지게 된다.<sup>26)</sup> 불행하게도 여전히 일제 이식자본에 의해 구축된 식민도시 경성의 기억이 한국인들에게 ‘왜곡된 서울의 현대성’으로 기억되고 있다.

24) 경기·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관찰사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대전(大典)》 봉수조(烽燧條)에, ‘평시에는 햇불 1개, 적이 형상을 나타내면 햇불 2개, 국경에 가까이 오면 햇불 3개, 국경을 범하면 햇불 4개, 접전하면 햇불 5개’라고 하였는데, 지난 정월 28일 전라도 순천부 돌산포와 이번 2월 2일 경상도 남해현 적량(赤梁)에 사변이 있었는데 평시의 예(例)에 의하여 햇불 하나로 서로 맞추었으니, 사변을 알리는 뜻이 아주 없었다. 각각 그 다른 경계에서 서로 맞추는 곳을 차례차례로 추국하여 아뢰라”하였다.((《성종실록》 성종 9년)

25) ‘군신공치(君臣共治)에서 군민공치(君民共治)로’, 혜정교(惠政橋)와 팽아지법(烹阿之法)-1792년(정조 16년) 정조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근래 지방을 맡은 신하들이 자신을 살피우기만 일삼고 백성의 아픔을 돌보지 않으면서 오직 장계(狀啓)속의 말들만 잘 꾸며 그것으로 눈앞만 미봉하고 죄를 면하는 방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진짜 청렴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선 도백들부터 팽아의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을 어디에 쓸 것인가? 암행어사를 보내어 각도의 도신중에 가장 청렴치 못한 도백을 붙잡아 오게 한 뒤 내가 혜정교에 직접 나아가서 한성 백성들을 불러 모아 신문하여 자백을 받은 후 형을 적용함으로써 그 도의 백성들에게 엄격히 사죄할 것이다. 성안에 혜정교가 있는 것은 바로 백성을 위해 그런 일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리하여 다리 이름도 그러한 것이다.”(《정조실록》)

26) ‘한성’에서 ‘경성’으로 전락은 ‘철저한 단절과 새로운 이식’을 의미한다. 보통명사 경성은 조선왕조실록에도 간간히 사용되었지만, 일제가 한성을 대신하여 붙인 경성은 고유명사로서 식민지배의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경복궁 외조에 조선총독부건물이 완공되자, 《경성일보》에서는 ‘은둔의 왕국에서 문화의 대경성’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은둔왕국이 19세기 중후반 서구 근대가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에서 바라본 ‘주자학조선국가’의 표상이라면, 문화의 대경성은 그 위에 덧칠된 ‘일본적 오리엔탈리즘(Japan's Orientalism)’의 표상이다. 서구근대와 일본근대가 만들어낸 이중의 지배 표상이 이 땅에 깊게 각인되었다. 존재와 물(物)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가? 누가 그런 이름을 붙이는가? 이름을 통해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고 사회적 생명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존재는 이름을 통해 드러나고 이름은 존재의 본질을 반영한다.

## 2. 종묘(宗廟) 기행 - '조선왕조를 알려면 종묘에 가라'

종묘는 천명(天命)을 통해 열린 왕조의 피의 고귀함을 드러내는 왕조의 사당으로, 유교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정치적 공간이었다. 왕조를 열은 태조의 신주(神主)를 영구히 모신다는 의미에서 태묘(太廟)라고도 한다.<sup>27)</sup> 종묘는 왕조와 생을 같이 한다. 신 왕조의 탄생은 새로운 종묘의 탄생이다. 이전 왕조의 종묘는 허물어지고 새 왕조의 종묘가 들어선다. 새 왕조는 자신의 종묘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드러낸다. 왕조의 멸망과 함께 그 왕조의 종묘도 사라진다. 그렇기에 조선왕조를 알려면 종묘에 가야 한다.

종묘에 있는 종묘는 조선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존(追尊)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조선의 종묘로서, 조선 봉건국가의 정치적 권위와 정통성을 보증해주는 공간이다. 태조 이성계는 한성에 도읍하면서 경복궁에 앞서 종묘를 먼저 건축했으며, 임난 때 피난길에 오르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도 종묘의 신위만은 안전하게 피신시켰다. 궁궐은 없어져도 종묘는 보존되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유교국가의 종교적 정치적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임난 후 궁궐보다 종묘를 먼저 복구했다.

조선의 종묘는 두 번이나 그 생을 마감했다. 1910년 일제강점으로 조선의 종묘는 정치적 죽음을 당한다. 192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는 경성 시가지정리라는 명목으로 삼각산-응봉-창덕궁-종묘로 이어지는 기맥-기운을 단절하였다. 창덕궁 돈화문 앞에서 지맥을 끊어 이화동 쪽으로 도로를 내었다. 지금의 율곡로이다. 본디 창덕궁과 종묘는 언덕으로 이어져 있었다. 땅의 논리와 흐름이 사람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풍수지리의 사유방식에 비추어볼 때, 땅의 논리와 흐름의 변질/파괴는 당연히 삶의 변질 파괴로 나타난다. 일제는 그렇게 종묘를 두 번 죽인 셈이다.

종묘제도는 중국 우(虞)나라<sup>28)</sup>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예기(禮記)> 왕제편(王制篇)에서 종묘에서 제향을 받는 왕의 신위수와 규모를 천자는 7묘, 제후는 5묘로 규정하고 있다. “천자는 7묘(廟)로 3소(昭) 3목(穆)에 태조의 묘를 더하여 7이 되며, 제후는 5묘로 2소 2목에 태조의 묘를 더하여 5가 된다”고 했다. 태조의 사당을 중앙에 놓고 2세, 4세 나아가 6세를 왼쪽에 두어 ‘소’(昭)라 하고, 3세, 5세 나아가 7세를 오른쪽에 놓고 ‘목’(穆)이라 한다. 신주는 소목으로 배치된 독립된 건물의 사당에 각각 배향되었다. 전묘후침(前廟後寢)이라 하여 신주를 모신 사당 뒤에 의관 등을 보관하는 침전을 따로 두었다.

27) 묘(廟)는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받드는 곳이다. 왕실에서는 종묘라 하고, 일반 사서가(士庶家)에서는 가묘(家廟) 혹은 사당(祠堂)이라 한다.

28) 중국 고대 요임금(堯, 唐나라)로부터 선양을 받은 순(舜)이 세운 나라.

그러나 종묘제도는 시대와 왕조의 사정에 따라 다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중국 후한(後漢)대 ‘동당이실’(同堂異室)과 ‘서상제’(西上制)로 전환되었다. 동당이실은 태조 신위를 위시한 모든 신위를 같은 건물에 다함께 모시되, 그 안에 신실만 따로 만들어 각각 배향하는 형식이다. 독립된 사당에서 동당이실로 전환되자, 신위의 배치도 서상의 원칙을 취했다. 죽은 자를 기준으로 하면 서쪽이 윗자리이다. 서쪽 끝에 태조의 신위를 놓고 그 옆으로 나머지 신위들이 차례로 배치했다. 이후 동당이실제가 지배적으로 정착했으며, 신위 배열에는 서상의 원칙과 함께 소목의 원칙도 준용되기도 했다. 송대(宋代)에는 종묘 정전 서쪽에 별묘(別廟)를 두어 7대가 지난 선왕의 신주를 옮겨 모시도록 했다.

우리 역사에서 종묘제도는 삼국시대 초기부터 시행했다. 《삼국사기》는 백제가 시조 온조왕 원년에 동명왕묘를, 신라가 남해차차웅 3년 봄에 시조 혁거세의 묘를, 고구려가 대무신왕 3년에 시조 동명왕묘를 각기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시기 종묘는 시조묘에 국한된 것으로, 《주례》나 《예기》에서 말하는 7묘나 5묘의 종묘제도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조와 역대 왕들의 신주를 함께 모시는 5묘가 처음으로 세워진 것은 신라 혜공왕 12년(776)이었다. 이때 5묘에는 미추왕을 김씨 성을 가진 국왕의 시조로 하고,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태종 무열왕과 문무왕을 ‘백세불천지주’(百世不遷之主)<sup>29)</sup>로 하여 모셨다. 고려의 종묘제도는 988년(성종 7)에 5묘로 정비되었지만, 이후 황제격인 3소 3목의 7묘제로 바뀌었다. 이 점은 고려왕조의 정치적 자의식을 엿볼 수 있다.

조선의 종묘제도는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즉위 교서에서 “천자는 7묘, 제후는 5묘, 궁궐 왼쪽에는 종묘, 오른쪽에는 사직을 두는 것이 예로부터의 제도인데, 이전 고려왕조에서는 소목의 순서와 당침(堂寢)의 제도가 예에 합치되지 않았을 뿐더러, 종묘가 또 성 밖에 있고, 사직은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그 제도가 옛 제도와는 어긋남이 있으므로 예조에서 상세히 검토 논의하여 그 제도를 정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에 따라 개경의 고려 종묘를 헐고 그 자리에 새로운 종묘를 건립하여 4대 선조(목조·익조·도조·환조)의 신주를 배향하였다.

1394년 한양으로 수도를 옮긴 직후 종묘 공사에 착수하여 이듬해 9월 완공했다. 1546년(명종 원년) 부족한 신실을 해결하기 위해 11실의 신실로 증축했다. 임난으로 소실된 종묘 정전은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옛 규모〈11실〉로 중건된 이래, 1726년(영조 2)〈12-15실〉과 1836년(헌종 2) 4칸씩을 증축〈16-19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불천지주의 탄생으로 거듭 증축된 종묘 정전은 극도의 단순 질박함을 보인다. 종묘 정전

29) 재위 시 공적이 높아 5대가 지나도 옮겨지지 않고 세세(世世)토록 종묘 정전에 모셔지는 신주.

에는 특별히 고안된 종교적 장식이나 상징물이 없지만, 옆으로 길게 이어진 연속성은 종교적 엄숙함이나 장엄함을 자아내게 한다. 증축으로 인해 축구경기장만큼 넓어진 하월대에 서면 저절로 숙연함을 자아내게 한다. 종묘 정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살아있던 건물’이라는 점이다. 조선의 종묘 정전은 인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처럼 자라나는 건물’ “생명을 가진 구조물”이었다. 조선의 종묘 정전은 서상제와 불천지주의 존재로 끝없이 옆으로 늘어선다. 종묘 정전의 지붕과 영녕전의 지붕길을 합하면 그것이 바로 한 눈으로 보는 조선왕조 500년의 ‘길이’이자 ‘세월’이다.

종묘 정전에서는 해마다 음력 1월, 4월, 7월, 10월과 동지 뒤 셋째 술일(戌日)에 대제(大祭)를 지냈고, 매달 1일과 15일의 삭망제를 비롯해 한식·단오·추석·동지 등 각 절기에 올리는 속절제가 있었다. 영녕전에서는 봄·가을과 선달에 제향일을 따로 정해 제사를 지냈다. 조선시대 종묘 제례는 주변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축시(丑時)에 거행하였다.<sup>30)</sup> 지금은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정전과 영녕전을 통합하여 해마다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거행하고 있다.

영녕전은 세종 때 지어진 별묘로, 태조의 4대조, 불천지주가 되지 못한 왕의 신위, 그리고 추존왕의 신위를 모신 곳이다. 처음에는 태실 4칸, 좌우협실 각 1칸이었으나, 명종 때 한 차례 증축을 하였다. 임난 때 정전과 함께 불에 타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중건되었고, 이후 몇 차례 증축을 거쳐 태실 4칸, 좌우협실 각 6칸이 되었다.

공신당(功臣堂)은 역대 왕을 보위한 공신들의 위패를 배향한 곳이며, 칠사당(七祀堂)은 왕가와 궁궐의 모든 일과 만백성의 생활이 아무 일 없이 잘 풀리도록 계절의 절기에 맞추어 7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sup>31)</sup>

종묘의 제례와 제례악은 음악과 노래, 무용이 한데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다.<sup>32)</sup>

30) 빈전-훈전-종묘 정전

31) ①사명지신(司命之神) 운명을 관장하는 신으로 봄에 제사 지낸다. ②사호지신(司戶之神) 출입을 관장하는 신으로 봄에 제사 지낸다. ③사조지신(司口之神) 음식에 관한 일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름에 제사 지낸다. ④중류지신(中霽之神) 건물 실내에 거처하는 것을 주관하는 신으로 6월에 제사 지낸다. ⑤국문지신(國門之神) 출입을 주관하는 신으로 가을에 제사 지낸다. ⑥공려지신(公厲之神) 살벌을 주관하고 가을에 제사 지낸다. ⑦국행지신(國行之神) 도로에 통행하는 것을 주관하는 신으로 겨울에 제사지낸다.

32) 황제는 팔일무(八佾舞), 조선은 육일무(六佾舞)를 추었다.

\* 종묘에 모셔진 신위(神位)

〈정전〉

- 제 1실 : 태조고황제, 신의고황후 한씨, 신덕고황후 강씨
- 제 2실 : 태종대왕, 원경왕후 민씨
- 제 3실 : 세종대왕, 소헌왕후 심씨
- 제 4실 : 세조대왕, 정희왕후 윤씨
- 제 5실 : 성종대왕, 공해왕후 한씨, 정현왕후 윤씨
- 제 6실 : 중종대왕, 단경왕후 신씨, 장경왕후 윤씨, 문정왕후 윤씨
- 제 7실 : 선조대왕, 의인왕후 박씨, 인목왕후 김씨
- 제 8실 : 인조대왕, 인렬왕후 한씨, 장렬왕후 조씨
- 제 9실 : 효종대왕, 인선왕후 장씨
- 제10실 : 현종대왕, 명성왕후 김씨
- 제11실 : 숙종대왕, 인경왕후 김씨, 인현왕후 민씨, 인원왕후 김씨
- 제12실 : 영조대왕, 정성왕후 서씨, 장순왕후 김씨
- 제13실 : 정조전황제, 효의선황후 김씨
- 제14실 : 순조숙황제, 순원숙황후 김씨
- 제15실 : 문조익황제, 신정익황후 조씨
- 제16실 : 현종성황제, 효현성황후 김씨, 효정성황후 홍씨
- 제17실 : 철종장황제, 철인장황후 김씨
- 제18실 : 고종태황제, 명성태황후 민씨
- 제19실 : 순종효황제, 순명효황후 민씨, 순정효황후 윤씨

〈영녕전〉

- 정전 제 1실 : 목조대왕, 효공왕후 이씨
- 제 2실 : 익조대왕, 정숙왕후 최씨
- 제 3실 : 도조대왕, 경순왕후 박씨
- 제 4실 : 환조대왕, 의혜왕후 최씨
- 서협 제 5실 : 정종대왕, 안정왕후 김씨
- 제 6실 : 문종대왕, 현덕왕후 권씨

- 제 7실 : 단종대왕, 정순왕후 송씨
- 제 8실 : 덕종대왕, 소혜왕후 한씨
- 제 9실 : 예종대왕, 장순왕후 한씨, 안순왕후 한씨
- 제10실 : 인종대왕, 인성왕후 박씨
- 동협 제11실 : 명종대왕, 인순왕후 심씨
- 제12실 : 원종대왕, 인현왕후 구씨
- 제13실 : 경종대왕, 단의왕후 심씨, 선의왕후 어씨
- 제14실 : 진종소황제, 효순소황후 조씨
- 제15실 : 장조의황제, 헌경의황후 홍씨
- 제16실 : 의민황태자 영친왕

〈공신전〉

- 태조 : 조준(趙浚), 이화(李和, 義安大君), 남재(南在), 이지란(李之蘭), 이제(李濟), 조인옥(趙仁沃), 남은(南閻)
- 정종 : 이방의(李芳毅, 益安大君)
- 태종 : 하륜(河崙), 조영무(趙英茂), 정탁(鄭瓘), 이천우(李天祐) 이래(李來)
- 세종 : 황희(黃喜), 최윤덕(崔潤德), 허조(許稠), 신개(申槩), 이수(李隨), 이제(李禔, 讓寧大君), 이보(李補, 孝寧大君)
- 문종 : 하연(河演)
- 세조 : 권람(權擘), 한확(韓確), 한명회(韓明澮)
- 예종 : 박원형(朴元亨)
- 성종 : 신숙주(申叔舟), 정창손(鄭昌孫), 홍응(洪應)
- 중종 : 박원종(朴元宗), 성희안(成希顔), 유순정(柳順汀), 정광필(鄭光弼)
- 인종 : 홍언필(洪彦弼), 김안국(金安國)
- 명종 : 심연원(沈連源), 이언적(李言迪)
- 선조 : 이준경(李浚慶), 이황(李滉), 이이(李珥)
- 인조 : 이원익(李元翼), 신흠(申欽), 이귀(李貴), 김류(金瑬), 신경정(申景禎), 이서(李曙), 이보(李輔)
- 효종 : 김상헌(金尙憲), 김집(金集), 송시열(宋時烈), 이준(李濬, 麟坪大君), 민정중(閔鼎重), 민유중(閔維重)

현종 : 정태화(鄭太和), 김좌명(金佐明), 김수항(金壽恒), 김만기(金萬基)  
 숙종 : 남구만(南九萬), 박세채(朴世采), 윤지완(尹趾完), 최석정(崔錫鼎), 김석주(金錫胄), 김만중(金萬重)  
 경종 : 이유(李濡), 민진후(閔鎭厚)  
 영조 : 김창집(金昌集), 최규서(崔奎瑞), 민진원(閔鎭遠), 조문명(趙文命), 김재노(金在魯)  
 장조 : 이종성(李宗城), 민백상(閔百祥)  
 정조 : 김중수(金鍾秀) 유언호(俞彦鎬), 김조순(金祖淳)  
 순조 : 이시수(李時秀), 김재찬(金載璨), 김리고(金履喬), 조득영(趙得永), 이구(李球, 南延君)  
 익종 : 남공철(南公轍), 김로(金鑪), 조병구(趙秉龜)  
 헌종 : 이상황(李相瓚), 조인영(趙寅永)  
 철종 : 이헌구(李憲球), 이희(李曦, 益平君), 김수근(金洙根)  
 고종 : 신응조(申應朝), 박규수(朴珪壽), 이돈우(李敦宇), 민영환(閔泳煥)

**\* 기청제(祈請祭) 축문**

“소자가 즉위한 뒤로 임금의 덕에 걸맞지 못한 관계로 천신과 지기의 귀여움을 받지 못한 나머지 재해가 거듭 이르고 기근이 잇따라 발생하게 되었는데, 지난해에 이르러서는 그 정도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죽음의 구렁텅이에 떨어진 채 날마다 보리 익기만을 기다리며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장맛비가 그치지 않고 있는지가 또한 열흘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보리이삭이 모두 검게 변해 버리고 벼의 싹들도 온통 물에 잠긴 가운데 높은 지대나 낮은 지대나 재해를 입지 않은 토지가 하나도 없으므로, 농부들이 목 놓아 울면서 앞으로 풍년이 들 가망은 전혀 없어지게 되었다고 한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도 또 흉년이 든다면 생명(生靈)들이 거의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소자가 변변치 못한 탓으로 신령의 노여움을 사 재앙을 불러일으킨 것인데, 정말 아무 죄 없는 우리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차마 이렇게까지 한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며 상제(上帝)의 좌우(左右)에 계시는 영령들이시여, 우리 생명치고 그 누군들 적자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원하옵건대 미천한 정성을 살펴주시어 말없는 가운데 하늘이 뜻을 돌려주소서. 그리하여 즉각 완악한 음기(陰氣)를 몰아내고 해가 뚜렷이 보이도록 해 주시어 만백성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면 그런 다행이 없겠습니다.

〈사진 1〉 1950년대 종묘 일대



〈사진 2〉 동당이실의 정전 내부



〈사진 3〉 정전의 신실-감실



### 〈참고 문헌〉

홍순민, 『우리 궁궐 이야기』, 청년사, 1999

원영환, 「한양천도와 수도건설고 -태종대를 중심으로-」, 『향토서울』45, 1988

이태진, 「한양천도와 풍수설의 패퇴」, 『한국사시민강좌』 14, 1994

임덕순, 『600년 수도 서울』, 지식산업사, 1994.

김동욱, 『종묘와 사직』, 대원사, 1990.



---

# 일본근세사의 이해

---

•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



# 일본근세사의 이해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 1. 센고쿠(戰國)시대로의 이행

- 오오닌의 난(1466~77) 이후 쟁란은 전국으로 확산. 전국에 걸쳐 100여년 동안 전란의 시대가 계속됨. 전란의 와중에 장원은 해체되고 많은 전통귀족이 몰락.
- 오오닌의 난 이후 무로마치 쇼군집안도 몰락을 거듭함  
1493년 10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키(義材, 후의 義植)가 管領細川씨와 대립하다 폐립되어 쫓겨나는 정변이 발생. 권위의 실추.  
막부의 주도권이 유력다이묘의 손으로 이동. 장군은 다이묘에 의해 진퇴가 좌우되는 꼭두각시로 전락. 1565년 14대 義輝(요시테루)가 암살당하는 사건은 하극상을 상징하는 사건.
- 京都를 중심으로 하는 近畿지방에서 막부권력을 둘러싼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항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로마치 막부체제는 점차 해체되어 감.
- 지방에서는 슈고(守護), 슈고다이(守護代), 고쿠진(國人) 등 여러 계층 출신의 무사들이 자력으로 領國을 구축하여 독자적인 지배를 행하는 지방정권이 탄생. 16세기가 되면 關東, 東海, 中國지방 등에 분권적인 자립권력이 출현. 全國에 센고쿠 다이묘가 할거하며 領國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약 1 세기를 센코쿠시대라 함.

## 2. 센고쿠(戰國)시대 일본사회의 특징

- 일본국민의 생활 양태가 전국시대를 기점으로 변모. 그 양태가 현재까지 이어짐. 일본사를 이분하는 획기

- 衣 : 오오닌 난 이후 면 재배가 보급. 서민층 의복의 주재료가 麻에서 목면으로 전환. 그 전까지 일반서민은 모시를 이용. 14, 15세기에는 왜구, 한일 간의 무역을 통해 조선산 면이 대량으로 일본에 수입됨.

일본 면재배는 15세기말 무렵, 규슈지역에서 시작되어 16세기 말까지는 關東지역까지 확대. 전국시대 일반서민들이 면 의류를 입기시작. 17세기 전반, 서민의 일상의복의 주 원료가 됨. 면은 주요한 군수물자이기도 함. 면의 재배와 보급이 가지는 사회적인 의의는 가히 혁명적.

- 食 : 오남북조시대까지 일본인의 식사는 1일 1식(朝夕). 무로마치 중기부터 1일3식이 유행하기 시작. 전국시대에 서민층에도 3식이 점차 보급. 에도시대에 점심 포함한 3식이 정착. 쌀을 주식으로 하는 조리법(밥짓기, 죽)이 확산. 미소, 쇼유 등이 조미료로 등장.

- 食 : 오武가가옥에서는 공간을 구분하여 작은 방이 독립. 천정에도 天井板을 만들었고 각 방에는 다다미를 깔. 이전시대의 방은 板敷き만으로, 다다미는 자는 곳과 손님접대용 공간에만 사용. 製材혁명 때문. 14세기 말부터 두 사람이 맞잡고 목재를 자르는 톱이 등장하여 얇은 판을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됨.

- 다이묘의 領國 지배정책

부국강병책을 지향. 전쟁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도 군자금조달의 근간인 산업과 경제 발전이 필수.

- 食 : 家臣團에 의한 통치 : 一門(一族)과 譜代衆(종래의 가신단)뿐만 아니라 비혈연집단인 外樣家臣, 國人층이나 촌락지도자(地侍, 토호, 小領主)를 가신으로 편입시켜 자신의 군사력을 증강시켜 가는 것이 최대의 과제 중 하나.

가신단을 군사조직으로 편성. 영국내의 소영주급 무사들로 가신단을 편성하고 가신에 대해서는 지행지(知行地, 영지)를 주어 은전을 베풀고 충성을 요구. 지위와 수입을 보장해 주는 대신 그것에 상응하는 軍役을 부담시킴.

가신단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도 知行地로 부여할 영토를 전쟁을 통해 확대하고 유지, 방어할 필요가 있었음.

- 도시정책 : 영국내의 교통의 요지에 성곽을 건설, 성곽을 중심으로 한 도시를 건설. 가신단의 통제와 신속한 군사동원을 위해 무사를 城下로 이주시켜 집주하게 함. 이주한 무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공업자를 유치하는 등, 인구를 집중시켜 城下町을 건설. 도시 기능을 갖는 城下町는 領國의 정치, 경제, 교통의 중심지가 됨. ⇒ 병농(兵農)분리정책

→ 에도시대의 城下町은 侍町, 商人町, 職人町 등의 구획제가 관철됨.

- 수공업지배 : 수공업 분야에서 다이묘가 직접적인 장악과 편성에 가장 힘을 기울인 것은 건설관계와 武器제조관계의 職人들.

이들을 城下町에 집주시키는 정책을 추진. 직인들을 집단화시켜 그들을 집단적으로 파악하려는 정책은 각지에서 진행됨.

- 金銀 광산의 개발 : 다이묘 영국의 경제력, 군사력 강화에 있어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 것이 광산자원의 개발. 광산인근 지역의 다이묘들은 광산 획득을 둘러싸고 격렬한 각축을 벌이기도.

出雲(이즈모, 島根현) 鐵의 주산지.

銀(16세기 전반 하카다상인 가미야 슈테이神谷壽禎가 조선에서 회취법灰吹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은 정련기술을 도입. 은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 17C초, 일본의 은 수출액은 연간 20만kg. 당시 전세계 銀 생산량의 1/3에 달하는 양. 이와미(石見) 大森銀山

#### • 중국과의 관계

- 1551년 오우치씨(大内氏)의 멸망과 함께 1547년에 파견된 견명선(遣明船)을 최후로 감함무역이 폐절됨. →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정부 간 공식무역 단절

- 16세기 중후반 織豊정권의 시대에 일본의 대외관계는 중국과의 공식적인 국교 및 官貿易이 두절된 반면 後期倭寇와 포르투갈의 출현으로 인해 이전 시대에 비해 대단히 다채로운 양상을 띠게 됨.

\* 後期倭寇 : 16세기는 후기왜구 활동시기. 일본인은 1~2할 정도.

明의 海禁정책에도 불구하고, 밀무역 집단 즉 중국인을 주력으로 한 武裝 海商집단이 출현. 浙江, 福建省연안의 중국인 해상들. ⇒ 일본 銀과 중국산 生絲, 견직물을 기축으로 하는 무역분 형성.

• 유럽인의 내항

- 15세기 중엽~16세기 초 유럽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쳐 근대사회로 이행. 지리상의 발견의 시대, 대항해시대
- 스페인, 포르투갈은 절대주의국가를 형성, 중상주의 정책 하에서 식민지 획득을 위해 해외로 진출. 목적은 '향료 획득과 기독교'로 대변되듯이 무역과 포교.
- 이슬람상인의 중개무역에 의해 유럽에 입수되던 고가의 향료를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직접 입수하고, 아시아에 크리스티교를 확대하여 이슬람세계를 협격하고자 아시아 해로를 찾기 시작.

\* 포르투갈의 동아시아 해역 진출 :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 인도항로를 개척. 1510, 인도의 고아 점령. 1511, 말레이반도의 말라카 점령. 후기왜구집단의 교역망과 항로를 따라 말레이해협에서 북상. 포르투갈은 중국무역의 이익을 추구하며 명정부와 교섭했으나 공식적인 무역을 허가받지 못하자 왜구를 상대로 한 사무역에 전념. 1550년대 왜구의 대반란(嘉靖大倭寇)을 계기로 明朝는 포의 협력을 얻어 왜구금압을 강화. 포르투갈은 마카오의 왜구를 금압한 보상으로 1557년 明朝로부터 마카오를 할양받고 이로써 동아시아에서의 역할비중은 한층 증대. 마카오를 동아시아 무역의 기지로 삼음.

1570년에 마카오-나가사키 간 정기 무역루트 열림.

후기왜구 쇠퇴 후 일본은-중국생사 교역에 적극참여. 아시아무역 달러박스

일본 다이묘들은 다투어 포르투갈 선박을 自領으로 입항시킴(대형범선)

\* 스페인 : 16세기 중반 태평양을 횡단, 동아시아에 진출. 1571년 필리핀제도 점령. 마닐라와 멕시코의 아카풀코를 연결하는 정기항로. 1584년 나가사키 내항

\* 포교활동 : 1549년 예수회 선교사 프란시스코 자비엘(스)이 가고시마에 와서 전파.

2년 3개월 동안 규슈와 기나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포교.

다이묘들은 구교국과의 무역이윤을 중시, 선교사를 보호. 단기간에 신자가 증가.

1582년경 규슈의 신자가 12만 명, 기나이가 2만 5천명.

기리시탄 다이묘, 바테렌(半天連), 南蠻寺(교회당).

- 鐵砲(화승총, 조총)의 전래 : 왜구에 의해 전래되었을 가능성  
당시의 기마중심의 전법과 갑옷, 축성술에 변화를 초래.  
화약과 철포의 조달은 다이묘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

### 3.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82)의 통일사업

- 오와리(尾張:나고야)의 슈고다이묘 시바(斯波)씨의 守護代의 家老 집안.  
父 노부히데(信秀) 때에 세력이 확대. 노부나가에 이르러 강대해짐.
- 18세에 가독 상속. 상속을 둘러싼 분규(弟 信行). 상속 후 약 8년 간 경쟁관계에 있던 일족, 주위세력을 제거하는 데 전념
  - \* 1559. 오와리 통일
  - \* 1560. 오케하자마(桶狹間)의 전투
- 駿河(遠江, 三河)의 거대 다이묘 이마가와 요시모토(今川義元)의 대군을 격파  
오다의 군대(2000 or 4000)가 이마가와와(2만 5천 이상?)를 급습.
- 이에야스, 이마가와와의 인질에서 해방되어 본거지로 귀환. 노부나가와 군사동맹 체결  
노부나가는 이에야스를 客將으로 대우했고, 이에야스는 노부나가의 통일사업에서 東國의 강자인 다케다(武田)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준 셈.
  - \* 1567. 미노(美濃)의 사이토씨(齊藤龍興)를 정복. 미노를 병합.  
7년 동안 10번 출병한 끝에 정복.
  - \* 본성을 기후(岐阜)로 옮김.
- 「天下布武」의 朱印을 사용하기 시작. 정치적 야심을 상징. 上洛을 지향
  - \* 1568. 교토 入京
- 13대 쇼군 요시테루(足利義輝, 암살당함)의 동생인 요시아키(義昭)에게 막부 재흥의 의지가 있음을 간파한 노부나가는 요시아키를 데리고 교토로 진격. 손쉽게 교토를 제압. 기나이를 거의 평정.
- 요시아키를 쇼군에 취임시킴
  - ⇒ 막부의 권력이 쇠퇴한 마당에 요시아키로서는 노부나가라는 강력한 지원자를 필요로 했고, 이제 겨우 2개 國을 통합하여 세력이 강대해지기 시작한 노부나가가 경쟁관계에 있는 다이묘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쇼군의 전통적인 권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음.
- 요시아키는 쇼군으로서 나름 정력적으로 움직였지만 그의 정권은 막부와 노부나가의 이중정권으로, 현실적인 실권은 노부나가가 장악. 군사력, 경제력에서 노부가 압도적인 우위. 막부의 군사력 행사, 권력행사에 있어 노부나가의 협조와 보증이 필요했음. 초반에는

상호 협력하는 우호적인 관계.

\* 1570년, 요시아키와의 대립이 표면화하기 시작.

- 노부나가, 쇼군과의 별도의 권한행사 의지를 표현. 요시아키는 노부나가에게 반감을 가진 세력, 또는 적대관계에 있는 다이묘, 종교집단과 수면 하에서 결탁하기 시작. (朝倉, 武田, 石山本願寺, 毛利 등)

\* 1570. 사원세력과의 항쟁이 본격화, 石山戰爭 시작됨.

- 1571, 比叡山 엔라쿠지(延曆寺)를 불태워 院政 이래의 강대한 사원세력을 타도.
- 天台宗의 總本山. 近江지역에 莊園과 강력한 僧兵조직 소유. 고대 이래의 종교권력. 노부나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른 다이묘와 결탁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 2000~3000명의 승려 살육.

\* 1572, 다케다 신겐(武田信玄)의 공격을 받음.

- 다케다 신겐, 甲, 信, 駿 삼개국의 대군을 이끌고 공격. 노부나가 上洛 후 최대의 위기. 신겐이 공격 중에 발병하여 上洛을 중지하고 본거지로 퇴거.

\* 1573, 쇼군 요시아키 추방. 형식상으로나마 유지되던 무로마치 막부가 멸망.

\* 1575, 나가시노(長篠) 전투. 武田勝頼의 기마부대를 괴멸시킴. 신구문화의 충돌?

\* 1576, 비와호수 연안에 아즈치성(安土城)을 건설. 통일사업의 거점으로 삼음.

근세적인 성곽의 시초. 소켄지(惣見寺)

\* 1582. 다케다씨 공격. 다케다씨 일족 패주, 멸망.

- 혼노지(本能寺)의 변 : 모리(毛利)를 공격하고 있던 히데요시를 격려하기 위해 친정에 나섬. 극소수 병력만을 이끌고 교토의 本能寺에 숙박. 아케치 미쓰히데(明智光秀)의 기습으로 노부나가 사망.

#### 4.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全國 통일

- 오와리 출신의 농민(1536/7生~1598沒)

- 1567. 노부나가의 미노 사이토씨 공격에서 두각을 드러냄. 외교술을 발휘, 사이토씨의 가신들이 배신하도록 유도.

- 1582. 모리씨의 다카마쓰(高松城)을 공격하던 중 오다의 부음을 들은 히데요시는 모리와

강화체결, 회군하여 아케치 미쓰히데를 격파(山崎の戦い:中國大返し<sup>1)</sup>). 노부나가 사망 이후 히데요시는 오다 가신단내의 파워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수완을 발휘, 주군 노부나가의 장례식을 주관하여 성대하게 치름. 또한 노부나가의 후계자를 정하는 가신단 회의(清洲회의)에서 남은 두 아들 중 한명으로 정했다가는 혼란만 커진다면 노부나가의 長孫 산포시(三法師, 3歲)를 추대하여 결정.

- 1583. 가독상속에 불만을 품고 거병한 삼남(信孝)이 히데요시에게 진압되자, 1584년 信孝의 최후를 보고 불안해진 차남 노부카츠(信雄)가 亡父 노부나가의 충실한 客將이었던 이에야스와 손잡고 거병함(고마키·나가쿠테 전투). 이 전투는 전쟁의 발단이 된 노부카츠가 독자적으로 히데요시에게 굴복하는 형태로 화의를 체결. 군사적으로는 이에야스의 승리이나 정치적으로는 히데요시의 승리. 이에야스는 차남을 히데요시에게 양자로 보내서(실질적으로는 인질), 일단 평화 상태를 유지.

그러나 히데요시를 전투에서 이긴 유일한 다이묘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적나라한 형태로 복종하기를 꺼려하여 스스로 히데요시를 찾아가 배알하지 않음. 무력이 아닌 평화리에 이에야스를 굴복시키려 한 히데요시는 1586년 동생 아시히히메를 이에야스의 正妻로 주는 정략결혼, 生母天瑞院를 인질로 浜松城에 보냄. 그제서야 이에야스는 오사카성에 와서 히데요시를 배알함. 이에야스는 형식상으로 히데요시에게 臣從하긴 했으나 別格 다이묘의 대우를 받음.

- 1583, 오사카성 건설. 3년 걸려 완성. 교토의 聚樂第(취락제 파괴후에는 후시미성)에 이어 豊臣정권의 政廳으로 사용. 전국통일의 기점으로 삼음. 히데요시의 권력과 지위를 상징.
- 1585. 천황으로부터 관백(關白)에 임명됨. 公家の 관직이지만 히데요시에게는 전국에 호령할 수 있는 國政上의 지위에 올랐다는 점이 중요.

私戰禁止令(惣無事令)/ 태합(太閤)檢地

- 1587~1590까지 규슈, 관동, 도호쿠 지방의 다이묘를 차례로 굴복시켜 전국통일을 달성. 九州の島津氏, 關東の後北条氏, 東北の伊達政宗

### \* 전국지배를 위한 체제 : 檢地, 刀狩

#### ① 檢地(토지조사정책) : 1582~1598. 太閤檢地

- 히데요시에 의한 일련의 검지.

1) 하루 100km를 뛰어서 이동. 5일만에 山崎에 도착. 중장비 무장10kg, 보병5kg  
미쓰히데, 近江으로 패주하던 도중 土民에게 살해당함(落武者습격). 3일 천하(정확하게는 11,12일).

- 檢地란 봉건영주가 자신의 영지를 파악하기 위해 田畑, 屋敷地를 조사하는 것.
- 差出檢地(指出검지) : 종래의 전국다이묘나 노부나가의 검지 신고제. 가신에게 자기領地의 명세서를 제출시킴  
전국시대 가신은 아직 독립성이 강하여 영주가 가신의 영지에 들어가 실측조사를 통일적으로 행할 수 없었음
- 太閤檢地에서는 秀吉의 직신들이 檢地奉行이 되어 實地測量을 행함.  
검지실시규칙인 檢地條目을 만들어 각지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검지를 행함.  
토지의 면적표시는 새로운 기준으로 마련된 町, 段, 畝(무), 歩로 통일.  
곡물의 양을 재는 마스(枡)도 종래 지역과 용도별로 여러 종류가 사용되던 것을 京枡으로 통일.
- 검지방법 : 전국의 토지를 사단계(상, 중, 하, 하하)로 등급을 매김.  
이에 기초해서 사전에 일정면적의 표준수확고(米의 예상수확고)인 石盛(こくもり)을 확정. 石盛에 면적을 곱한 것이 石高. 石高란 田地의 기준적인 예상수확고를 쌀로 표시한 것. 토지의 생산력을 쌀 수확고로 표시.
- 검지에 의해 촌의 생산고는 石高로 표시되고 다이묘령도 村高를 근거로 한 석고로 표시.
- 석고는 다이묘에게는 군역부담의 기준, 농민에게는 연공부담의 기준.
- 年貢 : 石高에 일정한 연공부과율을 곱한 것. 실제로 영주에게 납부되는 연공납입액. 통상적으로는 石高의 3분의 2를 영주에게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
- 이로써 모든 大名들의 석고가 확정되고 다이묘는 석고에 걸맞는 군역을 부담하는 체제가 구축됨.
- 검지를 거부하는 자는 영주건 백성이던 모두 참살한다고 위협하면서 실시.
- 새로 정복한 지역에는 반드시 검지를 실시.
- 전국66개국의 石高 약1800만(1598). 全國지배의 상징.

## ② 刀狩令 : 1588년

- 농민의 무기(刀, 脇差, 弓, 槍, 鉄砲)를 몰수하고 소유를 금지. 농민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
- 검지와 중과세에 반항하는 잇키를 봉쇄하여 兵農分離를 추진하려는 것.
- 농민의 무기소지 금지정책은 전국시대를 통하여 형성된 자신의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관념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많은 저항이 예상됐음.

- 몰수한 무기는 京都 方廣寺(秀吉 건립)의 대불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므로 현세도 내세도 구원받는다는 명목으로 몰수.
- 1592, 조선침략

## 5. 이에야스의 대두와 히데요시 말년의 政局

- 이에야스는 1543년 1월일 미카와(三河) 오카자키(岡崎)성(아이치현)에서 출생. 아버지는 마쓰다이라 히로타다(松平広忠). 날로 강성해지는 노부나가와 이마가와씨 사이에서 고전하다가 부친 히로타다가 1549년 가신에 의해 살해당하고, 이에야스는 이마가와씨 휘하에서 8세부터 19세까지 인질로서 생활함.
- 1560년 오케하자마(桶狭間) 전투 : 이마가와 요시모토 戰死 후 이에야스는 이마가와 군 중 가장 뒤늦게 적지를 탈출. 오카자키 성으로 입성함으로써 인질의 신분에서 해방됨. 가신들을 앞세워 세력 확장에 몰두하다가, 1561년 이마가와 씨를 배신.
- 1562년 비밀리에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군사 동맹을 결성.
- 미카와의 內政을 어느 정도 정비한 이에야스는 미카와의 동부에서 이마가와씨를 완전히 몰아내고 미카와를 통일. 1566년 姓氏를 세이와(清和) 겐지(源氏) 계통의 도쿠가와(徳川)로 바꿈.
- 1582년 이에야스는 스루가, 도오토오미, 미카와 등 세 개의 국을 장악.
- 1584년 고마키 · 나가쿠테 전투. 히데요시를 패배시킴
- 1590년 전국 통일을 달성하자 히데요시는 이에야스를 교토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이에야스의 영지인 도카이도(東海道)에서 간토(關東)지역으로 轉封시킴. 간헛슈(關八洲) 지역과 이즈(伊豆). 1590년 8월 에도(江戸)에 입성. ⇒ 에도막부의 근거지
- 에도 건설 이후,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와 다른 다이묘들 중간에 서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 1590년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와 오슈의 다테 마사무네(伊達政宗) 간의 화해를 주선하여 성공시켰고,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구로다 나가마사, 아사노 나가마사, 고바야카와 히데아키 등의 무단파 무장을 변호하여 그들의 신망을 얻음. ⇒ 후일 에도 막부 수립에 작용
- 1598년 히데요시는 죽음을 앞두고, 어린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보좌할 다섯 다이

로(五大老)와 다섯 부교(五奉行)를 뽑아 정책을 결정하도록 유언.

이에야스는 마에다 도시이에, 모리 데루모토, 우에스기 가게카쓰, 우키타 히데이에와 더불어 다섯 다이로로 뽑혔고, 집행 기관인 다섯 부교에는 문관파인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 아사노 나가마사, 마에다 겐이, 나쓰카 마사이에, 마시타 나가모리가 뽑힘.

→ 도요토미 정권의 경우 그의 심복으로 활약한 인물들이 존재했지만 그 인물들의 합의기관 또는 정권의 중추라고 할 만한 정치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음

- 武斷派 무장파와 文吏派 무장 간의 불화. 이에야스, 무단파와 손잡고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

- 1600년 세키가하라(關ヶ原)전투. 이시다(서군) vs 이에야스(동군).

서군에 가담했던 88家の 다이묘를 멸망시키고 5家를 감봉 처분함. 총 632만석을 몰수. 전국 다이묘의 총 石高 1800만석의 3분의 1이 영주 없는 공백지가 됨.

이에야스는 이 몰수지를 도쿠가와씨의 직할령으로 편입하거나 도쿠가와 편에 섰던 다이묘에게 하사.

- 1603년 이에야스, 쇼군(征夷大將軍)에 취임하여 에도에 막부를 개창. ⇒ 260년간의 정권

## 6. 에도막부의 성립과 정치체제

- 쇼군직을 2년 만에 아들 히데타다(秀忠)에게 물려 줌.

- 大御所와 쇼군의 이원체제

1607년 家康, 秀忠에게 에도성을 주고 駿府(시즈오카 시)로 거성을 옮김.

大御所로서 家康이 幕政을 실질적으로 장악. 막부의 중신들을 양쪽으로 분할하여 정권을 운영. 아직 미숙한 정권인만큼 秀忠에게 領地安堵權을 행사하게 하여 쇼군으로서 다이묘들의 충성을 맹세받도록 하고, 자신은 전국시대를 통해 구축한 다이묘와의 인맥관계 등을 십분 활용하여 현직 쇼군을 보좌하는 역할.

- 對 도요토미씨 정책

- 1611. 천황의 양위식 거행. 이에야스는 교토로 가서 천황의 양위식을 직접 주재. 히데요리(秀頼)도 양위식에 참가(加藤清正이 설득)하여 이에야스와 면대.

- 1614. 교토의 호코지(方廣寺)鐘銘사건

方廣寺는 히데요시가 교토에 설립, 大佛을 안치한 사원(關白에 의한 鎮護國家의 상징, 豊臣家の氏寺). 히데요리는 수길이가 남겨준 재산 金 수만냥을 투입하여 높이 19미터의 거대한 金銅像, 3.2m의 鐘을 완성.

鐘銘(國家安康, 君臣豊樂)은 도쿠가와씨를 저주한 것이라는 트집

- 오사카 겨울 전투(冬の陣)(1614)

家康은 일찍부터 영국, 네덜란드 상인으로부터 유럽제 대포를 구입. 미리 전쟁 준비를 해둠. 豊臣恩顧의 다이묘들은 거의 히데요리의 출병 요청에 응하지 않음. 강화가 성립되었으나 도요토미 쪽에는 강화에 불만인 자가 많아 로닌을 다시 모아 전쟁준비에 돌입.

- 오사카 여름 전투(夏の陣)(1615)

本丸 만으로 농성전을 벌임. 히데요리 母子의 자결. 아들(8세)은 교토에서 참수. => 도요토미씨 멸족

- 오닌의 난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의 시대가 1615년 오사카 전투를 끝으로 막을 내림.

\* 도쿠가와 쇼군의 권력 : 역대 막부의 쇼군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소유하였고 토지와 인민에 대한 전제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었음.

- 경제력 : 天領(御領, 御料)이라는 쇼군의 직할령을 보유. 도요토미 시대에는 250만석.

17세기 말에는 700만석(직할령이 400만석, 하타모토령이 300만석)

전국의 총 石高 약 3,000만석 중 4분의 1을 쇼군이 지배.

에도, 교토, 오사카, 나가사키 등의 주요 도시와 금은광산이 직할지 무역의 이익을 독점. 화폐 주조권을 장악.

- 군사력 : 군사력의 중핵은 直參이라고 불리는 쇼군 직속의 家臣.

하타모토(旗本)(장군의 직속 가신단 중 1만石 이하. 오메미에御目見이상, 직접 쇼군을 알현할 수 있는 자)6~7만. /고케닌御家人

\* 막번체제

- 에도막부와 이 이전의 막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藩이 성립되었다는 점.

- 번이란 다이묘가 지배하는 領地와 그 지배기구(정치조직). 다이묘들은 家臣團을 편성하여 농촌과 도시를 지배. 가신단을 행정관료제적으로 편성하여 번내의 정치를 행함.

- 막부의 쇼군과 지방의 번주인 다이묘가 주종관계를 맺어 토지와 인민을 지배하는 봉건적인 정치체제. 조세를 부담하는 농민을 기초로 하고 士農工商등의 엄격한 신분제에 의해 질서화됨.

**\* 쇼군과 다이묘 主從관계**

- 쇼군과 다이묘의 관계의 본질은 군사적인 주종관계.
- 쇼군은 다이묘에게 새로운 영지를 하사하거나 기존의 영지지배를 승인하여 御恩을 베풀으로써 다이묘들의 主君으로서 그들 위에 군림. 에도시대 초기에 확정된 다이묘의 영지는 改易이나 減封처벌을 받지 않는 한 그대로 상속됨.
- 다이묘는 쇼군에게 신하의 예를 취하여 영지지배를 인정받고 자신의 가신단을 이끌고 軍役奉仕를 행하는 것이 원칙.

軍役은 石高를 기준으로, 병사와 무기에 대한 규정이 있었음. 다이묘는 석고에 상응하는 규모의 병사와 무기를 확보하고 있다가 戰時에 쇼군의 명령이 있으면 출동.

ex) 大阪の陣, 島原の乱(1637,38), 長州征伐(1866)

평상시에도 준군사적인 성격을 지닌 봉사가 요구되는데 이것도 군역의 원리에 의거하여 인원수와 무기를 갖추어 행하는 경우가 많음

ex) 쇼군의 出行시에 호위(京都上洛, 日光東照宮への参拜), 에도성의 경비와 에도의 소방업무, 성곽수축과 하천공사, 조선통신사 등 외국사절의 호위 및 접대업무

**\* 막부의 행정조직**

- 에도막부의 제도는 秀忠과 家光의 시대에 거의 정비됨.(배포자료 참조)

**\* 다이묘의 통제**

- 쇼군과의 친소관계, 知行高의 정도, 관위, 막부내에서의 직위 등을 근거로 하여 서열이 정해짐. 전국에 270씨. 최대는 加賀의 마에다(前田)씨(103만석).

- 쇼군과의 親疎관계

신판親藩 : 도쿠가와씨 일족의 다이묘. 御三家(尾張, 紀伊, 水戸)

후다이譜代 : 원래부터 도쿠가와씨의 가신이었던 다이묘.

토자마外様 :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도쿠가와씨에게 복종한 다이묘.

- 一國一城令(1615) : 다이묘의 거성을 한 곳으로 제한. 거성 이외의 모든 성을 파괴시킴. 군사력을 약화시킴. 일부 예외가 인정. 장군에 의한 다이묘 통제책으로만 평가되어 왔으나 家臣의 성 소유를 금함으로서 다이묘의 권력 강화를 초래한 측면도 있음.
- 武家諸法度(1615) : 다이묘의 반역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 막부의 허가 없이 城을 무단으로 수축해서는 안 됨. 대규모의 선박주조 금지. 쇼군의 허가 없이 다이묘 상호간의 혼인관계 불가
- 改易, 減封, 轉封 : 2대, 3대 쇼군 시기에 120家 이상의 다이묘를 개역. 대대적인 다이묘

재배치를 실시. 親藩, 譜代다이묘를 關東, 東海, 近畿 등 전국의 요지에 배치하고 유력한 外樣다이묘는 에도에서 먼 지역에 배치. 나아가 규슈, 四國, 동북지방과 같은 원격지에도 요소요소 덕천계열이나 譜代다이묘를 배치. 전국지배를 위한 막부의 전략적인 배려가 근거에 깔림.

- 參勤交代制 : 다이묘가 격년 교대로 가신들을 거느리고 영지를 떠나 에도에 와서 생활하며 쇼군을 배알하는 것. 히에요시도 실시. 처자는 에도에 살게 함. 에도에 가신들을 상주시켜야 했음(藩邸). 上屋敷/中屋敷/下屋敷
- 규정된 규모의 군단을 편성하여 에도와 영지를 정기적으로 왕복. 재정적 부담. 에도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교통로가 발달.
- ex) 1688년, 土佐번의 참근교대비용은 번의 총지출의 약 40%
- 에도의 인구 약 100만명 중 武家の 인구가 50%, 공간적으로도 武家地가 70%.

## 7. 대외관계와 鎖國

\* 신교국 영국과 네덜란드의 일본진출(국가의 보호아래 아시아로 진출)

- 네덜란드 : 1581,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 1602, 동인도회사를 건립.
- 영국 : 1600, 동인도회사를 건립. 인도로부터 아시아 전역에 진출.
- 네는 1609년, 영국은 1613년 각각 일본에 내항하여 家康의 허락을 얻어 平戶에 商館을 설치. 영국은 경영부진을 이유로 일본에서 철수(1623, 商館을 폐쇄, 자진철수).
- 결국 네만이 에도시대에 유일한 유럽국가로서 활동.

\* 朱印船무역(1604~1635)

- 17세기 초에는 일본인의 해외진출이 활발.
- 朱印船 무역이란 중앙정권의 보호무역. 막부는 해외로 진출하는 상인에게 朱印狀이라는 공문서를 교부하여 商船이 해적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 이 배를 朱印船이라 함.
- 家康는 무역상대국에 서한을 보내 무역허가증인 朱印狀을 가진 무역선에 대해서는 무역상의 편의와 보호조치를 취해 줄 것을 의뢰함. 朱印船제도의 창설을 알린 것.
- 朱印狀(異國渡海朱印狀)에는 「自日本……國舟也」라고 도항지가 명기되고 「源家康弘忠恕」

라는 朱印이 날인되어 있음.

- 朱印船은 일본의 銀을 적재하고 동남아시아나 南洋諸島에 도항하여 현지인과 또는 그 지역에 도항한 중국선과 무역을 행함.
- 무역품 : 수입품 : 생사, 견직물, 피혁, 사탕, 香木, 염료  
(주인선무역 전성기의 生絲수입량은 포선의 일본수출량을 압도할 정도)  
수출품 : 은, 동, 철, 유황, 쌀, 세공품
- 朱印船을 파견한 것은 교토, 오오사카, 堺, 博多, 長崎 등의 豪商들과 서국 다이묘들(島津, 加藤, 鍋島, 細川, 松浦, 有馬), 막부관리, 외국인(일리엄 아담스, 안 요스텐, 중국인) 등 100명에 달함, 그러나 1609년, 막부는 제다이묘가 500石積이상의 大船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이묘의 朱印船 파견은 불가능해져 이후 주인선영업자는 막부와 관련이 깊은 특권상인에 한정됨.
- 주인선의 해외도항활동도 1635년의 법령(일본인의 해외도항 전면금지)으로 철폐됨. 1604년부터 일본인의 해외도항이 금지되는 1635년까지 약350여척의 朱印船이 동남아시아의 각 지역에 도항.

#### \* 日本町 (日本人町)

- 朱印船이나 외국의 선박에 편승하여 동남아시아지역으로 진출한 일본인은 약 10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동남아시아 각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도 상당수에 이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타이 등지에 日本町이라는 일본인 촌락이 형성됨. 일종의 상업이민.  
ex)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일본인 이름.
- 日本町의 주민은 통상무역에 관계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상업이민이 주된 구성원. 그 외에 전란으로 主君을 잃은 浪人, 막부의 기독교 금압정책으로 추방되거나 도피한 기독교도들, 외국인에게 고용된 자들 등.
- 일본정 전성기의 주민수 : 루손일본정 3000명, 타이 1500명, 캄보디아 350명. 일반적으로 일본인에 의한 自治制를 유지했고 治外法權을 인정받기도 함.
- 쇄국체제가 강화되어 1635년에 朱印船 무역제도가 전면적으로 정지되자 日本町은 본국과의 유대단절로 점차로 쇠퇴하여 18세기에 소멸. 마닐라의 日本町은 1762년까지 존속됨.

#### \* 막부의 무역정책

- 家康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지만 무역은 보호 장려했기 때문에 포교를 묵인.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무역이 일본산 銀과 중국산 生絲(白絲)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 生絲는 당시 일본의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대단히 높았음. 명과 직접 통교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던 일본이 이 생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포르투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음.

家康이 초기에 포교를 묵인했던 이유는 포를 매개로 생사를 수입, 확보하기 위해서였을 것.

### \*쇄국정책의 본격화

- 그러나 신 앞에서 평등을 설파하는 기독교의 교리는 일본의 봉건적 신분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一神敎적 성격은 기성종교와 대립하였고 일부다처제의 금지, 切腹의 금지 등은 봉건도덕과 모순됨. 신도의 증가와 단결은 봉건지배의 강화를 꾀하는 막부의 두려움을 불러 일으킴.

- 막부는 큐슈의 다이묘들이 무역의 이익으로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함. 이러한 이유에서 막부는 점차 기독교의 금압과 무역의 통제를 강화.

1612, 막부의 直轄領에 기독교금지령.

1613, 전국에 금지령을 확대. 교회 파괴, 선교사의 추방, 신도의 개종을 강요. 선교사 추방후에도 일본잡입이 계속됨.

1616, 유럽인의 寄港地를 히라도(平戸), 나가사키의 2 항에 제한.(중국선은 예외). 다이묘의 영내에 유럽선이 내항하면 이를 모두 히라도, 나가사키로 回航시킴.

1622, 55명의 선교사(잡입한 선교사들)와 신자들을 나가사키에서 화형으로 처형.(元和大殉敎)

후미에(踏繪)의 방법으로 기독교도를 색출. 寺請제도를 강화하여 신자를 불교로 개종시킴.

1624, 선교사의 잡입을 방지하기 위해 스페인 선박의 내항을 금지.

1635, 일본인의 해외도항과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귀국을 전면 금지.

중국선의 寄港地를 長崎 데지마(出島)로 이주시킴.

1637~8, 시마바라(島原), 아마쿠사(天草)의 난 발생

일반적으로 島原·天草의 난은 기리시탄一揆로 불림.

두 곳 모두 기리시탄 다이묘의 舊領인 까닭에 막부의 금교정책하에 일단 신앙을 버린 크리스티교도나 몰래 종교를 고수하는 신자들이 많았고 그들이 봉기에 참가했던 것은 사실.

그러나 領民봉기의 근본적 원인은 신영주의 연공징수에 의한 酷政에 있었음. 영주의 혹정에 대한 반항과 기리시탄 금압에 대한 반항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일어난 農民一揆.

→ 이 사건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난이었으나, 막부는 반란세력 중에 크리스트교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기리시탄一揆로 과대 선전. 禁敎정책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

→ 1638년 2월 막부군의 총공격. 일규 세력이 완전히 전멸, 진압됨.

1639, 포선의 내항을 전면금지. 島原의 란이 큰 요인으로 작용.

1641, 平戸 네덜란드상관을 데지마(出島)로 이전. 長崎奉行의 감시 하에 둠.

일반 일본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네덜란드인을 감시하기 위한 시설. ⇒ 쇄국의 완성

- 이후 무역항은 나가사키 한곳으로 제한되었고 나가사키에는 네덜란드선과 중국선만 내항하게 됨.

- 쇄국의 시대 네 개의 창구 說

長崎 : 네덜란드, 중국

對馬藩 : 조선

薩摩藩 : 류큐(琉球)

松前藩 : 아이누

### 〈일본전근대사 참고문헌〉

-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사계절, 2011  
아사오 나오히로 지음, 이계황 외 옮김, 『새로 쓴 일본사』, 창작과비평사, 2003  
연민수편저, 『일본역사』, 도서출판보고사, 2000  
동경대교양학부일본사연구실편 김현구 · 이연숙역, 『일본사개설』, 지영사, 1998  
박경희,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 일빛, 1998  
정혜선, 『일본사 다이제스트 100』, 가람기획, 2011  
김희영, 『야마토 시대부터 전후 일본까지 (이야기 역사 시리즈)』, 청아출판사, 2006  
우리미래역사체험학습 강사진, 『한 권으로 풀어 쓴 이야기 일본사 (이야기 역사 시리즈 12)』, 청솔, 2011  
키토 히로시 지음, 최혜주, 손병규 옮김, 『하룻밤에 읽는 일본사』, 어문학사, 2009  
전국역사교사모임 지음, 『처음 읽는 일본사』, 휴머니스트

###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참고문헌〉

- 무라이 쇼스케지음, 이영 옮김, 『중세왜인의 세계』, 도서출판소화, 1998  
다시로 카즈이, 『왜관』, 논형, 2005  
이영, 김동철, 이근우공저, 『전근대한일관계사』, 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1



---

# 근대 동아시아 외교사

---

• 김민규 (동북아역사재단) •



# 근대 동아시아 외교사

김민규 (동북아역사재단)

## 1. 문제의 제기

- 가. 근대?
- 나. 동아시아?
- 다. 개항?

## 2. '개항'과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변동

- 가. 淸英, 아편전쟁(1840~1842), 南京條約(1842)
- 나. 페리 來日과 美日和親條約(1854)
- 다. 王政復古 쿠데타와 明治維新(1868)
- 라. 淸日修好條規(1871)
- 마. 朝日修好條規(1876)
- 바. 日, 琉球 '處分'(1879)
- 사. 朝美條約(1882.5.22)
- 아. 壬午軍變(1882.7.23)
- 자.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1882.10.4)
- 차. 甲申政變(1884.12.4)
- 카. 淸佛, 天津條約(1885)
- 타. 淸日, 講和條約(下關條約, 1895.4.17)
- 파. 韓淸通商條約(1899.9.11)
- 하. 韓國併合에關한條約(1910.8.22)

## 3. 조공(책봉)체제와 조약체제에 대한 바른 이해

- 가. 明 멸망 이후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관
  - 1) 중화사상
  - 2) 소중화사상
  - 3) 일본형(型)화이사상
- 나. 조공체제의 성격
- 다. 조규체제

## 4.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전망

## ‘동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史’

### 1

‘동아시아’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동아시아의 역사갈등 문제를 다룬다’라는 명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역사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들이 어디 한 두 가지이겠는가 만은 혹자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라든가 야스쿠니(靖國 Yasukuni) 신사 혹은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慰安婦, ianfu, comfortwomen)’를 또 어떤 이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국의 그것으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이른바 ‘東北工程’(dongbei gongcheng, Northeast Project)을 떠올릴 것이다.

한편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또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獨島, Dokdo) 또한 국제법이 통용되기 훨씬 이전부터 세계의 歷史 및 地理書에 자주 등장했던 경위를 고려한다면, 응당 역사와 떼어 수 없는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서 분쟁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는 섬이다. 일본이 줄기차게 그 영유권을 부당히 주장하고 있기에 그 대응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역사문제’에서 완전히 제외시킬 수는 또한 없는 형편이다.

굳이 이 ‘동아시아의 역사갈등 문제를 다룬다’라는 명제에만 ‘동아시아’를 국한시킨다면, 그 ‘동아시아’에는 한중일 3국과 북한 좀더 나아가 타이완과 몽골, 베트남 등이 해당될 듯싶다. 섬나라 타이완의 경우는 대륙 중국과의 사이에 ‘분리 독립’이나 ‘통일’이라는 갈등 때문에 ‘동아시아’에 응당 해당이 되겠지만, 몽골은 어째서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다. 충분한 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한 예로 징기스칸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중국인과 몽골인에게 물었을 경우 제각기 자국 ‘역사’에 속한 위인이라고 답을 하고 있어 양국이 역사갈등의 ‘불발탄’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러한 논의에 얼마든지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음은 자명하다.

우리가 ‘동아시아’를 논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역설하곤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오늘날과 같은 이른바 글로벌

시대에 한국 혹은 일본이라고 하는 어느 한 나라로만은 자국이 안전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번영할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면서 공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인접 국가와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사실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 앞서 열거한 갈등거리들도 따지고 보면 거의가 다 서구 帝國主義의 산물 혹은 부산물이다. 이른바 서세동점(西勢東漸) 이후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한 팽창적 국가주의나 식민지주의(colonialism)에 의해 이전의 ‘동아시아’가 해체되고 새로이 재구축됨으로써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든 또 수용치 않고 있었든, 기존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규범이 되었던 것은 다름아닌 조공책봉(朝貢冊封) 체제였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유교 이념에 기초를 둔 화이관(華夷觀)에 의해 국가 간 서계(序階, hierarchy)가 결정되고 또 국가에 따라 조공과 책봉 즉 봉공(封貢)의 예(禮)가 달라져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 국제질서 체제였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법에 의해 표면적으로는 국가 간의 대등/평등을 기조로 하여 국제관계가 성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결코 대등/평등치 않음은 물론 오히려 국가 간의 서계의 폭과 차등이 더 넓어져 있음을 생각해 보면, 근대 이전의 그러한 국제질서 체제가 일견 ‘합리적’일 수도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였다.

## 2

미국을 비롯한 서구열강의 무력 앞에 무기력하게 굴복하여 토쿠가와(德川) 막부(幕府) 정권의 국시(國是)였던 쇄국체제의 붕괴와 함께 왕정복고 쿠데타를 통해 천황정치를 회복시킨 메이지(明治) 정부는 유럽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만국공법(萬國公法)을 앞세워 조선과 청(淸)이 견지하고 있었던 조공체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패자(覇者) 청의 막연하고 느슨했던 이른바 ‘천자(天子)의 영토’에 대한 ‘구획정리(區劃整理)’를 통해 ‘근대적’의미의 국경을 획정(劃定)하고자 함에 다름 아니었다.

메이지 일본이 ‘처분(處分, shobun [lit. disposition])’을 통해 획득한 유구(琉球, Liuqiu, Ryukyu[현재의 오키나와, 沖繩])는 청의 무관심의 결과였지만, 조공체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조선만큼은 청도 결단코 ‘양보’할 수 없어 구차하지만 ‘조규[條規(tiaogui=regulation)] 체제’로의 체제 변혁을 통해서나마 속방(屬邦)으로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청의 패권 즉 구체제를 부정(=탈아[脫亞, datsua])하고 ‘근대적’ 국경획정을 꾀하려는 일본과 수 차례의 충돌(임오군란·갑신정변·청일전쟁) 끝에 결국 구체제는 붕괴하고 만다. 근대의 ‘동아시아’는 그렇게 탄생되었다.

‘동아시아’는 한때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 연대하자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지만, 이내 일본 군국주의의 ‘웃’을 입힌 천황주의에 입각하여 ‘동(東)’을 초극(超克)하고 서(西)로 진출하여 ‘아시아’를 아우르며 팽창해 결국 서양과 충돌한다. 이어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 원폭투하는 약 반세기 동안 지속된 일본산 근대적 ‘동아시아’를 해체시킨다.

일본은 패전 직후 발발한 한국전쟁을 경제 도약의 기화(奇貨)로 또 냉전과 미국의 ‘핵우산’을 보금자리로 삼아 초고속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다. 한반도의 남북한은 한국전쟁으로 분단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경제와 군사 부흥을 각각 제1의 정치적 목표로 설정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9년 새롭게 탄생한 中國은 문화혁명 등 수 차례의 내부 시행착오 끝에 개혁개방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를 견제할 정도로 급부상하였다. 타이완 역시 한국과 유사한 패턴의 사회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각개 약진이 한창 피크를 이루던 때인 1990년을 전후하여 마침 냉전체제가 붕괴하자, 그와 동시에 ‘동아시아인’들에 의한 ‘동아시아’가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그 동안 냉전체제 아래에서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어 왔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탈냉전과 더불어 미국의 ‘음지’에서 서서히 벗어나 스스로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양지’로 나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전전(戰前)의, 또 냉전시기의 ‘동아시아’가 아닌, 현시점에서의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사실 무수한 사람들이 동아시아에 대해 담론해 오고 있지만, 사실 아직 그 실체가 분명치 않다는 사실만이 사실일 것이다. 동아시아를 ‘동북아’의 개념과 동일시하여 사용하는 이도 있고 또 엄격히 구별하여 말하는 이도 있다. 사실 동아시아의 정체성이 아직 정립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의 공동체 구축을 논한다는 자체가 어찌면 모순일 것이다.

그렇다고 선불리 그것의 정체성을 규정지을 수는 또한 없는 노릇이다. 예컨대, 동아시아를 동북아와 동일시하고 또 동북아를 한중일 3국으로 규정할 경우, 결국 전통시대의 화이(華夷 huayi)질서 --- 중화주의·소중화(小中華)사상·일본형(型) 화이의식 --- 의 범주를 자국에 국한시키지 않고 인접국에 확대 변용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또 다른 하나의 화이질서를 만들어 내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역사문제로 충돌을 하고 갈등을 겪는 이유는 실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아마도 영화 속 좀비와도 같이 목숨 질긴 그 화이관(華夷觀)이라고 하는 괴물일 것이다. 그러니까, 자국(자민족)은 ‘華 hua’이고 나머지 국가(민족)들은 전부 ‘夷 yi’로 인식했던 종래의 화이의식이 이번에는 한중일 3국 전체의 한 덩어리로 확대되어 이들 국가(민족)만이 ‘화’이며 그 밖의 아시아 및 여타 지역의 국가(민족)들은 죄다 ‘이’로 재설정되는 式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하고 지양해야 할 점은 현재(또는 미래)의 ‘동아시아’를, 여타 지역과의 ‘구별’이 아닌 ‘차별’을 근거로 ‘화’로 설정해 놓고 기타 지역들을 새로운 버전의 ‘이’로 인식하려 하는 태도이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와 국민들이 이를테면 ‘동남아시아’나 기타 ‘아시아’ 지역 혹은 ‘동아시아’를 제외한 기타 전 지역을 (무)의식적으로 ‘이’로 취급하려는 오리엔탈리즘적 역사인식의 오류는 적어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가 개설되어 있다. 미래의 역사를 짚어질 자라나는 세대들이 건강한 역사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동아시아사’ 관련 연구자들은 물론 교과목 집필자들과 담당 선생님들 모두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

이 논문은 다음의 e-journal을 한글로 번역/수정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East Asia’ and Its History,” The Review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2 No.2,  
(2010)

[키워드]

동아시아, 동아시아사, 조공책봉체제, 화이질서, 조규체제, 오리엔탈리즘

---

# 한일관계와 역사문제

---

•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



# 한일관계와 역사문제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 1. 왜 일본의 역사왜곡이 문제가 되는가?

최근의 한중일 관계를 신(新) 삼국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중국과 일본은 어떤 이웃일까요? 국민총생산(GDP)과 무역 통계를 보면 경제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상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있어서도 우리는 중요한 무역 상대국입니다. 에너지·환경분야에 대한 공동투자와 첨단기술 협력 등 3국 간 협력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국민들 간의 교류 또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 문제에 대한 대응 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한일 양국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럽과 비교해 보면 국가 간의 장벽은 높고 상호간의 신뢰에 기초한 협력이 뒤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에 필요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요인 중의 하나가 일본 정치인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은 일본에 의해 자행되었던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역사인식을 전제로 하여 외교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나 각료의 발언을 통해, 때로는 담

화를 통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을 표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진정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정치가들이 이에 반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들의 잘못된 발언 한 마디, 행동 하나는 국민들이 교류를 통해 조금씩 쌓아 놓은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립니다. 국민들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 간 협력도 어려워집니다.

〈자료1〉 국가별 국민총생산(GDP, 단위: USD1,000,000, 출처: IMF)

	1990	2000	2009	2015
미국	5,979,575 (1)	10,284,750 (1)	14,418,725 (1)	17,947,000 (1)
중국	392,505 (11)	1,205,263 (6)	5,059,716 (2)	10,982,829 (2)
일본	3,103,699 (2)	4,730,987 (2)	5,035,141 (3)	4,123,258 (3)
한국	279,215 (16)	561,595 (12)	901,935 (14)	1,376,868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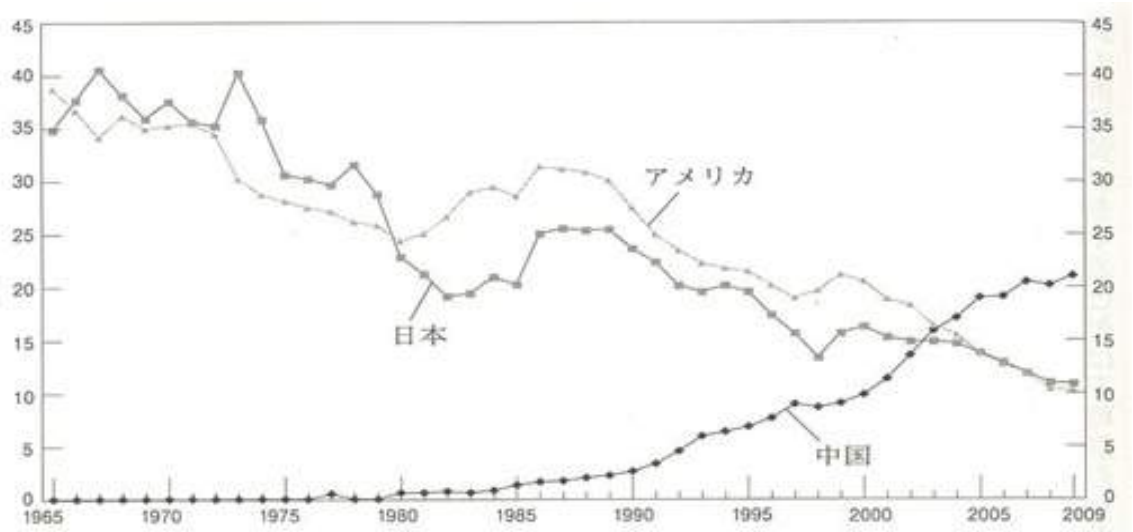
출처 : GLOBAL NOTE(<http://www.globalnote.jp/>)

〈자료2〉 한국의 국가별 수출/수입(2015년, 단위: USD1,000,000)

국가	수출 금액	수입 금액	무역수지
중국	(1위) 137,123.9 (26.0%)	(1위) 90,250.2 (20.6%)	46,873.6
미국	(2위) 69,832.1 (13.2%)	(3위) 44,024.4 (10.0%)	25,001.6
일본	(5위) 25,576.5 (4.8%)	(2위) 45,853.8 (10.5%)	-20,277.3
총액	526,756.5 (100%)	436,498.9 (100%)	90,257.5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kcshome/index.jsp>)

〈자료3〉 한국 무역에서 주요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 변화(수출입 합계)



※ 출처 : 木村幹『日韓歴史認識問題とは何か』ミネルヴァ書房, 2014년, 59쪽

〈자료4〉 국내 입국자 수 변화(단위: 명)

국가	1966년	1993년	2014년
중국	2,110 (2.4%)	27,784 (4.8%)	5,387,859 (42.4%)
일본	16,871 (19.5%)	1,468,181 (57.1%)	2,254,307 (17.7%)
총계	86,349 (100%)	2,568,494 (100%)	12,682,019 (100%)

※ 출처: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

## 2. 역사문제의 역사적 경위

한일 간 역사문제는 기본적으로는 1910년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에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이 한국 강점의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보상했는가, 한국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일 간에 가장 첨예한 현안이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야스쿠니신사 문제, 독도와 동해표기 문제 역시 일본의 한반도 침탈에서 비롯된 역사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료5〉 한일 역사문제 개요

(\* 관심도/ 폭발성/ 지속성)

	사안	쟁점	본질	현상(2017년 주요일정)
1	독도 (5/5/5)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	역사인식	일본 교과서 독도기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3월) 일본 개정 학습지도요령 고시(3월) *‘북방영토’와 비교 검토
		현상변경 시도	영토주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현실적 움직임 없음)
2	일본군‘위안부’ (5/5/3)	한일 합의 이행 여부	외교합의 (피해자)	한국 차기 정부 대응
		소녀상 이전		부산 소녀상 갈등
		일본정부 강제연행·성노예 부정	역사인식	총리, 관방장관, 외상 발언 (영화 ‘눈길’ 개봉(3.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역사인식	기록유산 등재 결과 발표(10월)
3	일본 교과서 (4/4/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 ‘위안부’, 한국사 관련 기술	역사인식	일본 교과서 기술(3월)
4	야스쿠니신사 (3/3/1)	총리 및 각료의 참배	역사인식	각료 참배(4월, 8월, 10월)
		한국인 합사철폐 소송(1건), 총리참배 위한 소송(2건)	역사인식 (피해자)	소송 판결(4월)
5	강제동원 · 전후보상 (2/6/1)	강제동원 피해자 파기 환송심 대법원 판결(2012.5.24)을 근거로 한 고등법원 판결 3건 대법원 계류 중(*자료1 참조)	법적보상 (일본기업, 피해자)	대법원 판결(미정)
		메이지 세계유산 강제동원 사실 기재 여부	역사인식	일본정부 방침 발표(10월)
6	쓰시마 불상 (2/3/1)	도난 문화제 반환 *한일 모두 ‘도난’ 문화제로 취급	법적분쟁	고등법원 판결(미정) *1월, 부석사 반환 판결
7	역사수정주의 주장 (3/3/1)	자민당 특명위원회	역사인식	‘위안부’, 독도 등 관련 발언
		정치가 역사수정주의 발언	역사인식	
		잡지, 개인 발언	역사인식	

1945년 8월 한국이 일본의 강점에서 해방되고 나서 6년이 지난 1951년 10월 20일 한일 간에 국교정상화 교섭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일제 35년간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양국의 역사인식은 근본적으로 달랐고, 이로 인해 한일회담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게 됩니다. 일본은 식민지배가 병합조약에 의한 합법 통치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일본의 지배는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1953년 10월 일본측 수석대표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 발언입니다. 구보타는 법률적 청구권을 주장하는 홍진기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일본이 36년간 벌거숭이산을 푸르게 바꾸고 철도를 건설하고 논을 늘리는 등 많은 이익을 주었으므로 일본 측도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반론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한일회담은 4년 반 동안 중단됩니다. 13년 8개월에 걸친 교섭 끝에 한일협정이 체결되지만, 양국 간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한국병합 조약에 대해 한국정부는 ‘당초부터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지금은 무효이나 당시에는 유효하고 합법적’이었다고 해석합니다.

1982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일본정부에 의해 일본의 ‘침략’이 ‘진출’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 문제가 다시 한일 간의 외교문제로 등장합니다. 일본 교과서 왜곡 파동은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이 1982년 8월 26일 담화를 통해 ‘일본 정부는 한국·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민에게 많은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을 깊이 자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표명하고,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할 때는 이웃 나라들을 배려하겠다는 ‘근린제국조향’을 만드는 것에 의해 일단락되었습니다. 한편 우리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국사교육을 강화하고 독립기념관을 건설합니다.

1980년대 들어와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또 하나의 사건은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였습니다.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이 신사가 침략전쟁의 주모자로 처벌받은 A급 전범도 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A급 전범은 1978년 10월 17일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고, 이 사실이 1979년 4월 19일 여론에 공개되었습니다. A급 전범들의 합사 뒤에도 20회에 걸친 총리의 참배가 있었지만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게 된 것은 1985년 8월 15일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의 참배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카소네 총리가 ‘공식참배’임을 내세웠다는 점도 있

지만, 한국과 중국의 국제적 지위 상승 등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비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반발하자 나카소네 총리는 1986년부터는 “A급 전범 합사는 침략당한 상대방 국민의 감정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참배를 중지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갈등 소지는 만들지 않겠다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었지만, 일본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일본 과거사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됩니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급증하는데, 대부분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일본정부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였습니다. 일본정부는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위안부’ 동원 및 ‘위안소’ 운영에 정부와 군이 개입했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목적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7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와 관련 단체는 이 기금에 의한 ‘보상’을 거부하고 일본정부의 법적 보상과 공식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정부도 이 기금에 의한 ‘보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했습니다.

한편, 일본정부는 한일 및 한중 외교에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1994년 6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사회당 내각이 발족한 것을 계기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총리담화를 추진합니다. 1995년 6월 9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해 반성을 표명한 ‘**역사를 교훈삼아 평화 결의(決意)**’를 새로이 하는 결의(決議)가 채택되었고, 같은 해 8월 15일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총리담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총리 담화는 포괄적인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배상, 재산 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모두 해결되었고 정부가 개인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총리들은 무라야마 담화를 원용하거나 계승한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역사인식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무라야마 담화와는 상충되는 행동과 발언을 하면서도 무라야마 담화를 기계적으로 인용한 결과, 일본정부의 반성과 사죄는 공허한 정치적 수사로 끝나게 됩니다.

### 〈자료6〉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변화

연월일	주체	형식 사안 주요내용
1965.2.20	일본정부/ 한국정부	공동성명 〈식민지 지배〉 ※ 양국 외교부장관 공동성명 양국 간의 긴 역사 중에 불행한 기간이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며 깊이 반성
1972.9.29	일본정부/ 중국정부	공동성명 〈침략전쟁〉 일본국이 전쟁으로 중국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
1982.8.26	일본정부 관방장관	담화 〈교과서 왜곡〉 한국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민에게 많은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을 깊이 자각
1985.8.14	일본정부 관방장관	담화 〈과거사 전반〉 ※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8.15)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과 손해를 끼친 사실을 자각하고 깊이 반성
1992.7.6	일본정부 관방장관	담화 〈일본군'위안부'〉 위안소 설치, 운영, 위안부 모집, 업자 감독에 정부가 관여한 사실 인정
1993.8.4	일본정부 관방장관	담화 〈일본군'위안부'〉 위안소 설치 운영, 위안부 모집이 정부와 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 및 모집에 관헌이 직접 가담한 사실 인정
1995.8.15	일본정부 총리	담화 〈식민지 지배·침략전쟁〉 ※ 종전 50주년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표명
1998.10.8	일본정부/ 한국정부	공동성명 〈식민지 지배〉 한국 국민에게 식민지 지배에 의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표명
2001.8.13	일본정부 총리	담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8.14)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특히 아시아 근린제국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慘害와 고통을 강요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
2002.9.17	일본정부/ 북한정부	공동성명 〈식민지 지배〉 식민지 지배에 의해 조선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표명
2005.8.13	일본정부 총리	담화 〈식민지 지배·침략전쟁〉 ※ 종전 60주년 한국 사람들에게 식민지 지배와 침략행위에 의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표명 ※ 무라야마 담화의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삭제
2010.8.10	일본정부 총리	담화 〈강제병합·식민지 지배〉 ※ 한국 강제병합 100년 식민지 지배에 의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표명. 나아가 한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의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음을 명기
2015.8.15	일본정부 총리	담화〈침략전쟁〉 ※ 종전 70주년 1931년 이후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 표명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2001년 4월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가 검정을 통과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가 2001년 취임 이후 2006년 퇴임 때까지 매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함에 따라 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에는 시마네현 의회가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이라고 발언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4월 검정을 통과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만든 중학교 공민교과서에는 ‘竹島는 국제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되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도발로 의해 한일관계는 파행을 겪게 됩니다.

2006년 취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지 않음으로써 파행된 한일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2007년 3월 아베 총리는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EU, 대만, 한국 의회에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를 하고 이 문제를 올바르게 교육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둘러싼 과거사 청산 문제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아직까지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2008년 7월 14일 독도를 일본영토로 교육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명기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고시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2010년 이후 검정을 통과한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지리, 공민)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기술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1월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라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2010년 6월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 총리가 된 간 나오토(菅直人)는 8월 10일 총리담화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정치 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의 뜻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기하고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하여, 이에 다시금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간 총리담화는 한국 병합은 부당하나 합법이라는 일본정부의 기존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조사와 이를 위한 자료공개 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에서 무라야마 담화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방안의 모델로는 전시 중 일본계 미국인의 강제수용 문제를 사죄하고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규정한 법률(1988)’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목적에서 ‘(강제수용의) 부정을 인식하고, 합중국 국민을 대신해 사죄하고, 그것을 공중(公衆)에게 알리고, 똑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우리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에 2차례에 걸쳐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 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해결방안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신조 자민당총재가 총리가 되면서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아베는 2012년 9월 15일 자민당 총재선거 토론회에서 ‘고노 담화로 인해 일본군이 마치 여성들을 유괴해 강제로 위안부로 삼았다는 불명예를 일본이 짊어지었는데, (아베 1차 내각에서) 고노 담화를 수정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총리에 취임한 아베는 2013년 4월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침략이라는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하였으며, 2013년 12월 26일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합니다. 또한 아베내각은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발언을 되풀이하면서도, 2014년 6월 20일 고노담화의 작성경위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고노담화에 손상을 가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2014년 8월 5일 아사히신문이 제주도에서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했다는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 증언에 근거하여 작성한 기사들을 취소한다고 보도하면서 일본 보수 정치가와 언론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2015년 8월 발표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담화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친 시기는 서방 국가에 의한 제국주의 질서였다는 점을 내세워 일본의 한국과 타이완 침략과 강점을 정당화 하였습니다.

2015년 한일협정 체결 5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부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위안부’ 타협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측은 ‘군의 관여하에 많은 여성의 존엄과 명예가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아베 총리가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고, 피해자 치유 및 명예와 존엄을 회

복하기 위한 재단 설립 기금으로 10억 엔을 거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부 피해자와 단체들은 공식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일본의 전후처리와 역사인식 문제로 충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력과 교류를 크게 진전시켰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원조·수직 분업에서 경합을 넘어 상호 협력·수평 분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빈번하게 발생한 한일 간 역사 마찰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가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회피, 완화시키면서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매우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이 민주주의, 시장 경제, 인권 존중이라는 기본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한일 역사문제 추이 개요

구분	연도	협력 요인	갈등 요인
1기: 문제의 봉합 (‘65-’81)	1965	(공) 한일 국교정상화	
	1974		(일)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 일본 지배가 한국 발전에 기여 발언
2기: 문제의 표출과 실질적인 해결 모색 (‘82-’12)	1982	(일) 교과서 기술 일부 수정·근린제국조항 신설	(일) 일본 정부 침략·식민지 관련 교과서 기술 개입
	1985		(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1986	(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중지	(일) 고교 교과서 『신편 일본사』검정통과
		(일) 일본 정부 『신편 일본사』기술 일부 수정 지시	
		(일) 후지오 마사유키 문부상 ‘망언’	
		(일) 후지오 마사유키 문부상 파면 ※ ‘88~’95 각료 4명 ‘망언’으로 사임	
	1991		(한)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소송
	1993	(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 발표	(일) 자민당, ‘역사·검토위원회’ 설치
1995	(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담화 발표	(일) 아시아여성기금 설립	

구분	연도	협력 요인	갈등 요인
2기: 문제의 표출과 실질적인 해결 모색 (‘82-’12)	1996	(일) 검정 통과 중학교 역사교과서 전부에 일본군‘위안부’ 기술	(일)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새역모’) 발족
	1997		(일)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모임 발족
		(공)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발표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게이조 총리)	
	2001		(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 2006년까지 매년 참배 (일) ‘새역모’ 발간 교과서 검정 통과
	2005	(공) 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발족 (2002~2005)	(일)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2006	(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 발표	(한) 노무현 대통령 특별 담화 ※ 독도, 교과서, 야스쿠니 문제 언급
	2007	(공) 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발족 (2007~2010)	(일) 아베 신조 총리 ‘위안부’ 강제성 부정 발언 및 각의 결정
	2008	(공)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봉환	(일)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 독도 명기
	2010	(일) 간 나오토 총리 담화 발표 (일) 공내청 소장 조선 왕실 도서 반환	
	2011		(한) 헌법재판소 ‘위안부’ 위헌 판결 (일) 모든 중학교 지리, 공민, 역사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 기술, ‘위안부’ 기술은 삭제
2012	(공)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방안 모색	(한)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 (한)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3기: 정부 간 갈등의 증폭 (‘13-’17)	2013		(한) 박근혜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가해와 피해의 역사, 해결 중요성 강조 (일) 아베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2014		(일)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 한국 독도 불법점거 명기 (일) 고노 담화 작성경위 검증 결과 발표
	2015	(공) 일본 메이지 산업유산을 강제동원 표기하기로 합의하고 세계유산에 등재 (공) 한일 정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일) 모든 중학교 공민·지리·역사 교과서에 독 도는 일본 영토로 기술 (일) 아베 총리 종전 70주년 담화 발표
	2016		(일) 총리와 각료, ‘위안부’ 강제연행과 성노예 부정 발언 (한)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7		(일) 부산 소녀상 문제로 주한 일본대사 귀국 조치 (일)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명기 (한) 쓰시마 불상 부석사 인도 판결



---

**증언과 문서,  
사진으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

•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



# 증언과 문서, 사진으로 보는 일본군‘위안부’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 1. 일본군‘위안부’ 제도란?

### 1) 일본군‘위안부’란?

- 1932년 제1차 상하이사변부터 1945년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일본 육해군이 설치한 위안소에서 군인·군속의 성 상대가 될 것을 강요당한 여성을 말함

### 2) ‘위안소’설치 경과

- 1931년 9월 중국 동북지방을 공격하여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1932년 1월 남부의 상하이로 전선을 넓힘.
  - 이 때 일본 해군이 최초로 ‘위안소’를 개설했고, 곧이어 육군에서도 ‘위안부단’을 조직함.
- 1937년 7월 일본이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개시하여 12월에 난징을 점령. 이 과정에서 일본군 병사가 많은 중국인 여성을 강간하여 중국 내의 반일감정이 높아졌고 국제적으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짐.
  - 이에 따라 일본군은 ‘위안소’제도를 체계화하여 일본군이 직접 짓거나 관리하는 ‘위안소’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됨
- 1941년부터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네덜란드 등의 연합국과 전쟁을 시작하여 싱가포르·필리핀·버마·인도네시아 등을 점령
  - 일본군이 점령한 이들 지역에 군 ‘위안소’가 차례로 설치됨

### 3) '위안소'의 유형

- 군이 직접 경영하는 '위안소'
- 민간업자들에게 경영을 맡기는 군 전용 '위안소'
- 민간의 유곽을 군이 일시적으로 지정하여 이용하는 '위안소'

### 4)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 배경

- 강간 방지
  - 일본군이 중국 각지에서 일으킨 강간 사건으로 인해 군의 위신이 실추되기 때문에 강간을 방지하기 위해 '위안소'를 만들라고 파견군이 지시
- 성병 만연 방지
  - 1918년 일본군이 시베리아에 출병했을 때 많은 병사가 성병에 걸려 전력이 크게 약화된 경험이 있음
  - 일본군 장병이 전지·점령지에서 민간 매춘업소에 가게 되면 성병에 감염되기 쉽고 성병 치료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병력 소모를 초래
- 장병들에 대한 위안 제공
  - 출동 병사의 명확한 교체·귀환 기준 및 휴가제도가 없었고, 식료품 등 물자 배급 상황이 열악했으며, 병사들의 인권 상황 역시 심각하여 병사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위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음
- 스파이 방지
  - 병사들이 전지·점령지의 민간 매춘업소를 드나들면 군의 비밀을 발설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

### 5) 위안소의 지역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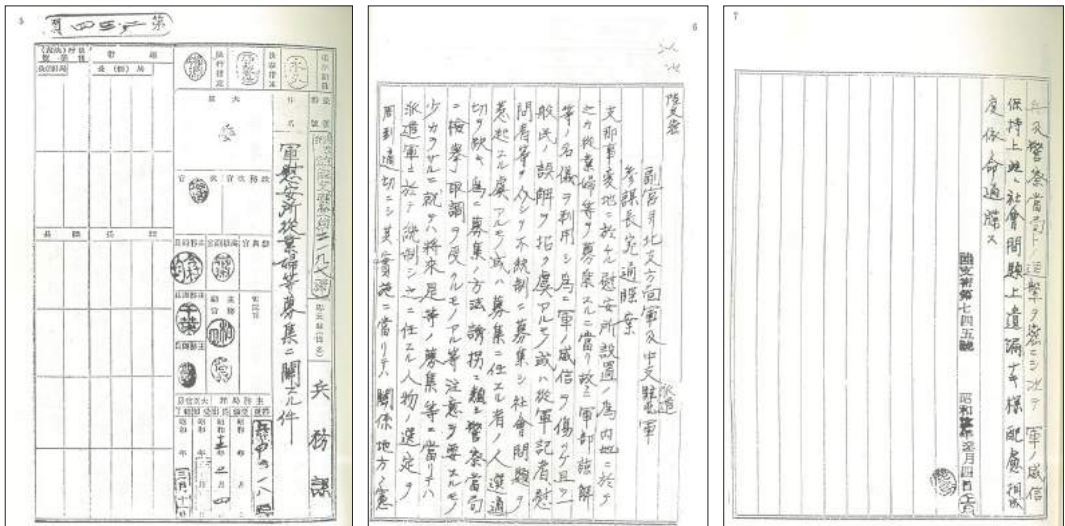
일본군은 침략하거나 점령했던 아시아 각지와 식민지하에 있던 조선과 타이완, 그리고 일본 국내에 일본군 장교와 병사들을 위한 '위안소'를 만들었다. 아래 지도는 피해 여성과 구 일본 병사, 군 관계자, 마을 주민의 증언과 공문서, 군 관계 자료, 재판 자료 등의 간행물을 기초로 하여 '위안소'가 있었던 장소를 표시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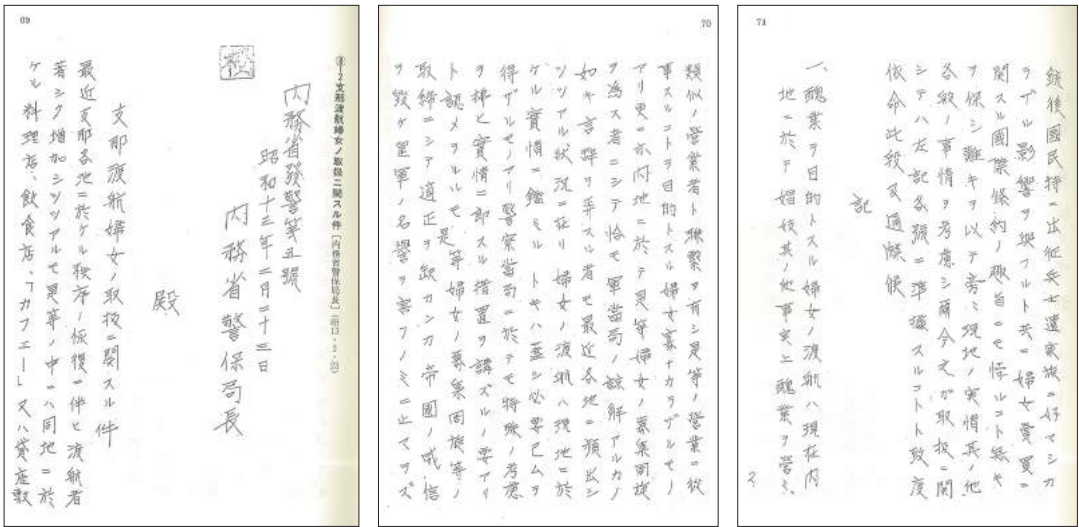
### 3)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업자 선정

- 조선과 중국 등 식민지와 점령지의 가난하고 젊은 여성들을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속이거나 폭력적으로 협박하여 '위안부'로 동원하였는데, 후방 민심과 국제여론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여성을 모집·고용하여 '위안소'를 여는 형태를 취함
  - 모집업자와 군의 관계는 1938년 3월 4일 육군성 부관이 육군차관의 결재를 받아 북부 및 중부 파견군 참모장에게 보낸 통첩이 잘 보여줌
  - 즉 육군성은 통첩에서 "중국지역에 위안소를 설치하기 위해 일본 국내에서 종업부 등을 모집할 때 군부 양해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일반 시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각 파견군이 징집 업무를 통제하고 업자 선정에 보다 철저를 기하며, 징집 시에는 현지의 경찰·헌병과 긴밀히 연대하여 군의 위신 유지와 사회문제 상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함



#### 4) 일본 경찰과 ‘위안부’동원

- 또한 내무성은 1938년 2월 23일 ‘위안부’의 도항은 필요불가결한 것이 있다고 승인하며, “일본에서의 도항은 현재 일본에서 창기 기타 사실 상 추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21세 이상으로, 화류병 기타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에 한하여 묵인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함



- 이 조치는 국제연맹이 1921년 제정하여 일본도 1925년에 가입한 「부녀 및 아동의 매매 금지 국제조약」에서 21세 미만 여성에 대한 모든 성매매 권유와 21세 이상 여성에게 사기, 폭행, 협박 등 일체의 강제적 수단으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임
- 일본정부가 부녀 매매에 관한 국제조약을 식민지인 조선·대만에는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의 통첩은 조선·대만에는 적용(실시)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조선·대만에서는 유괴·인신매매 등(의 방법)으로 모은 21세 미만의 많은 여성들이 군 ‘위안부’로서 동원됨
- ※ 일본 외무성 소장 공문서에는 대만에서 14세 소녀가 군 ‘위안부’로 광둥성으로 연행된 것으로 나타남

### 3. 증언과 문서로 본 ‘위안부’ 피해 실태

#### 1) 증언과 문서 자료의 교차 검토

- 피해 증언이 반드시 문서 자료로써 입증될 필요는 없지만, 연구자는 유관 자료를 최대한 수렴해서 교차 분석해야 할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 증언이 어떠한 힘과 가치를 가지는 지 드러날 수 있음

#### 2) 문옥주와 연합군 자료, ‘위안소’관리인의 일기

##### • 문옥주의 증언

(문옥주는)1942년 7월 초 대구 대명동에 살고 있었는데, “돈을 많이 주는 식당에 가려는데 너도 안 가겠느냐?”고 말하는 친구와 함께 식구들 모르게 집을 빠져 나와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부산역전에 갔더니 2명의 조선인 남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위안소’관리인이었다. 여관에서 하룻밤을 잔 뒤 1942년 7월 10일 부산항에서 배를 탔는데, 군용선 7~8척이 함께 뗏고 여자들이 3,4백 명 넘게 있었다. 대만, 싱가포르를 거쳐 랑군에 도착하자 관리자들이 제비뽑기로 갈 곳을 정해 만다레로 가게 되었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편, 1993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1, 한울 중에서)

##### • 연합군 문서

1942년 5월 초 일본군은 새로 점령한 동남아시아에서 필요한 ‘위안부’를 모집하기 위해 의뢰인을 조선에 파견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군사령부는 조선에서 버마로 ‘위안부’를 데려갈 수 있는 허가를 내줬는데, 당시 서울에서 처제와 함께 식당을 경영하던 일본인 부부는 조선군사령부의 제안에 응해 이 허가를 받았다. 이 일본인 부부는 22명의 조선인 여성을 데리고 1942년 7월 10일 조선인 여성 703명과 90명의 일본인 남녀의 일원으로 부산항을 출발하여 싱가포르를 거쳐 같은 해 8월 20일에 랑군에 도착했다. 랑군에서 그들은 각각 20~30명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버마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각 그룹은 여러 연대나 부대에 부속되었기 때문에 각 부대는 자신의 위안소를 가지고 있었다.[연합군번역통역부국, 1945, 「조사보고서-일본군 위안시설」 『(政府調査)「從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5(財)女性のための平和國民基金編, 1998, 龍溪書舎)]

•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1942년 7월 10일에 부산항을 출발하여 8월 20일에 버마 랑군에 도착한 이른바 ‘제4차 위안단’(안병직 번역·해제, 2013,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이숲, 168쪽)

### 3) 구□□와 타이 국립공문서관 소장 아유타수용소 여성입소자 명단

- 2005년 며느리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사망한 시어머니의 위안부 피해 신고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09년 피해 판정 불능으로 결정
  - 신고인의 진술 상 ‘위안부’일 가능성이 있으나 근거자료가 없어 진술만으로는 ‘위안부’로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증빙자료 발굴 시까지 판정을 보류
- 타이 국립공문서관 소장 아유타 수용소 여성입소자 명단에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2015년 피해자로 인정됨

號	姓	名	別姓	年	備	考
1	CHONG	KYONG	NAN	29		
2	LEE	WAN	SUK	29		
3	KIM	TO	SUI	26		
4	LEE	NAM	SUI	32		
5	GU	PIAN	SU	29		
6	LEE	DONG	SAN	25		
7	LEE	YONG	AE	22		
8	KIM	SILL	TAN	30		
9	IM	YONG	SIN	29		
10	CHONG	KIM	CHOK	26		
11	KIM	JANG	SUN	32		
12	MON	OK	SU	25		
13	LEE	IN	HANNA	23		
14	LEE	SUN	IM	41		
15	OH	HUNG	SUN	20		
16	KIM	YON	BUN	23		
17	YUN	CHONG	SUK	25		
18	TOK	KO	BU ZA	28		
19	LEE	KYONG	AE	23		
20	LEE	JIN	CHAN	25		
21	KIM	SUI	i	25		
22	CHAE	JUNG	i	30		
23	Hi Yon	CHOK	IN	23		
24	KIM	HE	SUN	29		
25	LEE	OH	yo	25		

#### 4) 김복동과 일본군의 우수명부

• 나는 1926년 5월 1일에 경상남도 양산에서 태어났다. 딸만 여섯이었는데 나는 그중 넷째 딸이었다. 열다섯 살 되던 해인 1941년 언니들은 일본 놈한테 끌려간다고 전부 시집을 보냈고, 나는 나이가 어려 괜찮을 것 같아 집안일을 돕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 동네의 구장과 반장이 계급장이 없는 누런 옷을 입은 일본사람과 함께 우리 집에 왔다. 이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에게 군복 만드는 공장에 딸을 보내야 하니 내놓으라고 했다. 아들이 없으니 딸이라도 나라를 위해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해서 끌려가게 되었다. (중략) 중국 광둥과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위안소'를 전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이 오지 않았다. 보름 쯤 지난 어느 날 일본 군인들이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차를 타고 와서 우리를 태우고 떠났다. 우리가 간 곳은 제10육군병원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간호 훈련을 받고 병원 청소도 했으며 환자를 위해 피를 뽑기도 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국정신대연구회 편, 1997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중에서)

- 일본군 제16군사령부 직할부대 제4과 남방반(南方班)이 작성한 조선인 우수명부(留守名簿)
  - 우수명부는 일본 육군 소속 군인군속의 신상 및 현황이 기록된 명부
  - 일본 육군이 군인군속의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본적지의 가족과 신속하게 연락하기 위해 만들
  - 김복동이 1945년 8월 31일 남방 제10육군병원의 용인(庸人)이 되었다고 기록





---

**동아시아사 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

---

• 김정현 (동북아역사재단) •



# 동아시아사 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 -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

김정현 (동북아역사재단)

### 1. 머리말

2012년부터 ‘동아시아사’가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가르쳐지고 있다. ‘동아시아사’ 교과목 등장的主要 배경은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이다. 2000년대 초부터 일본 우익계열이 편찬한 교과서의 역사왜곡<sup>1)</sup>과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역사 갈등이 국민적 국가적 차원으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역사 갈등을 평화롭게 극복하고자 한일·한중일 학자와 역사교육자들간에 교류와 대화가 꾸준히 진전되었고<sup>2)</sup>, 『미래를 여는 역사』등 여러 종류의 공동 역사부교재가 출간되었다.<sup>3)</sup> 상대국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려고 노력한 이들의 성과는 동아시아사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한국정부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추구하는 시민사회와 역사학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07년 ‘동아시아사’ 교과목 개설을 고시하였다.<sup>4)</sup>

‘동아시아사’ 교과목의 신설은 시의적절한 시도으로써 향후 한국의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맥락에서 큰 전환적 의미를 갖는 것,<sup>5)</sup> 한국 역사학의 3분과체제 하에서 한국사는 민족주의·동양사는 중국중심주의·서양사는 유럽중심주의라는 세 가지 중심주의를 넘어설 수

1) 1997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만든 일본 우익들이 제작한 후소사(扶桑社) 판 역사교과서가 2001년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과하였다. 후소사 교과서는 일본 문부성의 수정 권고를 받아 일부 수정했으나, 이후 비슷한 성향의 자유사(自由社), 이쿠호사(育鵬社) 등의 교과서도 역사왜곡에 나섰으며, 최근 일본 정부가 더욱 우경화되면서 역사왜곡이 확산되고 있다.

2) 한국 역사교과서연구회와 일본 역사교육연구회의 대화(1997- ), 한국 전국역사교사 모임과 일본 역사교육자협의회와의 대화(2001- ), 한중일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01-) 등이 대표적이다.

3) 한일공동역사교재제작위원회, 2005, 『조선통신사: 풍신수길의 조선침략과 우호의 통신사』, 한길사( 후속편 2012 『한국과 일본, 그 사이의 역사』, 휴머니스트);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편찬위원회, 2005,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한울; 전국역사교사모임(한국)과 역사교육자협의회(일본), 2006, 『마주보는 한일사 I·II』 사계절(2013년 후속편 출간); 한일역사교과서연구회, 2007, 『한일 교류의 역사』, 헤안 등이며 공동교재는 모두 교사들이 참여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4)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중등학교 교육과정』(2007년 개정 교육과정)

5) 동아시아사 과목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2013년 『동북아역사논총』 40호 특집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 세계사 및 한국사와의 연계방안』의 서문, 7~8쪽

있는 역사적 시야를 열어준 것<sup>6)</sup> 등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동아시아사’ 교과목 신설을 계기로 전문연구자들이 비로소 그것의 개념화와 서술방식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학교 교육이 결정되고 나서 동아시아사 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온 것이 실상이다. 본고는 동아시아사 교과목 개설 결정 후 10년간 전개된 동아시아사 교육의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동아시아사’ 개설의 목적인 역사갈등 해소와 부합하는 주제인 제국주의 침략과 평화교육을 다룬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주요 연구주제와 쟁점, 향후과제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동아시아사 교과목은 ‘동아시아사’로 교과서는 〈동아시아사〉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 2. 동아시아사 교과목의 등장과 관련 연구동향

### 1) 동아시아사의 필요성과 교과개설

‘동아시아사’ 교과목의 개설 이전 1990년대부터 동아시아담론과 상호작용하면서 동아시아사를 하나의 단위로 서술하려는 논의가 등장하였다. 동아시아담론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향에서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로 전개되었고,<sup>7)</sup> 일국사로 포착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역사’이자, ‘일국사에서 세계사에 이르는 중간 단위의 지역사’로서 동아시아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up>8)</sup> 역사학계에서는 ‘국사’와 ‘세계사’를 연결하는 ‘지역사’로, 동아시아를 하나의 ‘문화권’ 또는 하나의 ‘세계’로 고찰하는 동아시아사론이 전개되었다.<sup>9)</sup> 역사교육계에서도 ‘자국사’와 ‘세계사’로 나누어 진 중등학교 역사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내셔널리즘적 ‘국민교육’에서 ‘시민성 교육’으로 전환의 필요성과 자국사와 세계사의 소통이 강조되었다.<sup>10)</sup>

특히 2005년 한중일 3국의 학자와 교사들이 동아시아 최초의 공동역사부교재인『미래를

6) 김기봉, 2013, 「한국 역사학의 재구성을 위한 방법으로서 동아시아사」, 『동북아역사논총』40, 14, 24~25쪽

7) 동아시아담론에 대해서는 한국지식계에서 동아시아가 화두로 부상한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전개과정을 분석한 윤여일, 2014,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 과정 이행」, 『亞細亞研究』67-4, 참조

8) 유용태, 2005, 「다원적 세계사와 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김한중 등 공저,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 함께, 339쪽; 유용태, 2006, 『환호 속의 경중동아시아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성찰』, 휴머니스트, 481~482쪽

9) 박원호, 2012,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를 위한 마지막提言, 『역사학보』216, 34-35쪽

10) 백영서, 2003, 「동아시아의 역사교과서와 국민국가의 경로」, 『학림』 24, 91쪽; 백영서, 2007, 「자국사와 지역의 소통 : 동아시아인의 역사서술의 성찰」, 『역사학보』196.

여는 역사』<sup>11)</sup>를 발간한 후, 역사대화의 확대를 통해 동아시아에 평화와 상생의 공동체를 뒷받침해 줄 ‘기억의 공동체’를 만들고, 동아시아 지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부각되었으며,<sup>12)</sup> 동아시아 역사전쟁에 맞선 학자 교사 시민운동가의 평화 운동의 성과인 공동교재를 기반으로, 국가간 교과서 대화의 가능성이 기대되기도 하였다.<sup>13)</sup> 하지만 기대와 달리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이 더욱 비화되었고, 이러한 역사갈등을 배경으로 ‘동아시아사’ 교과목이 개설되었다.<sup>14)</sup> 2011년 교육목표와 내용체계가 수정된 교육과정에 새로 ‘우리를 비롯한 타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 ‘동아시아 지역에 현존하는 갈등 해소에 주력’이 추가되었다. 한중일의 역사 갈등 해결이 ‘동아시아사’ 신설의 중요 목적임이 더욱 강조된 것이다.<sup>15)</sup>

신설 ‘동아시아사’는 이웃나라들의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주변국에 대한 배타적 대결의식을 지양하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한중일 삼국의 역사갈등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며, 역사교육이 갖고 있던 ‘국사’와 ‘세계사’의 단절이라는 고질적 문제의 해결까지도 도모하는 과목으로서 윤곽을 잡게 되었다.<sup>16)</sup> 2007년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개발은 촉박하게 이루어졌지만, 연구진은 한국사와 중국사, 일본사 전공자, 유럽의 역사대화 전공자와 교사들, 교육과정 전문가, 공동교재와 교육과정에 경험이 있는 최선의 구성<sup>17)</sup>이라고 평가된다. 2007년 고시된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은 주제사 구성을 취하고, 동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나 비교하기 좋은 공통성이 있는 26개 주제를 선정하였다. 동아시아의 지역적 범위는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리적 문화적 관련성과 역사경험의 공유, 미래에 대한 지향을 공유하는 역사적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안내되어 있다.<sup>18)</sup>

교육과정 고시 이후 동아시아사의 구성요소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유럽 중심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를 넘을 수 있는 ‘상대화 시각의 동아시아사 인식’을 제시하고, 다양한 주제의 단원구성 사례를 제시한<sup>19)</sup> 것을 비롯,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진들

11) 『미래를 여는 역사』는 한국 한겨레신문사, 중국 사회과학문헌출판사, 일본 고분켄(高文研) 출판사가 2005년 5월 동시 출간하였다. 한중일 3국에서 30만부 이상 발행되었고, 미국 하와이대학교가 이책의 영어판을 전자책 형태로 출간하였다. 2012년 후속편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1·2가 휴머니스트에서 출간되었다.

12) 김성보, 2007, 『민족·국민사와 동아시아사의 접맥』, 『역사와실학』32, 834, 837쪽

13) 김정인, 2007, 『동아시아 공동 역사교재 개발. 그 경험의 공유와 도약을 위한 모색』,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101, 61-62쪽

14) 교육인적자원부, 2006.12.26 『역사과목독립과 수업시수 확대 등을 담은 역사교육강화 방안 발표』, 4~5쪽. 불임1, 『역사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 안병우, 2012, 『동아시아사 교육의 지향과 내용』, 동북아역사재단, 『2012학년도 동계 동아시아사 교육연수』

15) 차미희, 2014, 『2011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실제』, 『열린교육연구』22-3, 94쪽

16) 정연, 2008,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 체계』, 『동북아역사논총』19, 16쪽

17)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 중 일부는 공동교재 편찬 경험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거나 역사교과서 집필과 다년간 현장경험이 있는 현장 교사들로서, 교육과정에 학습자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지모선, 2013, 『〈동아시아사〉과목의 신설과 교육과정 개발』, 『역사교육』128, 88~89쪽

18) 동북아역사재단, 2009,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해설서』, 343-344쪽

19) 황지숙, 2007, 『상대화 시각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교육 방안』, 『역사교육연구』5.

이 교과서의 구성방식과 내용체계에 대한 연구<sup>20)</sup>를 발표하였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역사 교육이 학계의 역사연구를 앞질러가는 형국이므로 동양사 연구의 성과를 잘 따져 교과서를 집필할 것<sup>21)</sup>과 ‘동아시아사’ 교과목 신설이 결정되기까지의 ‘학계’의 노력<sup>22)</sup> 등이 논의되었다.

## 2) 동아시아사 교육 관련 연구동향

‘동아시아사’ 교과목 개설이 결정된 후, 아시아 평화와 역사연구소는『한중일 동아시아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발간하였고,<sup>23)</sup> ‘동아시아사’ 개설 준비과정에 참여한 동북아역사재단은『동아시아사 교과서집필 안내서』(2009) 『동아시아사 관련 참고자료집』(2010)을 비롯,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대립-청일전쟁에서 한국전쟁까지』(2007), 『동아시아사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인식』(2008), 『유럽과 미국의 동아시아사 교육』(2010), 『동아시아의 역사 I II III』(2010)<sup>24)</sup> 등의 연구서를 지속적으로 출간하였다.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2012년 두 종류, 2014년 세 종류가 출판되어 사용되고 있다.<sup>25)</sup>

‘동아시아사’ 교육이 국내 최초로 시행된 만큼 학계에서 다양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동아시아 학문체계’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 교육현장에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일치된 교육관점이 부족함,<sup>26)</sup> 신설과정의 ‘급진성’, 동아시아라는 지역개념의 ‘불분명성’ 혹은 ‘가변성’, 동아시아지역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교과서 저술목표의 ‘당위성’, 유럽중심주의·중국 중심주의나 자국사 중심주의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는 ‘탈중심주의론’, 한국에서 유통되는 동아시아사 서술의 ‘주체성’, 단기간에 완성된 교과서 내용 서술의 ‘합목적성’ 등이다.<sup>27)</sup>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동아시아사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교과서 관련으로는, 교과서의 탄생 배경을 분석하고 교육과정의 취지가 교과서에 반영

20) 정연, 2008, 앞의 글; 신성근, 2008, 「한국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구성과 그 특징」, 『동아시아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21) 유용태, 2008, 「한국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구성」,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107.

22) 차미희, 2014, 「한국 역사교육에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의미」, 『이화사학연구』48.

23)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편, 2008, 『한중일 동아시아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 도서출판 선인.

24) 『동아시아의 역사 I II III』은 교육과정 26개 내용요소를 다룬 논문을 통해 ‘동아시아사’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되었다. 그런데 이 책이 전근대 몽골과 만주지역을 중국사의 일부로 서술하고, 베트남과 소수민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사 구축의 어려움과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신성근, 2012, 『동아시아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6년- 연구성과 음미』, 동북아역사재단, 4쪽

25) 손승철 외 7명,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교학사, 2011; 안병우 외 8명,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천재교육, 2011; 손승철 외 6명,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교학사, 2013; 안병우 외 8명,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천재교육, 2013; 황진상 외 5명,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비상교육, 2013.

26) 권소연, 2013, 「동아시아사 인식과 교육에 대한 고찰 - 동아시아 근대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논문.

27) 조영현, 2013, 「『동아시아사』교과서의 ‘은 유통과 교역망’-주체의 설정과 그 의미」, 『동북아역사논총』39, 142쪽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sup>28)</sup> 2009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등장한 2종의 검정 교과서를 대단원 별로 분석한 연구,<sup>29)</sup> 교과서 속의 동아시아 공통요소, 평화교육의 관점에 의한 교과서 분석, 교과서의 시각자료 분석, 중국사 서술 부분 분석과 지역사로서의 ‘동아시아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중국사 서술의 방향성 검토 등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sup>30)</sup>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각 집단 사이에 연관성있는 요소를 주제별 접근방식을 통해 묶어내는 ‘연관사’ ‘관계사’ ‘비교사’ 등의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sup>31)</sup> 연관사와 비교사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민주주의를 분석하고 수업안을 제안하거나,<sup>32)</sup> 연관과 비교방법을 통해 학생들 유럽중심주의와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는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sup>33)</sup> 등이 이루어졌다. 수업 주체들의 인식변화와 관련, ‘동아시아사’를 가르친 이후에 교사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sup>34)</sup> ‘동아시아사’에 대한 역사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양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반응,<sup>35)</sup> 평화를 지향하는 동아시아사의 본질적인 목표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sup>36)</sup> 등이 연구되었다.

‘동아시아사’의 교육내용이 여전히 중국의 시대상 파악이 중심이고 동아시아 각국의 관계를 부수적으로 기술하는 방식<sup>37)</sup>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중국 중심주의 극복방안으로, 동아시아의 세계사적 연관성을 높이는 문제가 제시되었으며,<sup>38)</sup> 유럽의 역사교육 현황, 세계사 교육과의 연계방안 등이 새롭게 연구되었다.<sup>39)</sup> 또한 ‘한국사’ 교육에서 동아시아사적 맥

28) 이동욱, 2013, 「〈동아시아사〉 과목의 성격과 교재구성방향」, 『역사와 교육』, 7.

29) 2012년 『역사와 역사교육』 24호에 실린 장수덕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이해-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역사포함) 교육과정 해설을 중심으로」, 장수덕·임환 「〈동아시아사〉 교과서 분석-Ⅰ. 동아시아사 역사의 시작을 중심으로-」, 김봉석·김술기 「〈동아시아사〉 교과서 분석-Ⅱ. 인귀동과 문화의 교류를 중심으로-」, 문경호·장성예 「〈동아시아사〉 교과서 분석-Ⅲ.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를 중심으로-」, 임영태·우종원 「〈동아시아사〉 교과서 분석-Ⅳ. 동아시아 사회의 지속과 발전을 중심으로-」, 김정분·이정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분석-Ⅴ. 국민국가 모색을 중심으로-」, 윤세병·김현경 「〈동아시아사〉 교과서 분석-Ⅵ. 오늘날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등; 정연, 2011,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한국사 서술검토-대단원 1, Ⅱ를 바탕으로」, 『역사교육연구』 14; 김주원, 2014, 「〈동아시아사〉 교과서 Ⅰ, Ⅱ 단원의 서술 내용과 관점,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전소현, 2015, 「〈동아시아사〉 교과서와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비교 분석: 동아시아사 대단원 Ⅱ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등.

30) 김효진, 2013, 「〈동아시아사〉 교과서 속의 동아시아·동아시아의 공통요소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조희연, 2016, 「평화교육의 관점에 의한 '동아시아사' 교과서 분석」, 경상대 석사논문; 이수정, 2012,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시각자료 분석」, 한양대 석사논문; 이수진, 2016, 「박물관을 활용한 〈동아시아사〉 프로젝트 학습 방안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김지훈, 2013,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중국사 서술」, 『史林』 46; 김혜수, 2015, 「한국 동아시아사 교과서와 중국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비교와 분석」, 한국외국어대 석사논문 등.

31) 연관과 비교의 지역사는 상호 의존과 공존의 경험 및 가치를 파악하는 동시에 타자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역사인식을 증진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유웅태, 2009, 「동아시아사의 의미: 연관과 비교의 지역사」, 『2009년 하계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교재』, 동북아역사재단, 26~28쪽. 이 연관과 비교의 방법을 실제 서술에 적용한 책이 유웅태 외, 『함께 읽는 동아시아 현대사』 : 2, 창비, 2010·2011이다.

32) 김민수, 2014, 「〈동아시아사〉 관점에서 구성된 민주주의 수업: 비교사와 연관사의 관점에서 접근한 〈동아시아사〉 수업안」, 『역사교육연구』 19, 421쪽

33) 김지은, 2016, 「〈동아시아사〉 과목을 통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역사인식 변화」, 고려대 석사논문.

34) 주은구, 2014, 「고등학교 역사교사의 〈동아시아사〉 수업 전후의 인식 변화」, 고려대 석사 논문.

35) 김유리, 2014,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에 대한 역사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분석」, 『歷史教育』 130.

36) 윤세병, 2015, 「〈동아시아사〉 수업과 평화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47.

37) 박근칠, 2013,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기술 내용과 개선 방안」, 『동북아역사논총』 40, 160쪽

38) 박혜정, 2013, 「지구사적 관점으로 본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 『동북아역사논총』 40, 132, 135쪽

39) 롤프 비텐브록, 2009, 「유럽의 역사공통교과서 편찬 경험」, 『기억의 공유와 다원적 보편성』, 동북아역사재단; 황인규, 2014, 「세계의 공동 역사교과서와 공동 역사서의 편찬과 간행-현황과 실태, 그 의의를 중심으로」, 『역사와 교육』 19; 강선주, 2013,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연계 방안」, 『동북아역사논총』 40.

락에 대한 인식에 일정한 진전을 가져왔고, 역사교육에서 한국사와 동아시아사의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sup>40)</sup> ‘동아시아사’의 주요 내용인 베트남사 교육을 위한 사례 연구,<sup>41)</sup> 일본과 몽골의 ‘동아시아사’ 교육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졌다.<sup>42)</sup> 동아시아사 교육방법의 일환으로 박물관을 활용한 ‘동아시아사’ 학습방안 연구와 일본에서의 동아시아사 전시교육 등에 대한 연구<sup>43)</sup>가 있으며, 초등교육과 대학교육 분야에서도 동아시아사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분석하고 지나친 민족주의 시각을 우려한 연구, 대학교양교육을 위한 동아시아사 교육방안 연구<sup>44)</sup> 등의 고찰이 이루어졌다.

### 3. 동아시아 근현대사 교육 연구의 쟁점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내용 중에서, 비교적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별 구성, 근대 국민국가와 제국화, 동아시아사의 지역범주와 베트남사 교육, 평화교육 등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동향과 논쟁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 1) 주제별 구성

‘동아시아사’는 개설목적에 잘 부합하도록 통사식 체제가 아니라 주제별 구성을 택하였다. 하지만 각국사의 지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시대별, 국가별 역사 흐름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현장교사들은 ‘동아시아사’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신설과목인데다 주제별 학습방식이라 수업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동아시아사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고, 심지어 과목 개설 취지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보였다.<sup>45)</sup> 주제별 구

40) 김정인, 2014, 「한국사 연구와 교육의 시민화 경로로서의 동아시아사」, 『史林』47, 85쪽

41) 김정인, 2014, 「한국사 연구와 교육의 시민화 경로로서의 동아시아사」, 『史林』47, 85쪽

42) 마루하마 에리코, 2008, 「역사분쟁과 ‘동아시아사’ 수업」,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편, 『한·중·일 동아시아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 도서출판 선안; 김정구, 2008, 「몽골 역사교육의 동아시아 인식에 대한 고찰」, 『동북아역사논총』19

43) 이수진, 2016, 「박물관을 활용한 〈동아시아사〉 프로젝트 학습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남영주, 2015,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의 전쟁기억과 『동아시아사』교육」, 『일본근대학연구』, 50.

44) 임기환, 2012, 「동아시아사의 관점에서 본 초등학교 역사교과서:전근대사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15; 유지아, 2011, 「대학교양교육을 위한 동아시아사 교육방안연구 : 근대 이후 동아시아관 형성과 현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5-1.

45) 김유리, 2014, 앞의 글, 6-9쪽

성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대사 개관이나 연표 등을 교과서에 포함시키는 방법,<sup>46)</sup> 교과서에 등장하는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사용 사전 혹은 용어 해설집이 필요하다는<sup>47)</sup>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2011년 개정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은 시대적 흐름을 강조하는 통사적 성격이 강화되고, ‘주제사에 통사가 혼합된 구성체제’로 바뀌었다. 이는 주제사를 표방한 원래의 방침과 배치되므로, 주제사 체제를 유지하고 시대별 개관을 추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sup>48)</sup> 사실보다 해석에 방점을 찍는 주제별 학습으로는 부족한 인문적 교양지식 학습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sup>49)</sup>

## 2) 근대 국민국가와 제국화 문제

〈동아시아사〉는 근대 ‘국민국가’의 시간범주를 19세기 중엽 개항이후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결까지로 하였다. 이는 이전의 〈세계사〉 교과서가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모색을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로 한정시킴으로써 동아시아를 유럽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일본의 성공과 여타 국가들의 실패를 당연시하게 했던 구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근대 국민국가’의 서술에서 아편전쟁을 기준으로 전 근대와 근현대를 나누는 시대구분의 틀은 깨어져야 하며, 20세기 중반까지 동아시아 삼국이 추구하였던 정치체제가 국민국가였는가, 민주 국가였는가, 공화정 국가였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sup>50)</sup>이 있다. 그런데 2011년 교육과정에서 ‘개항과 근대국민국가의 수립’이 ‘근대화 운동과 국제관계의 변동’으로 바뀐 결과 내용요소에 ‘국민국가’ 부분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는 본래의 주제중심 내용구성 원칙과 어긋나는 근대주의적 시각이 두드러진 편향된 시각이며<sup>51)</sup>, 영역 명칭의 일반성과 불균형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sup>52)</sup>이라 비판받고 있다.

제국주의 침략 관련 연구로는, 〈동아시아사〉가 청·일전쟁을 일본의 세력확대 과정으로 서술하여 그것이 동아시아 각국의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

46) 김지은, 2016, 앞의 글, 55쪽

47) 윤세병, 2015, 앞의 글, 253쪽

48) 김유리·신성곤, 2014, 「2011년 개정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역사교육』132, 29쪽

49) 정하현, 2016, 「역사교육에서 국가주의적 시각, 그리고 동아시아」, 『역사교육』138, 124쪽

50) 이영욱, 2013, 「선택과 연계 :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청대 관련 서술분석」, 『역사교육논집』50, 257쪽

51) 유용태, 2013, 「동아시아 지역사 서술의 현황과 과제 : 고등학교 『동아시아사』(2012) 근현대 부분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40, 186쪽

52) 차미희, 2014, 앞의 글, 95쪽

하고,<sup>53)</sup>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에 대한 우리의 주체적 시각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제국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며,<sup>54)</sup> 동아시아의 전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침략과 저항 위주의 역사가 아니라, 이주민과 소수민족 등 관련된 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sup>55)</sup>는 등의 연구가 있다. 이밖에도 다수의 역사교육 전공 학위논문들이 동아시아의 개항, 러일전쟁, 근대국가 수립, 서구문물의 수용 등 근대서술의 문제를 분석하였다.<sup>56)</sup>

### 3) 동아시아사의 지역범주와 베트남사 교육의 문제

‘동아시아사의 지역범주’ 관련 연구로는, 동아시아 세계는 고정적인 지역세계로 존재하지 않으며,<sup>57)</sup> 현재적 입장과 시각에 따라서 자유로이 신축하는 공간(장소)이고,<sup>58)</sup> ‘동아시아사’가 단순한 일국사의 조합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이 지역에 펼쳐졌던 초국적 공간들을 포착해 내야하며,<sup>59)</sup> 거시적 동아시아 역사상과 지방성(LOCALITY)의 미시적 배합을 연구해야 한다<sup>60)</sup>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역사로서의 동아시아사를 연구하는 시각으로, ‘주변의 시각’에서 지역사를 구성할 필요성이 강조되었고,<sup>61)</sup> 프론티어 히스토리로서의 동아시아 역사상과 ‘주변’이 갖는 다층성과 다원성에 주목한 연구가 등장하였다.<sup>62)</sup> 반면 변경에 역사서술의 주권을 부여하려는 프론티어 히스토리로서의 동아시아사에 회의를 표명하며, 글로벌 히스토리의 일부라는 시각에서 동아시아사를 재구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sup>63)</sup>

베트남사는 그동안 배울 기회가 거의 없던 생소한 나라였으나, ‘동아시아사’ 교육을 통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나라라는 인식과 동아시아의 일원이라는 친근감을 갖게 되었으

53) 김정분 이정교, 2012, 앞의 글, 120, 129쪽.

54) 예컨대 근대 일본의 제국화는 1874년 타이완 침공을 기점으로 명확히 구체화되었다. 1875년 운요호 사건은 타이완 침공에서 실행된 포함외교의 재현으로 보아야 한다. 淸國은 1880년대 초부터 근대적 식민제국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였고, 청국의 제국화는 임오공란 직후 조선에 대한 속방화정책으로 나타났다. 교과서는 일본제국의 침략에 치중한 나머지 이에 대해 마땅히 기울여야 할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유용태, 2013, 앞의 글, 188-190, 196쪽

55) 개항 이후 동아시아 근대 전체상을 이해하는 데 동아시아의 이주민은 중요한 주제이다. 화교의 디아스포라 역시 한중일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연계할 수 있는 주제라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은자, 2013, 「동아시아사 서술의 의미와 그 한계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근대 부분 서술 내용 분석」, 『史林』46, 640쪽; 신해혁명 직후 독립을 선언한 외몽골의 국민국가, 타이완·베트남의 이주민·만주지역 조선인의 역사는 동아시아사의 중요한 사건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유용태, 2013, 앞의 글, 195-196쪽

56) 김지현, 2015,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개항기 서술 분석」, 한양대; 윤동하, 2012,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2009년 개정)의 내용 개선방안 연구」, 이화여대; 전세미, 2015, 「2011 개정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근대사 단원 분석」, 중앙대; 최옥경, 2015,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근대 서술 분석」, 전남대; 지연정, 2014, 「고등학교 『동아시아사』(2014년판)의 「근대 국가 수립의 모색」 분석」, 이화여대; 홍보람, 2014, 「지역세계사로서의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분석: 「서구 문물의 수용과 사회변화」 단원을 중심으로」, 중앙대 등의 석사논문이 있다.

57) 니타니 사다오, 2008, 「일본 세계사 교육의 동아시아사」, 『동북아역사논총』19, 40~41쪽

58) 윤해동, 2013,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를 보는 방법」, 『동북아역사논총』40, 59쪽

59) 김승욱, 2013, 「『동아시아사』의 공간적 맥락 -교과서 서술과 관련하여」, 『中國學報』67, 205쪽

60) 하세봉, 2008, 「동아시아 역사상, 그 구축의 방식과 윤곽」, 『역사학보』200, 28~29쪽

61) 백영서, 2007, 「자국사와 지역사의 소통: 동아시아인의 역사서술의 성찰」, 『역사학보』196.

62) 임성모, 2007, 「주변의 시선으로 본 동아시아사」, 『역사비평』79.

63) 강진아, 2007, 「이주와 유통으로 본 근현대 동아시아경제사」, 『역사비평』79.

며,<sup>64)</sup> 베트남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면서 상대국의 역사에 대한 존중감과 균형감있는 관점을 갖게 되고, 세계를 보는 시야도 넓어졌다<sup>65)</sup>고 한다. 그런데 『2015 역사과 교육과정시안 개발연구』(연구보고CRC 2015-12)는 ‘동아시아문화권에 속하는 베트남 지역은 베트남 북부 지역에 한정’되므로 ‘베트남사는 울령·유교·베트남 전쟁만 서술’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축소는 동아시아의 범위를 ‘동서로는 일본 열도에서 티베트 고원까지, 남북으로 베트남에서 몽골 고원으로 정한다’고 명시한 ‘동아시아사’ 성취기준과 맞지 않으며, 동아시아사의 지역범위를 동아시아문화권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은 자칫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용인하는 위험성이 있다<sup>66)</sup>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4) 평화교육

‘동아시아사’ 교육은 동아시아 역사갈등을 해결하는 데 일조하는 평화교육을 지향한다. 실제로 ‘동아시아사’를 배운 학생들의 일본인식은 배우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대체로 상호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며,<sup>67)</sup> 수업에서 배운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을 통해서 학생들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일본인들이 존재하며, 소수의 극우 일본인 때문에 다수의 일본인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동아시아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평화’에 대한 생각이며,<sup>68)</sup> 평화교육을 통해 ‘동아시아사’가 주변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함께 공존하는 법을 모색하는 과목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수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조사되었다.<sup>69)</sup>

평화교육 관련 연구로는, ‘동아시아사’ 신설의 목적과 부합하는 주제인 반전 연대 및 ‘평화를 지향한 노력’에 대해 조금 더 면밀히 다룰 필요가 있으며,<sup>70)</sup> 반전평화를 논할 때 침략전쟁과 저항전쟁을 구분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sup>71)</sup> 또한 <동아시아사>는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난징대학살 등 일본에 의한 전쟁피해 사실이 매우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교과서 서술을 보충하기 위한 자료가

64) 김지은, 2016, 앞의 글, 32-33쪽

65) 전병철, 2015, 『동아시아사 교육에서 목표로서의 태도 형성』, 『역사교육논집』56, 256-257쪽

66) 윤세병, 2015, 『학습부담 경감'으로 포장된 역사교육의 퇴행 :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내용 구성의 문제점』, 『역사비평』113, 335쪽

67) 전병철, 2015, 앞의 글, 266쪽

68) 김지은, 2016, 앞의 글, 30, 38, 55쪽

69) 고양파주역사교사모임, 2013, 『동아시아사 수업,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역사교육』제102호(가을), 130~131쪽, 윤세병, 2015, 『동아시아사 수업과 평화 인식』, 『동북아역사논총』47, 254쪽

70) 김정분 이정교, 2012, 『(동아시아사) 교과서 분석 5 : '국민 국가 모색'을 중심으로』, 『역사와 역사교육』24, 122쪽; 김정현, 2011, 『평화를 향한 노력과 국제연대』, 『동아시아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71) 유용태, 2013, 앞의 글, 194쪽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평화교육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일본의 평화자료관이 보여준 일본인들의 전쟁기억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sup>72)</sup> 등과 같이 박물관을 통한 평화교육의 방법이 제시되었다.

#### 4. 동아시아사 교육의 향후 과제와 전망

신설된 ‘동아시아사’ 교과목은 주제별 구성과 시대사를 함께 지향하는 새로운 시도가 교사와 학생들에게 신선하게 작용하며 학교 현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고,<sup>73)</sup> 연구자들이 동아시아사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단계를 넘어서, 국제관계의 변화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적 소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된 점에 의의가 있다.<sup>74)</sup> ‘동아시아사’ 과목의 성공적인 정착은 교육과정뿐 아니라 학문적, 국제정치적 의미가 크며, 그 성공 여부가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동아시아에서 ‘소통적 보편성’ 지향의 역사서술 문제, ‘지역사와 주제사’라는 교과목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 ‘국민국가’와 ‘제국화’에 대한 개념정의 문제, 수업현장에서의 평화교육의 실천, ‘지역사’를 넘어 스스로의 세계사 쓰기로서의 동아시아사 서술의 필요성, 영토교육에서 과거사 문제와의 연관<sup>75)</sup> 등 ‘동아시아사’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와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근현대 ‘동아시아사’ 내용이 동아시아 역사 갈등의 화해와 공동번영 추구라는 ‘동아시아사’ 과목의 개설 목표와 부합함에도, 2011년 교육과정에서 전근대와 근현대의 비율이 2:1에 근접할 정도로 전근대의 비중이 늘고 근현대사 부분이 많이 감축되었다. 이는 근현대사 교육을 강조해 온 기존 학계의 경향과 배치되는 현상이며, 적절한 비중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sup>76)</sup>

‘동아시아사’ 교육이 ‘세계사 속의 동아시아사’와 ‘동아시아사 속의 한국사’를 균형감 있게 포착할 수 있는 ‘동아시아사’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연구자들의 지적사항이다. 이를 위해 역사학과 역사교육 전공자들이 현장교사들과 함께 심도 있는 공동연구의 노력

72) 남영주, 2015,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의 전쟁기억과 『동아시아사』교육』, 『일본근대학연구』, 50, 77-78쪽

73) 2014년도 선택률은 43.5%로, 세계사 선택비율 35.2%보다 높고, 사회과 8개 선택 과목 중 4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한국교육개발원, 2014, 『사회과』 선택 교과목 및 교원 현황』, 18쪽

74) 이영옥, 2013, 앞의 글, 245쪽

75) 김정인, 2015,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통해 본 영토교육의 현황과 과제』, 『史林』, 52, 김정인, 2010, 『동아시아사』 서술에서 영토 문제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독도연구』, 8

76) 김유리 · 신성곤, 2014, 앞의 글, 10쪽

과 전문성 획득이 필요하며,<sup>77)</sup>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참고자료의 확충은 물론 실질적인 교원연수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sup>78)</sup> 앞으로 동아시아사 교육의 학술적·실천적 주제에 대한 연구와 논쟁, 다양한 교육활동의 축적을 기반으로, ‘동아시아사’가 가진 새로운 역사교육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민수, 2014, 「〈동아시아사〉 관점에서 구성한 민주주의 수업」, 『역사교육연구』19.
- 김승욱, 2013, 「‘동아시아사’의 공간적 맥락-교과서 서술과 관련하여」, 『中國學報』67.
- 김유리, 2014,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에 대한 역사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분석」,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130.
- 김유리·신성근, 2014, 「2011년 개정〈동아시아사〉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132.
- 김정분·이정교, 2012, 「〈동아시아사〉 교과서 분석 5 : ‘국민 국가 모색’을 중심으로」, 『역사와 역사교육』24.
- 김정인, 2014, 「한국사 연구와 교육의 시민화 경로로서의 동아시아사」, 『史林』47.
- 김지훈, 2013,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중국사 서술」, 『史林』46.
- 나리따 류우이찌, 2006, 「‘동아시아사’의 가능성-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에 대하여」, 『창작과 비평』34권 1호.
- 박원호, 2009,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 구성을 위한 再論」, 『한국사학보』34.
- 박원호, 2012,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를 위한 마지막 提言」, 『역사학보』216.
- 백영서, 2007, 「자국사와 지역사의 소통:동아시아인의 역사서술의 성찰」, 『역사학보』196.
- 신성근, 2008, 「한국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구성과 그 특징」, 『동아시아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 유용태, 2008, 「한국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구성: 동양사 연구 60년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사」, 『歷史教育』107.
- 유용태, 2013, 「동아시아 지역사 서술의 현황과 과제 : 고등학교 『동아시아사』(2012) 근현대 부분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40.
- 윤세병, 2015, 「‘학습부담 경감’으로 포장된 역사교육의 퇴행」, 『역사비평』113.
- 윤세병, 2015, 「동아시아사 수업과 평화 인식」, 『동북아역사논총』47.
- 이동욱, 2013, 「〈동아시아사〉과목의 성격과 교재구성방향」, 『역사와교육』7.

77) 정하현, 2016, 앞의 글, 126-127쪽

78) 김유리, 2014, 앞의 글, 28쪽

- 이승훈 이강우, 2015,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수업에 대한 구성주의 인물학습 방안의 적용 사례 연구-‘호찌민’의 이해를 중심으로」, 『베트남연구』13.
- 이영옥, 2013, 「선택과 연계-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청대(清代) 관련 서술분석」, 『역사교육논집』50.
- 이은자, 2013, 「동아시아사 서술의 의미와 그 한계-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근대 부분 서술 내용 분석」, 『史林』46.
- 전병철, 2015, 「동아시아사 교육에서 목표로서의 태도 형성」, 『역사교육논집』56.
- 정연, 2008,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 체계」, 『동북아역사논총』19.
- 정하현, 2016, 「역사교육에서 국가주의적 시각, 그리고 동아시아」, 『역사교육』138.
- 조영현, 2013,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은유통과 교역망」, 『동북아역사논총』39.
- 지모선, 2013, 「<동아시아사> 과목의 신설과 교육과정 개발」, 『역사교육』128.
- 차미희, 2014, 「2011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실제」, 『열린교육연구』22-3.
- 차미희, 2014, 「한국 역사교육에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의미」, 『이화사학연구』48.
- 하세봉, 2008, 「동아시아 역사상, 그 구축의 방식과 윤곽」, 『역사학보』200.
- 한운석, 2009, 『유럽과 미국의 동아시아사 교육』, 동북아역사재단.
- 황지숙, 2008, 「한국 중·고등학교 역사교사들의 동아시아사 교육인식」,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편, 『한·중·일 동아시아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 도서출판 선인.

---

# 동아시아사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

• 윤세병 (대전 유성생명과학고) •



# 동아시아사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세병 (대전 유성생명과학고)

## 1. 호불호가 갈리는 동아시아사 수업

동아시아사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호불호가 확연히 갈리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서 참신하다라든가 학습 부담이 적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 좋다는 평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상반된 평가도 존재한다.

우선 가르칠 양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있다.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다. 좀 더 나아가면 한국사면 한국사고 세계사면 세계사지 왜 이도저도 아닌 동아시아사냐라는 불멘 소리도 존재한다.

2007개정 교육과정으로 탄생한 동아시아사는 도입 단계에서부터 많은 진통을 겪었다. 오랜 동안 중등 역사과의 기본 틀은 자국사인 한국사와 외국사인 세계사라는 양대 축으로 운영되었다.

自他가 구별되는 이원 체제에서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베트남사를 포괄한 동아시아사는 상당히 돌출적인 것이었다. 한국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양사와 서양사의 합인 세계사도 아닌, 한국사의 경계를 뛰어넘어 한국사를 상대화하고 주변국과의 공존을 모색한다는 동아시아사는 첫 걸음부터 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교과목의 설립 취지, 내용 구성의 방법, 연구 성과의 축적, 현장 교사들의 역량 등의 문제를 놓고 설전이 오가기도 하였다. 2012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본격적인 동아시아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단원명	중단원명
I.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 학습, 선사 문화의 전개, 농경 사회와 목축사회, 국가의 성립과 발전
II.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인구 이동과 교류의 증대, 불교의 전파와 토착화, 율령 체계의 수용, 국제 관계와 외교 활동
III.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북방 민족의 성장, 농업의 발전과 소농 경영, 새로운 지배층의 등장, 성리학의 성립과 확산
IV. 국제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 인구 증가와 도시화, 전통 사회의 완성
V. 국민국가의 수립	개항과 국민국가 수립 노력, 제국주의 침략과 피해, 민족주의와 민족운동, 평화를 위한 노력, 서구 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
VI. 오늘날의 동아시아	전후 처리와 국교 회복, 냉전과 전쟁, 경제 성장과 역내 교역 활성화, 민주화와 사회 변화, 동아시아의 갈등과 화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총 6개의 대단원이 있고, 대단원 별로 4~5개의 중단원이 있다. 전체적으로 통사의 흐름을 취하고 있으나, 각각의 대단원 안으로 들어가면 주제사 구성의 경향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주제사로 갈 경우 시대사의 흐름에 취약할 수 있어, II의 ‘인구 이동과 교류의 증대’, III의 ‘북방민족의 성장’, IV의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과 ‘전통 사회의 완성’처럼 해당 대단원의 정치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단원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사가 힘든 과목이라 여기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그 원인에 대해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신생 교과로서 동아시아사에 등장하는 새로운 지식이 교사들에게 상당한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교사들은 한국사의 경우 학생들과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내러티브 요소가 가미된 지식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동아시아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식의 외연이 넓지 않을뿐더러 교과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가령 수업 시간에 학생이 교과서에 실린 지도를 보고 원난 지역에 있었던 당 대의 南詔나 송 대의 大理에 대해 질문을 해오면 답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2) 교사가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내용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미

각각 알고 있던 한국사 지식과 세계사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한 예를 들어보자.

① 고조선은 기원전 3세기 무렵 왕을 칭하면서 라오허 강을 경계로 연과 대립하였으나, 연의 침입으로부터 타격을 받아 중심지를 평양으로 옮겼다. ② 진·한 교체기에 연으로부터 위만이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망명하였다. 그는 서쪽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았다가 후에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천재 38~39. 밑줄과 번호는 필자)

①의 연(燕)에 대해서는 책의 날개 단에 ‘춘추 전국 시대 중국 북부에 있던 나라로 전국 7의 하나’라고 설명해 놓고 있다.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②의 연이 ①의 연과 동일한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 그렇지만 ①과 ②에서 언급하는 연이 서로 다르다. 진이 전국시대를 통일하였다는 내용이 인용문의 바로 앞부분에 서술되어 있는데, ‘진이 통일하면서 망한 연이 어떻게 다시 등장하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한 교사는 교재 연구를 하다가 ‘위만이 고조선에 망명하기 전에 살았던 연’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해 온 적이 있다. 같은 소단원에 한이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군국제를 시행하여 왕조의 안정을 꾀하였다’라는 서술이 있음에도 이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세계사의 ‘군국제 시행’과 한국사의 ‘위만의 망명’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의 개국공신이었던 노관을 한 고조가 변방의 제후인 연왕으로 임명하였으나, 제후들이 하나 둘씩 제거되면서 노관은 흉노로 도망가고 위만은 고조선으로 망명한 상황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생긴 문제이다. 한국사와 세계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사와 세계사의 격절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사의 과목 특성에 맞게 양자의 융합이 적절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고조선의 역사 전개를 중원 왕조인 한과 유목 왕조인 흉노와의 관계 속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동아시아적 시각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한 무제가 고조선을 정복하는 한 원인으로써 ‘고조선이 흉노와 연합할 가능성’이라 서술한 부분도(천재, 41)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도 고조선-한-흉노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한국사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계사 지식이 동아시아사의 이해를 가로 막는 경우도 존재한다. 세계사의 중국사와 일본사 내용에 비해 동아시아사에서는 그 내용이 좀 더 깊이 들어간다. 좀 더 촘촘하게 서술되면서 기존에 보이지 않던 문제점이 노출된다. 가령 성리학과 관련된 부분을 보자.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는 사서에 성선설, 성즉리, 수행의 방법 등 성리학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고, 주석을 달아 “사서집주”를 저술하였다. 이 책은 원 대에 과거 시험의 교재로 채택되었고, 이후 수백 년 동안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책으로 통용되었다. … 명은 민족적·전통적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과거제를 강화하고 성리학을 관학으로 수용하였다.(천재, 121)

일반적으로 학교 현장의 세계사 수업에서 성리학은 남송 시기에 주희가 집대성하였고 명대에 관학으로서 그 입지가 확고해졌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원대의 성리학에 대한 서술이 빠진 상태에서 성리학이 관학화하는 시점을 자연스럽게 명대로 설정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원대에는 관리 등용에서 과거의 비중이 줄어들었다가 명의 건국과 함께 과거제의 비중이 커지고 과거 시험의 내용으로써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는 설명 틀을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더구나 북방민족과의 대치 상황에서 송대의 성리학이 화이론을 강조한다고 함으로써 이민족 왕조였던 원대에는 성리학이 위축되었다는 논리적 연결까지도 시도한다. 그런데 성리학은 이미 원대에 관학이 되었다.<sup>1)</sup> 천재교육판의 경우 위에 인용한 것처럼 주희의 『사서집주』가 원대에 과거의 시험 교재로 사용되었다든가 혹은 특별 코너의 이색이 ‘원의 국자감에서 성리학을 배웠다’는 대목을 통해 이미 원대에 성리학이 관학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2)</sup> 그렇지만 기존에 형성된 관념에 따라 명이 성리학을 관학으로 수용하였다는 서술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되고, 원대에 이루어진 성리학의 관학화에 대한 설명을 빼먹기 쉽다. 이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고려 말 안향 등이 성리학을 수입하는 것보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원대에 위축되었던 혹은 원이 금기시하던 성리학을 고려 말에 수입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새로운 내용에 충돌은 없는 지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고, 동아시아사의 구성 방식이 국경을 넘어 상호 관련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여러 나라가 함께 얽혀 있는 사실은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4) 교과서가 통사가 아닌 주제사 방식으로 구성됨으로써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주제사의 형태를 띠다 하더라도 천재교육판과 교학사판은 서로 형태를 달리 하고 있다. 전자가 하나의 소단원 안에 각국사의 내용을 혼합하여 서술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각국사 별로 소단원을 구성하여 각국사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두 종의 교과

1)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1, 『동아시아의 역사Ⅱ』, 동북아역사재단, 156~158쪽.

2) 교학사판의 경우 성리학이 원대 중엽 이후 관학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교학, 108)

서에 대한 전국적인 채택률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은 없는 것 같다.<sup>3)</sup>

그간 역사 학습에서 불교, 성리학 등 하나의 주제를 놓고 깊이 공부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교사들은 Ⅱ단원의 불교나 Ⅲ단원의 성리학을 깊이 있게 수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불교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정된 부파 불교, 밀교, 만다라 등의 개념을 설명하다가 정작 중요한 동아시아의 불교를 공부하기도 전에 힘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성리학의 이론적 내용도 학생들에게 풀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Ⅲ단원의 소농 경제 부분은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교사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그래서 고양·파주 모임의 한 교사는 “Ⅰ단원과 Ⅱ단원까지는 어떻게든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동아시아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목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리저리 자료를 뒤지고 학생들의 활동을 고민해 보았지만, Ⅲ단원부터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사실 이러한 한계는 Ⅱ단원의 불교, 율령, 국제 관계부터 시작되었고, Ⅲ단원에 가서는 멘붕이 되었다”고 슬회하였다.<sup>4)</sup>

(5) 교과서 서술이 맥락상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해 이해를 가로막기도 한다. 중국사의 전개는 비중도 크고 흐름이 잡힐 수 있도록 서술되었지만 일본사와 베트남사는 그러하지 못하다. 가령 일본사를 이해하는 데 다이묘가 중요함에도 명칭 대의 신사만큼 공을 들여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지배세력이었던 사대부와 대비시켜 일본의 지배 세력을 무사라는 범주로 설정하고 서술하다보니 생긴 문제로 보인다.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고케닌을 슈고와 지토로 파견하는 내용은 있으나, 맥락 없이 에도시대의 막번 체제나 산킨고타이 제도를 설명하면서 갑작스레 다이묘를 등장시킨다. 슈고가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 다이묘로 성장하고(守護大名), 다이묘들 간에 패권 다툼이 전개되는 전국시대를 거쳐(戰國大名), 에도 시대에 이른다는 연결성이 미약하다 보니 맥락적 이해가 어렵다.

일본에 비하면 베트남의 비중은 훨씬 더 약하다. 한 학생은 베트남사는 나타나는가 싶으면 사라지고 잊을 듯하면 다시 등장한다고 말한다. 기초 지식이 부족한 만큼 좀 더 친절한 서술을 요한다. 가령 베트남의 명칭부터 복잡하게 다가온다. 남비엣(남월), 대월, 베트남이 어떠한 관계인지, 리 왕조나 쩐 왕조 시기의 동아시아 정세를 나타낸 지도에(천재 90·92,

3) 교과서를 선택할 때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 통합적으로 서술한 천재교육판의 교과서가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구성 방식이라는 점, 각국사의 형태를 유지한 교학사판이 현실적으로 교사가 가르치기에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도 편리하다는 점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

4) 고양파주역사교사모임, 2013, 「동아시아사 수업,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역사교육』 제102호(가을), 143쪽.

교학 77·80) 베트남을 대월이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다.<sup>5)</sup> 그리고 베트남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서술의 보안이 보완이 필요하다.

중국사의 경우에도 맥락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보인다. 가령 장거정이 각종 정책을 실시하여 명의 재정을 상당히 호전시켰다고 하였지만 이것이 뒤의 일조편법 시행과는 별개의 사실처럼 보인다.(천재, 132, 147). 청, 인도, 영국 간의 삼각무역에 관한 서술은 압축적으로 서술하다 보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18세기 중엽에는 영국이 진출하여 청과의 무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면직물과 비단, 차를 사들이고 은과 인도산 목화를 수출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차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영국이 지출하는 은의 규모도 커졌고,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영국은 세기 말부터 은 대신 아편을 청에 팔았다.(천재, 145. 밑줄 필자)

문맥상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청으로부터 면직물과 비단, 청에 차를 수입하고 은과 인도산 목화를 수출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비단과 차를 청으로부터 수입한 것은 맞지만 면직물은 인도에 수출한 것이고 인도산 목화는 인도로부터 수입한 것이다. 서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6) 학생들의 경우 통사 지식이 빈약한 상태에서 동아시아사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측면이 있다. 교사들은 동아시아사가 교류나 관계사를 중시하지만 학생들은 각국사에 대한 통사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다보니 힘들어 했다고 한다. 한국사의 경우 단일한 역사가 종적으로 전개되는데 반해, 각국사에 대한 지식도 빈약한 상태에서 여러 나라의 역사가 종횡으로 시선이 교차하다 보니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각국사에 대한 이해가 취약한 상황에서 상호 관계성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동아시아사 이해에 필요한 한국사 외의 지식은 대부분 중학교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에 의존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중학교의 한국사와 세계사가 통합된 <역사>에서 2학년과 3학년에 각각 전근대와 근현대 부분을 나누어 배우는데, 한국사를 앞부분에 세계사를 뒷부분에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는 상세하게 배우는데 비

5) 짜에우 대(趙陀)가 세운 남 비엣(南越)이 한 무제에 의해 멸망한 이후 1000여 년 간 중국을 지배를 받다가, 단 보 린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세운 단 왕조(966~980)는 다이 꼬 비엣(大瞿越)을 국호로 내걸었다. 다이 꼬 비엣은 1054년 리 왕조의 聖宗이 다이 비엣(大越)으로 고칠 때까지 사용되었다. 다이 비엣은 리 왕조, 쩐 왕조, 레 왕조 등의 정식 국호였고 응우옌 왕조가 들어서면서 칭조와 합의한 비엣 남(越南)이라는 국호가 1804년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단, 리, 쩐, 레, 응우옌 등은 왕조의 성씨를 말한다. 유인선, 2012,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창비, 129~130, 259~260쪽.

해 세계사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앞의 한국사에서 진도가 지체될 경우 세계사는 허겁지겁 진도를 나가는 바람에 밀도 있는 학습이 안 되는 상황도 있다. 또한 기말고사 이후에는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실 상황을 감안할 때, 후반부의 세계사가 소홀해지기 쉬운 상황이었다. 가령 중학교에서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던 국공합작이나 국공내전 등의 내용 등은 동아시아사 수업 시간에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우고 나서도 크게 남는 것이 없으며, 일본사나 베트남사의 경우에는 교사와 마찬가지로 무척 생소하게 느낀다. 게다가 동아시아사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참고서나 일반 서적을 찾아보지만 시중에서 구하기가 마땅치 않았던

## 2. 동아시아사 수업의 개선을 위한 노력들

동아시아사가 처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과와 특성을 살린 수업의 사례들은 주목해 볼 만하다. 다양한 수업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동아시아사가 현장에 착근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본다. 수업의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동아시아사의 도입부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처음 도입하는 부분에서는 동아시아사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만큼 의욕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과목에 대한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흥미도를 높이면서 과목에 대한 안내를 겸하는 시간을 배치하고 있었다. 먼저 A교사나 고양·파주의 교사들은 동아시아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았다. 학생들은 중국과 일본이 싫어하는 나라이면서도 앞으로 잘 지냈으면 하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륙, 황사, 동북공정, 싼 물건, 지저분함 등을 떠올렸고, 일본에 대해서는 독도, 일본군‘위안부’, 애니메이션 등을, 베트남에 대해서는 쌀국수, 베트남 전쟁, 한국에 시집오는 베트남 여성(다문화) 등을 떠올렸다. 학생들 서로가 여러 가지 시선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교사들은 말한다. 그리고 수업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주변의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

을 극복하고 함께 공존하는 법을 모색하는 것이 동아시아 과목이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sup>6)</sup> 동아시아의 각 나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을 수 있도록 한 후 교과과의 방향 설정을 학생들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방식이다.

동아시아사 학습의 의의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동아시아 문화의 동질성과 차이성을 함께 언급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서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음식 문화나 화폐, 한자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E교사는 쌀과 화폐를 언급하였다. 동아시아의 나라들에서 공통으로 이용하는 곡물인 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소재였다. 한국의 비빔밥이나 일본의 초밥에 사용하는 쌀은 찰기가 많은 단립종이고, 일본의 차오판(볶음밥)이나 베트남의 쌀국수에 들어가는 쌀은 장립종으로 찰기가 덜하다(교학, 23). 쌀국수를 파는 식당이 많아졌고 심지어 쌀국수 컵라면도 판매되고 있어 쉽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었다. 화폐의 경우는 학생들이 친숙하면서도 관심을 보이는 소재였다. 각국의 화폐 단위인 한국의 원(圓, won), 중국의 위엔(元, yuan), 일본의 엔(円, en)은 모두 圓과 같은 것으로 모두 원형의 금속 화폐에서 기원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화폐 단위인 동(đồng) 역시 화폐의 소재인 銅에서 나온 것으로 한중일의 ‘원’과 유사한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화폐의 경우에는 각국의 화폐 도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학생들이 관심을 끄는 소재였다. 인물들의 면면을 소개하면서 현재 각각의 ‘국민국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인물상이 각 나라별로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었다. 화폐는 학생 발표나 수행평가 형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한자의 경우에는 大學(大學)을 대학(한국), daxue(중국), daigaku(일본)로 발음한다거나 용(龍)이 중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龍, 龍으로 표기하는 사례 등을 들기도 하였다.

동아시아사의 도입부인 I 단원에는 동아시아사의 지형, 기후 등의 자연 환경이 한 꼭지로 들어가 있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나 세계사 교과서에는 이런 설정이 없다.

지금까지 없던 과목인 만큼 동아시아사 전개의 공간적 배경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의 자연 환경을 설명할 때도 교사들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가령,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기도를 보여주면서 한반도의 날씨와 기후가 대륙과 해양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황사나 태풍의 예를 들면서 동아시아 각국 간의 긴밀성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티베트 고

6) 고양파주역사교사모임, 2013, 『동아시아사 수업,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역사교육』 제102호(가을), 130~131쪽.

원, 고비 사막, 황하, 양쯔강, 랴오둥 반도, 오키나와, 타이완, 시모노세키, 베이징, 홍콩, 하노이 등 앞으로의 수업에서 자주 접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지역을 백지도에 표현하도록 하였다. 교사들은 동아시아사 학습에서 주변국에 대한 지리적 감각이 필요한 만큼 교과서의 본문이나 속표지 등에 지형과 주요 하천이 표현된 백지도가 실리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 (2) 각국의 통사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종과 횡으로 역사 지식이 엮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도입부를 통해 학생들은 일단 관심과 호기심으로 동아시아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선사시대를 학습할 즈음에는 한국사나 세계사에서 배우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학습에 큰 곤란을 겪지 않는다. 그렇지만 청동기시대 이후 각 지역의 왕조가 등장하면서부터 학생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각국사에 대한 통사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다 보니 지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면서 학습의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한다. 시대를 내려오면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한 교사는 “한·중·일을 한꺼번에 보려니 어렵다는 하소연”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매 수업마다 세 나라 왕조의 흐름을 칠판 한쪽에 적어주고 지금 다루는 내용이 어디쯤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어야 했다”고 말한다.<sup>7)</sup> 일본의 경우 세계사가 필수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세계사를 기피하는 이유가 단선적인 일본사와 달리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역사를 종과 횡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sup>8)</sup>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단원의 전개에 앞서 필자가 인터뷰한 교사들이나 김유리의 조사에 나타난 교사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왕조 변천이나 및 주요 내용을 개관하는 경우가 많았다.<sup>9)</sup> 많은 교사들은 교과서의 내용과는 별도로 해당 대단원 시기의 각국사의 흐름을 정리하고 횡으로 연결시켜 비교해 보았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연표를 활용하는 수업을 전개하였다. 조선의 왕들을 ‘태정태세문단세 …’하면서 외우듯이 전근대 시기 역사에서 비중이 큰 중국의 왕조인 ‘하상주…청’을 모든 학생들이 줄줄이 외우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7) 이윤선, 2014, 「나의 동아시아사 수업」 「나의 동아시아사 수업을 말한다」(전국역사교사모임 동아시아사 수업 워크샵 자료집), 25쪽.

8) 南塚信吾, 2007, 『世界史なんて知らない?』, 岩波書店, 12~14쪽.

9) 김유리, 2014, 앞의 글, 15쪽.

〈표〉 단원별 시대 구획

	I 단원	II 단원	III 단원	IV 단원	V 단원	VI 단원
한국	고조선	삼국 남북국	고려 (조선전기)	임진전쟁 조선후기	개항 ~ 1945	1945년~
중국	진-한 /홍노	5호16국 남북조-수당	송/요·금-원-(명)	청		
일본	야마토	(아스카)-나라 헤이안	가마쿠라막부 무로마치막부	에도막부		
베트남	남비엣	중국 점령기	응오-리-찐-레	응우옌		

C교사는 〈표 2〉와 같은 표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수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근대의 경우 정치적 영향력이나 서술 분량 등을 고려해 보면 중국 중심으로 흐를 수 있는데 한국사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면서 다른 지역과의 내용 상 연계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가 〈표 2〉를 활용해 I~IV단원을 풀어가는 모습을 들어 보자.

I 단원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나라가 성립하는데, 한 무제의 공격으로 고조선과 남 비엣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과 베트남은 역사 전개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암시를 줍니다. II 단원은 전쟁과 인구 이동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북방 유목 민족과 한족의 갈등으로 시작되는 5호 16국과 남북조 시대의 분열 시기가 한반도에서는 삼국 시대로 중국만큼이나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와 당에 의해 중국에 통일 정권이 들어서고 한반도에서는 당의 힘을 빌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후 동아시아에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장보고, 엔닌, 감진 등의 인물과 울령, 불교, 한자 등의 문물을 예로 듭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백제 등의 문화를 수용하여 아스카 문화가 일어나고 중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한 다이가 개신, 나라~헤이안 시대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다가 절도사들의 발호와 황소의 난 등으로 당의 통치체제가 흔들릴 즈음, 신라에서는 호족이 성장하고 일본에서는 국풍 문화가 일어나며 베트남에서는 1000여년의 중국 지배를 마감하고 독립 왕조인 응오 왕조가 성립된다는 설명과 함께 III 단원으로 연결합니다. 베트남 왕조인 ‘응오-리-찐-레’는 오랜 기간의 중국 지배로 “(한이 멎혀)응어리 찌네”란 표현을 써서 학생들이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III 단원은 학생들이 한국사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와 조선을 중심으로 풀어갑니다. 고려 시기 중국 왕조인 송은 문약에 빠져 요와 금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고려 역시 이들의 공격을 받았다는 점을 연관시킵니다. 또한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베트남 왕조가 리 왕조인데 과거를 실시하고 국자감을 설치하는 것이 동일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무신집권기에 몽골이 침략하는데, 몽골 침략 당시 베트남은 찐(陳) 왕조로 왕실의 종친이었던 찐 흥 다오(陳興道)가 몽골의 침략을 격퇴하고, 일본은 몽골의 침략을 계기로 가마쿠라 막부가 몰락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중국 왕조는 명이며, 명의 영락제에 의해 베트남이 잠시 중국 지배에 있다가 독립하여 레 왕조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의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남북조의 분열을 종식시키는 시점이 1392년으로 조선이 건국한 연도와 동일하며 이후 무로마치 막부가 명과 감함무역을 실시한다는 설명으로 대략 ‘조선(전기)-명-무로마치 막부-레 왕조’가 비슷한 시기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한편 레 왕조의 타인 퉁(성종)이 신유학(성리학)을 보급하는 것과 조선이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으며 과거가 전대에 비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도 유사하다는 설명을 곁들입니다. Ⅳ단원은 임진-병자 전쟁을 계기로 조선은 후기로 설정되는데 중국에서는 청,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막부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좀 무리한 면이 있지만 응우옌 왕조의 시기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인 농업과 상공업의 발달,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발달, 서민 문화의 발달, 성리학 비판 등을 ‘청-도쿠가와 막부-응우옌 왕조’ 시기에도 공통의 요소로 묶어 설명을 해봅니다.

당말, 몽골 침략, 임진·병자 전쟁 등을 동아시아사가 하나의 틀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으로 파악하고 상호 연관성에 주목하는 설명 방식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Ⅱ단원의 당을 중심으로 한 설명은 西嶋定生の 책봉체제론으로 흐를 수 있어 조심스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지나친 단순화도 경계할 부분이다. 그렇지만 각국사의 전개에 대한 시간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주변국과 상호 연결시키려 한다는 면에서 참고할 만하다. 또한 베트남사를 접하면서 교사나 학생 모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사와의 상호 연관성을 찾아 설명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살려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 (3) 수업 시간에 활용할 다양한 내러티브를 어떻게 구성해 볼까?

대개의 역사교사들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풍부한 이야기 거리나 그것이 내재된 사진·영상 등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수업에 자신감을 보인다. 동아시아사 수업이 처음 시작되던 해인 2012년 3월 21일에 전국역사교사모임의 게시판에 한 교사가 올린 글이다.

올 해 처음 동아시아사를 맡아 요즘 교재 연구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세계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세계사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에피소드 등으로 교양적 의미도 높는데 동아시아사는 딱히 잡히는 것도 없고 내용도 역사적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

현장의 교사들은 동아시아사가 현장에 들어오면서 직전까지 수업을 했던 한국근현대사의 빈 자리를 대체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서 한국근현대사만큼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것은 수능의 선택자 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7차교육과정과 함께 개설된 당시 신생과목이었던 한국근현대사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었다. 한국근현대사 역시 도입을 앞두고 교사들이 대학에서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 많아서 잘 가르칠 수 있을까란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 안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일단 그 구성이 국정교과서의 근현대사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현재와 가까운 과거라는 특징 때문에 역동적인 이야기 소재나 사진·영상(다큐멘터리, 영화 등)이 풍부하였다. 우리가 사는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다는 측면도 작용하였다. 그에 비해서 동아시아사는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 활용할 내러티브 요소를 쉽게 찾지 못해 상당히 답답해 한다. 동아시아사 수업을 위한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에피소드’를 발굴해서 수업을 풀어가는 사례를 보자.

첫째, 관련된 참고 자료에서 이야기 소재를 찾아 수업에 활용하거나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경우이다. D교사는 II 단원의 인구이동을 I 단원의 주제 탐구 자료인 ‘중국 지역의 연평균 기온 변화와 정치적 변화’(천재, 35)를 활용하여 설명하였다.<sup>10)</sup> 유목 민족이 남하하면서 연쇄적인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데, 3~6세기 화북 지역에 寒冷과 旱害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인구 이동을 자극했던 측면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 변화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훈족과 게르만족의 이동과도 연결시켰다.(천재, 52) 또한 북방 유목민족의 남하로 그들의 문화가 한족의 생활과 풍속에 변화를 주었는데, 육류와 유제품을 즐기는 문화, 의자와 테이블 생활(천재, 59), 투피스의 복장, 小麥 음식(대표적인 것이 빵) 등이 한족의 생활 속에 자리 잡아 현재 중국의 문화는 일방적인 한족의 문화가 아니라 유목 민족의 문화도 함께 섞여 있음을 강조하였다.<sup>11)</sup>

두 종의 교과서 모두 석굴암, 원강 석굴의 석불, 일본의 도다이 사가 삽화로 제시되어 있는데, E교사는 지도 위에서 위치를 확인하면서 (간다라)–둔황 석굴–릉먼 석굴–원강 석

10) 신성곤, 2010, 「10세기 이전 동아시아의 기후 변화와 인구 이동」 『동아시아문화연구』 제48집 참조.

11) 妹尾達彦, 1999, 「中華の分裂と再生」 『岩波講座 世界歴史 第9巻』 岩波書店, 73~75쪽.

굴-석굴암(신라)-도다이 사(일본)를 연결하는 스토리 라인을 구축하였다. 우선 둔황 석굴은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는 통로인 사막길에 위치해 있고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곳이다. 원강 석굴과 룡면 석굴은 모두 5호 16국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화북 지역을 통일한 북위가 조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전자는 북위 초기의 수도였던 평성 부근에 조성된 것이며 후자는 효문제의 수도를 관중 지역의 뤼양으로 옮기면서 뤼양의 외곽 지역에 조성한 것으로 한화 정책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중국의 석굴사원은 석굴암과 연결되는데 북위가 수도 주변에 석굴 사원을 조성하는 것과 경주의 남산이나 불국사·석굴암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교롭게도 석굴암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751년이고 도다이 사의 대불이 개안된 것은 752년으로 동시기이며 당시는 신라와 일본의 화려한 불교문화가 꽃피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도다이 사는 감진과 관련이 있으며 일본의 나라 시대의 대표적 사원으로 당의 장안성을 모방한 헤이조쿄가 수도였다. 이들 대부분이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인 호국불교와 연관되어 있으며 II 단원에 서술된 불교 관련 주요 내용을 재구성하여 연결하는 효과가 있었다.

둘째, 지역사로부터 수업의 소재를 찾아본 경우다. 전남 함평의 F교사는 新安船을 통한 동아시아 도자기 교류, 완도 청해진의 장보고, 일본의 성리학과 관련된 인물로서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가까운 영광의 내산사원에 배향된 강항, 나주 사람으로 제주도에서 고향으로 오던 중 표류하여 명대의 대운하에 대한 기록을 남긴 최부 등을 수업에 활용하였다. 도자기 교류의 경우는 후일 이삼평, 아리타 자기, 일본의 쇠국, 나가사키, 네덜란드, 인상파 화가, 우키요에 등의 내용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F교사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전남 지역의 인물과 사건을 동아시아사 수업의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교류와 교역에서 전남 지역이 갖는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한·중·일 간의 교통로를 볼 때, 한반도 서남단인 전남 지역은 중요한 길목이다. 고려를 방문한 후 『고려도경』을 집필한 송의 서공도 남중국의 Ningbo를 출발해 흑산도를 거쳐 갔다. 벼농사를 해치는 벼멸구도 중국 남부지방으로부터 남서풍을 따라 이동해 온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항해와 관련된 바람과 조류 등의 자연 조건도 함께 설명하면 좋을 듯하다.<sup>12)</sup> 신안선의 경우에는 도자기뿐만 아니라 동전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다. 많은 양의 중국 동전이 일본으로 수출되었고, 일본에서 연공 징수의 수단으로 중국 화폐가 사용되었다는 교과서의 내용과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다. F교사의 수업은 동아시아사가 지역사와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대구의 교사가 대구 달성군의 賜姓 김해 김씨 집성촌인 우록동과 관련된 임

12) 嚴基白 외, 1988, 「벼멸구의 飛來와 氣象과의 關係」 『한국응용곤충학회지』, 27(4) ; 김성준, 2013, 「고대 동중국해 사단(斜斷)항로에 대한 해양기상학적 고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19(2).

진전쟁 시기의 抗倭 사야카를 소재로 수업한 것도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부산에 근무하는 김민수 교사가 만든 배움책에 부산의 초량왜관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도 부산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sup>13)</sup>

셋째, 인물을 통한 접근이다. 베트남 근현대사의 경우 B교사는 판 보이 쩌우와 호 치 민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판 보이 쩌우는 그의 나이 19세에 근왕령이 발표되자 학우 60여명과 함께 근왕운동에 참여하였다. 이후 유신회를 결성하고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베트남 청년들을 일본에 유학시키는 동유운동을 전개하였다. 프랑스의 요구로 일본이 在日 베트남 조직을 해산하자 태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그는 신해혁명의 소식을 전해 듣고 광저우에서 쑨원의 동맹회를 본보기로 베트남광복회를 조직하였다.<sup>14)</sup> 한국과 관련해서는 그가 일본에 머물면서 만났던 량치차오의 권유에 따라 집필한 『월남망국사』가 1905년부터 한국에 소개되어 읽혀졌고, 그가 독립운동의 전술로서 무장 폭동 방식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사건이 있었음을 소개하였다. 판 보이 쩌우 이후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던 사회주의자들의 민족운동에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와 미국과의 전쟁에 이르는 과정은 호 치민과 연결시켜 수업하였다. 그리고 설명 중간에 근왕 운동과 한국의 의병 운동, 동유운동과 영선사·조사시찰단, 베트남 공산당과 조선 공산당 등을 연결시켰다. 인물사를 통해 구성하다보니 학생들이 베트남사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면이 있으며, 한국사와의 유사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베트남과의 거리감을 극복하는데 유용한 면이 있었다고 말한다.

넷째, 국가 단위가 아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한 경우이다. E교사는 구글의 〈그림 1〉과 같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수업을 이끌었다. 〈그림 1〉은 발해만을 중심으로 한 구도이다. 발해만을 사이에 두고 랴오둥 반도와 산둥 반도 지역은 한국사와 중국사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지도를 확대해 보면 랴오둥 반도와 산둥 반도가 열도로 이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랴오둥 반도의 끝인 뤼순(旅順)은 ‘해상으로의 항해가 순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뤼순을 출발해 열도를 따라 산둥 반도에 닿으면 중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역으로 산둥 반도에서 열도를 따라 랴오둥 반도에 이르면 만주나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고조선-한 전쟁, 고구려-수·당 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이 모두 이곳을 배경으로 한다. 산둥 반도의 경우 칭다오의 독일 조차지, 의화단 운동, 5·4운동, 일본의 산둥 출병 등 근현대사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3) 김민수, 2014, 『2014 동아시아사 배움책』, 121쪽.

14) 유인선, 2004, 「판 보이 쩌우-방황하는 베트남 초기민족주의자」, 『歷史教育』제90집 참조.



이러한 방식은 동아시아의 역사 전개를 현재의 국민국가를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밖에도 오키나와, 타이완, 티베트처럼 이중의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지역을 주제로 수업을 전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sup>15)</sup>

### 3. 평화교육으로서 동아시아사의 과제

동아시아사는 한국사를 지역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화함으로써 한국사와 세계사의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평화와 화해의 역사인식이 교과서에 반영되었다. 그렇지만 교사들 중에는 동아시아사 과목의 의의에 관해 의견이 나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유리의 조사에서는 ‘동아시아사가 동북아 역사 갈등의 해소, 바람직한 지역공동체의 형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중국이나 일본에도 없는 과목을 우리만 가르친다고 해서 해소될 것 같지도 않다.’고 동아시아사 과목의 설립 취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필자가 인터뷰한 교사들 중에서도 동아시아사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겠지만 앞서 언급한 교사 측면의 수업의 곤란도나 학생 측면의 이해도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동아시아사가 다른 교과목에 비해

15) 동아시아의 이중적 정체성을 지닌 지역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백영서, 2013,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본다』, 창비 참조.

‘평화지향적 성격’을 보다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평화와 관련해서 임진전쟁에 대한 수업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평화 인식을 잘 드러내기 위해 주목하는 단원이 어디인지 질문을 던졌다.

먼저 임진전쟁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은 국제 관계와 전쟁의 참상 등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쟁을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로 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간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였다. 가령 사야카(김충선), 이삼평, 김환, 전쟁 기간 일본군에 협력했던 조선인 등이 수업에 등장하였다. 이는 수업에 임하는 교사의 의지가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사 교과서와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임진전쟁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데서 오는 측면도 커 보인다. 한국사가 전쟁의 추이와 전쟁 이후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에 집중한다면, 동아시아사의 경우 명칭부터 ‘왜란’이 아닌 ‘전쟁’으로 전란극복사의 관점에서 벗어나 객관화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으며(교학사의 경우에는 한중일의 임진전쟁 명칭의 차이를 비교), 전쟁과 관련된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으로 전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교과서가 전체적으로 견지하는 관점으로 동아시아사 교과가 갖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내용 파악과 수업 내용 파악에 허덕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평화의 관점으로 수업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으리라 본다.

평화 인식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단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근현대사 단원인 V·VI단원이란 응답이 나왔다. 그렇지만 F교사의 경우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단원은 III·IV단원 즉 고려~조선(송~청, 가마쿠라 막부~에도막부)로 보았다. 그는 문화 교류와 인물사에 방점을 찍고 수업을 전개하였다. II단원의 율령처럼 제도사의 경우는 각국의 수용 과정에서 보이는 차이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중국이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전쟁의 경우에는 한국의 역할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갈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동아시아 삼국간의 관계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경우 대개는 전쟁 관련된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각국의 관계사를 강조할 때 부담스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근현대사인 V·VI단원이 평화의 관점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단원이며 그래서 보다 비중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첫째, 동북 공정 문제나 독도 문제 등이 터질 때마다 계기 수업이나 특별 수업의 형태로 진행되던 것이 정식 교과 속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현재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영토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룸으로써 동아시아

의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동아시아의 정세를 다룬다는 점이다. 기존의 역사교육에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는 잘 다루지만 전쟁 종결 이후 현재까지의 동아시아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사나 세계사에서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가령 일본에 관해 한국사나 세계사 어느 곳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은 없었다. 동아시아 각국의 냉전과 전쟁, 민주화와 경제 성장, 국교 정상화 등을 전반적으로 다룬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셋째, ‘베트남의 재발견’이다. 특히, 베트남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여실히 드러나며 그럼으로써 베트남사가 왜 동아시아사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한국사에서는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성장 등과 관련하여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곤 하였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과 그 시기가 유사하게 교차하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나, 베트남 전쟁 중 이루어진 닉슨의 중국 방문 등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베트남전쟁을 포함한 한국전쟁과 국공내전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가 겪었던 ‘냉전 속의 열전’ 속에서 함께 인식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짜여 있었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의 전개를 동아시아라는 틀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한국근현대사에서도 잘 다루지 않던 방식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라 볼 수 있다. 일부 교사들은 오히려 문화권적 접근으로 Ⅱ단원에서 유교, 불교, 한자, 율령을 공유하는 당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 베트남이 속함으로써 베트남을 동아시아로 설정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근현대사 단원과 관련하여 B교사는 제국주의 침략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일본의 침략, 핵 문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에 대해서는 각각 2시간 이상 배정하여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였다. 베트남전쟁은 영상 자료인 <미안해요, 베트남>을 시청하였다. 그리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은 ‘땀을 흘린’(냉전 하의 국제전, 이념 대립, 민간인 학살, 전쟁의 참상 등)에 유의하였다. 그는 Ⅶ단원은 학생들이 제일 재미있고 관심을 둔 부분이었다고 말한다. 현재의 정치적 부분과 연결된 사안의 민감성도 있지만 교사가 의미 부여하는 방식에 학생들이 영향을 받았으리라 보인다. 특히, Ⅶ단원은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시험 후 교사들이 가볍게 처리하거나 수업분위가 흐트러지는 상태에서 학생들도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사는 한국과 더불어 이웃한 동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화적 감수성을 기르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 환언하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①과 ②의 목표에 얼마나 근접하고 있을까? 교사와 학생들 모두 동아시아사 수업을 통해 ①의 목

표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충분히 동의하였다. 학생들에게 동아시아사 수업을 전후로 중국, 일본, 베트남에 대한 생각을 물어 보았다. 세 나라 중 베트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제일 크다는 반응이었다. 베트남의 역사를 거의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동아시아보다는 동남아시아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이 있어 거리감이 있고, 현재로서는 베트남을 이해하기에는 서술의 분량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였다. 베트남이 동아시아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은 전근대 부분에서 더 강하다는 입장과 근현대 부분이라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전자의 경우는 한자, 불교, 유교, 과거제 등의 문화를 공유하는 측면이나 한이나 몽골의 침입 등 한국과 유사한 역사적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식민지화, 민족 운동, 분단과 전쟁이 한국이 밟아온 궤적과 유사한 면을 들기도 하지만 베트남 전쟁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중국 역시 새롭게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동아시아사를 학습하면서 학생들이 막연한 비하나 멸시감을 조금씩 극복해 가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동아시아사 수업 이후 나타나는 이웃 나라들과의 공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아시아 국가 간에 교류의 폭이 확대되고 상호 의존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사 후반부로 갈수록 억울하거나 분통터지는 일들이 많아요”, “중국과 일본한테 실컷 얻어맞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라면서 화해와 공존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 이유를 들어 보면 첫째, 주변국들이 영토와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의 나라들이 영토와 역사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배려와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냉담한 반응이었다. 학생들은 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이 팽창정책을 내세우는 사람들끼리 싸운다’라고 하거나 ‘동북공정을 하던 중국이 상해의 임시정부 청사를 복원하는 것은 가식’이라고 말한다. 독도, ‘위안부’, 동북공정 문제 등의 요인으로 반목이 심화되면서 학생들의 보다 진전된 인식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둘째, 기존에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형성된 주변국에 인식이 상당히 강해 깨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학교, 대중 매체 등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 크게 머릿 속에 남아 있다고 이야기한다. 한 학생은 교사들 중에서 “나는 일본 사람을 일본×이라 부르는 것이 맞다”고 수업 시간에 공공연히 말하는 경우도 경험했다고 말한다. 셋째,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동아시아사 과목이 오히려 주변국에 대한 반목 의식을 더 크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이다.

여기서 중국과 일본의 영토 갈등 내지 역사 갈등, 기존에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형성된 주변국에 대한 부정적 관념 등은 교과 외적 상황이지만 동아시아사 공부를 통해 반목 의식이 강화된다면 큰 문제이다. A교사는 결론적으로 교과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일본에 대한 증오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한다. “갈등과 분쟁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접하면서 더 많이 더 잘 싸우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반문하며, 수업이 공존과 배려, 평화로 귀결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더구나 현재의 정치 상황이 호락호락한 것 같지 않은 점이 학생들의 역사 인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언급한다. ‘주변의 나라들은 별로 평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데 우리만 왜 평화를 생각해야 하는지’ 학생들의 불멘소리도 나온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평화 인식과 관련한 학생들의 전망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동아시아사를 배우고 나서 중국, 일본, 베트남의 사람들과 만날 경우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단순히 스키나 쌀국수 같은 음식, 애니메이션, 연예인을 이야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진지한 정치 이야기나 현안 문제가 나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수준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에 관한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화해를 위한 노력’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 단원의 끝이다 보니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교사들도 ‘여건 시험에 나오면 상식으로 풀면 돼. 착한 답을 고르면 된다’, 혹은 ‘TV나 신문에 나오는 상식 수준으로 풀면 된다’라는 식으로 쉽게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는 근현대사 부분만 배우고 애매한 단계에서 교과가 종결된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현장의 교사로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생들은 동아시아의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 인식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교류와 대화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A교사는 체험을 통한 사례를 들었다. 2013년에는 일본 교토에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의 한중일 3국의 청소년 캠프에 A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3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캠프에 다녀온 이후 학교에 돌아와 학생들이 발표한 체험담은 사뭇 감동적이었다고 한다. 한중일의 학생들이 서로 만났는데 처음에는 한국과 중국의 학생이 함께 일본의 침략전쟁 시기에 자행한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일본 학생을 공격하였다고 한다. 이에 일본의 학생은 당황해 하면서 자기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다고 하였으나, 차츰 한국과 중국의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결국 울음을 터트리고 그 자리에 있던 한국과 중국의 학생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마무리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발표를 통해 학교의 다른 학생들과

나누었다고 한다.

학생과 교사들은 현재의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V·VI단원이 가장 중요하며 이에 대한 서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사의 학생 흥미도나 현재적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단원 구성에서 I~III단원의 비중을 줄이고 전통 사회의 난숙기라 할 수 있는 IV단원부터 근현대사의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I~III단원의 편성이 지루한 편이며, 현재의 단원 편성은 상당히 기계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나라들의 전통적인 모습은 주로 IV단원에서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V·VI단원에서 근현대사와 동아시아의 나라들이 직면한 현안을 보다 선명히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사 과목의 개설이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한국이 동아시아 각국 중에서 제국주의와 제국성이 가장 적은 국가로서<sup>16)</sup> 동아시아사를 개설하는 의미는 크다. 또한 동아시아 젊은이들 사이의 '취미화된 내셔널리즘'의 극복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인식과 감수성을 계발하는 차원에서 동아시아사 과목의 개설은 의미있는 시도이다.<sup>17)</sup> 그런데 동아시아 각국의 갈등 상황 때문에 동아시아사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학생과 교사들 사이에서 들곤 하는데 이는 매우 안이한 발상이다. 정치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방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일수록 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는 해안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육, 특히 역사교육에서 동아시아의 평화 문제를 놓고 학생들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평화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싶은 것은 현재의 교과서가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동아시아의 영토와 역사를 둘러싼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과제이자 동아시아 평화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과 평화 문제는 빠져 있는 형국이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한국사나 인접 교과에서도 다루는 문제이기는 하나 동아시아사 교과에 맞게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남북 간의 평화 문제에 주변국의 입장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동아시아적 견지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아니면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한국, 중국, 베트남 모두 분단 상황을 경험했거나 분단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든 혹은 한반도 상황을 특별 꼭지 형식으로 다루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이다.

16) 유용태, 2013, 앞의 글, 206쪽.

17) '취미화된 내셔널리즘'에 관해서는 다카하라 모토아키 저, 정호석 역, 2007, 『한중일 인터넷 세대가 서로 미워하는 진짜 이유』 삼인, 121~165쪽 참조.







